

蔚山大學校博物館 學術研究叢書 第2輯

文化遺蹟地表調查報告 (雲化里古墳群)

全 虎 兌
金 榮 珉
宣 石 悅

1 9 9 8

蔚 山 廣 域 市
蔚 山 大 學 校 博 物 館

간행사

우리 울산은 선사시대 이래 현재까지 사람의 자취가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특히, 천년왕국 신라의 외항으로 자리매김되면서 울산은 우리 역사의 주요한 현장의 하나로 기능하였습니다. 때문에 울산에는 대곡리와 천전리에 암각화가 새겨지던 선사시대부터 신라시대에 걸친 유적이 대단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되어 보고된 신라시대까지의 유적만 400여곳을 상회합니다. 흔히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유적의 수는 지표 아래 숨어 있는 매장문화재 유적을 포함한 실제 유적분포 수의 5%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점과 고려 및 조선시대의 유적이 보고대상에서 빠진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울산지역의 유적 밀도는 천년고도 경주에 버금 가는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적 분포현황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의 매장문화재 유적에 대한 보호와 관리는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우리나라의 근대화과정에 울산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울산의 많은 매장문화재 유적은 그 존재가 확인되지도 못한 채, 흔적도 없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라진 많은 유적들이 번성했던 울산의 옛 역사를 더듬는 중요한 자취였을 뿐 아니라 우리 문화의 우수함을 내외에 알게 하는 중요한 증거였음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근래에 들어 울산의 문화유적 보호와 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시당국도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추어 울산의 매장문화재 현황의 파악 및 보존, 정비방안 수립을 적극 고려하고 있음은 극히 고무적인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울산시가 지금까지도 도굴의 손길을 타고 있는 운화리고분군의 보존·정비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 울산대박물관에 해당 유적의 정밀조사보고서 작성을 의뢰한 것도 이러한 변화의 구체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온양면 운화리고분군은 농소읍 중산리고분군, 웅촌면 대대리고분군, 언양읍 천전리고분군과 함께 울산지역의 4대 대형봉토고분군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문

에 삼한시대 울산지역에서 성장한 小國의 실체와 신라로의 편입후 울산지역의 정치, 사회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역사적 자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수 차례에 걸친 대규모 도굴로 말미암아 유적의 파괴가 극심한 상태이지만, 지금이라도 이 중요한 유적의 보존과 정비가 추진되게 된 것은 극히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울산의 유일한 문화재 연구기관인 우리 울산대박물관은 울산지역의 문화유적 보호, 관리, 조사, 연구의 중심적 역할을 다하고자 이번 운화리고분군 정밀조사보고 작업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지역에서는 단일유적의 보호와 정비를 위한 정밀조사의 첫 사례여서 이웃 지역의 유사한 사례들도 조사 정리대상에 포함시켜 가능한 한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조사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화리고분군 뿐 아니라, 울산지역의 다른 문화유적의 보호 및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작업을 기획하고 맡겨준 울산시당국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반 작업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을 기울여 준 김영민 학예원 이하 여러 연구원 및 조사보조원께 새삼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 10월

울산대학교 박물관장 전 호 태

<目 次>

간행사

圖面目次

圖版目次

I. 머리말	9
II. 遺蹟의 立地와 現況	11
III. 調査內容	16
1. 考古學的 調査	16
(1) 收拾遺構	18
(2) 採集遺物	19
(3) 周邊遺蹟	35
(4) 雲化里古墳群의 性格	57
2. 古代의 蔚山과 雲化里古墳群	59
(1) 머리말	59
(2) 古代의 蔚山과 昔脫解	59
(3) 雲化里古墳群의 歷史的 意義	74
(4) 맺음말	84
IV. 保存整備의 必要성과 方向	87
1. 유적 정비사례	87
(1) 東萊 福泉洞古墳群	88

(2) 高靈 池山洞古墳群	92
(3) 昌寧 校洞古墳群	94
(4) 咸安 末伊山古墳群	96
(5) 宜寧 中洞里古墳群	98
(6) 陝川 玉田古墳群	98
(7) 扶餘 陵山里古墳群	105
(8) 公州 宋山里古墳群	107
2. 정비사업의 진행과정	109
(1) 현장조사	109
(2) 정비계획의 수립	110
(3) 정비	111
3. 문화리고분군 정비안	112
(1) 문화리고분군의 현황	112
(2) 문화리고분군 정비방안	113
V. 맺음말	117

〈 圖面目次 〉

圖面 1 雲化里古墳群 周邊 地形圖(1/6단)	13
圖面 2 雲化里古墳群地形圖(1/1단)	17
圖面 3 收拾遺構 平面圖(1/40)	19
圖面 4 雲化里古墳群 採集遺物(1/3)	21
圖面 5 雲化里古墳群 採集遺物(1/3)	24
圖面 6 雲化里古墳群 採集遺物(1/3)	27
圖面 7 雲化里古墳群 採集遺物(1/3)	30
圖面 8 雲化里古墳群 採集遺物(1/3)	32
圖面 9 雲化里古墳群 採集遺物(1/3)	34
圖面10 雲化里古墳群 採集遺物(1/3)	35
圖面11 良東遺蹟地形圖	40
圖面12 良東遺蹟遺構變遷圖(左 : 24號, 中 : 14號, 右 : 32號)	41
圖面13 良東遺蹟 出土遺物(1/3)	43
圖面14 良東遺蹟 出土遺物(1/3)	44
圖面15 良東遺蹟 出土遺物(1/3)	45
圖面16 良東遺蹟 出土遺物(1/3)	46
圖面17 華山里古墳群 地形圖	47
圖面18 華山里古墳群 遺構平面圖(左 : 24號, 右 : 12號)	49
圖面19 華山里古墳群 出土遺物(1/3)	51
圖面20 華山里古墳群 出土遺物(1/3)	52
圖面21 華山里山城 地形圖	53
圖面22 華山里山城 出土遺物(1/3)	55
圖面23 華山里山城 出土遺物(1/3)	56
圖面24 東萊 福泉洞古墳群 遺構配置圖	89
圖面25 高靈 池山洞古墳群 遺構配置圖	93
圖面26 昌寧 校洞古墳群 遺構配置圖	95
圖面27 咸安 末山里古墳群 遺構配置圖	97
圖面28 宜寧 中洞里古墳群 遺構配置圖	99
圖面29 陝川 玉田古墳群 遺構配置圖	103
圖面30 扶餘 陵山里古墳群 遺構配置圖	106
圖面31 公州 宋山里古墳群 遺構配置圖	108
圖面32 雲化里古墳群 구릉 구분도(1/5천)	116

< 圖版目次 >

圖版1 雲化里古墳群 全景	121
圖版2 雲化里古墳群 蓋石 露出 廣景	122
圖版3 雲化里古墳群 蓋石 露出 廣景(上)과 遺構露出 廣景(下)	123
圖版4 雲化里古墳群 道路開設時 破壞된 遺構	124
圖版5 遺蹟을 가로 지르며 開設된 道路	125
圖版6 道路로 인하여 斷面에 露出된 遺構	126
圖版7 道路로 인하여 斷面에 露出된 遺構	127
圖版8 道路로 인하여 斷面에 露出된 遺構(上)와 收拾遺構(下)	128
圖版9 收拾遺構의 모습	129
圖版10 收拾遺構의 細部모습	130
圖版11 採集遺物	131
圖版12 採集遺物	132
圖版13 採集遺物	133
圖版14 採集遺物	134
圖版15 採集遺物	135
圖版16 採集遺物	136
圖版17 採集遺物	137
圖版18 靑良面 良東遺蹟 全景과 發掘作業 廣景	138
圖版19 溫山邑 華山里古墳群 調査 廣景	139
圖版20 溫山邑 華山里山城 露出 廣景	140
圖版21 溫山邑 華山里山城 出土遺物	141
圖版22 溫陽面 下方古墳群 全景 및 遺構毀損 모습	142
圖版23 溫陽面 三光里古墳群 全景 및 採集遺物	143
圖版24 東萊 福泉洞古墳群 整備後 廣景(上→下)	144
圖版25 東萊 福泉洞古墳群 整備後 廣景(下→上)	145
圖版26 高靈 池山洞古墳群 調査 廣景	146
圖版27 高靈 池山洞古墳群 整備後 廣景	147
圖版28 昌寧 校洞古墳群 全景	148
圖版29 咸安 末伊山古墳群 全景	149
圖版30 宜寧 中洞里古墳群 全景과 陝川 玉田古墳群 全景	150
圖版31 扶餘 陵山里古墳群 全景과 公州 松山里古墳群 全景	151

I. 머리말

雲化里古墳群은 蔚山廣域市 蔚州郡 溫陽面 雲化里 159-6番地 一帶 상대마을의 북동쪽 산록에 위치하는 三國時代의 대규모 墳墓遺蹟이다.

蔚山地域에는 學術調査를 통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文化遺蹟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되지 않은 유적들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遺蹟의 분포밀집도에서 慶州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사된 遺蹟은 전체유적에서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여 蔚山地域의 歷史的, 文化的 基盤을 정리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학술조사도 거치지 않은 대부분의 유적들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실정이다.

울산지역이 三國時代 慶尙道地域을 기반으로 三國을 統一한 新羅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때문에 울산지역은 우리나라의 古代史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歷史的 資料가 산재한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울산지역은 우리나라 제일의 工業地域으로, 工業化의 과정중에 많은 유적들이 훼손되었고, 또 많은 유적들이 조사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文化財 行政 不在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시민들의 文化財에 대한 의식이 날로 성장함에 힘입어 文化財의 保護와 保存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도 이러한 제반여건 속에서 文化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雲化里古墳群遺蹟의 精密地表調査는 이러한 文化財에 대한 의식전환에 발 맞추어 실시된 것으로 향후 蔚山廣域市 문화재 행정의 새로운 지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에 실시한 雲化里古墳群의 精密地表調査는 單一遺蹟에 대한 조사로서 考古學的인 조사뿐 아니라 歷史學的인 調査도 병행하고, 아울러 국내에 설립된 단일유적의 展示館, 記念館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여 울산지역의 중요유적에 대한 독립적인 전시관 내지 기념관 설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의 조사는 문화리고분군에 대한 정밀지표조사와 함께 문화리고분군의 인근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유적의 성격을 다시금 짚어보고, 溫陽面과 溫山邑 및 靑良面 一帶의 유적들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미 工業化가 상당히 진행되어 많은 遺蹟들이 이미 소멸되었고, 남아 있는 유적들도 대부분 盜掘이 심하여 보존상태가 극히 열악한 형편이었다. 특히

운화리고분군 일대는 도굴이 극심하였고, 送電塔의 건설과정에 遺蹟을 가로지르는 道路가 개설되면서 많은 유구들이 파괴되어 유물편들이 산산조각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관계당국의 적절한 보존대책이 적실히 요구되는 현상이었다.

이번 조사의 조사단 구성은 아래와 같다.

단 장 : 全虎兌 (蔚山大學校 博物館長)

조 사 원 : 金榮珉 (蔚山大學校 博物館 學藝研究員)

宣石悅 (慶南大學校 講師)

조사보조원 : 李慶仁 (蔚山大學校 博物館 助教)

金賢哲 (蔚山大學校 博物館 研究員)

裊順喜 (蔚山大學校 博物館 研究員)

南蓮懿 (蔚山大學校 博物館 研究員)

千羨幸 (現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研究助教)

보 조 원 : 성민호, 권지영, 최승희외 다수 (울산대학교 사학과 학생)

채집된 유물의 정리는 이경인, 김현철, 남연의가 주로 하였으며, 사진촬영은 배순희가, 유물의 실측 및 탁본은 천선행, 권지영, 최승희가 주로 맡아 수고해 주었다. 그리고 本文의 記述과 圖面 및 圖版의 편집은 金榮珉이 담당하였고, 歷史學的 調查部分의 原稿는 宣石悅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原稿의 점검 및 교열은 全虎兌가 하였다.

II. 遺蹟의 立地와 現況

雲化里古墳群은 행정구역상 蔚山廣域市 蔚州郡 溫陽面 雲化里 山159-6(林)番地 一 帶에 위치하고 있다. 大雲山(海拔 740m)의 동쪽산록 해발 50~150m선상에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아 고분군이 입지한 지형은 깊은 산속의 외진 지역에 해당한다. 대운산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흘러 들어가는 대운천의 계곡 측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형상으로 볼 때, 이 지역에는 생활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는 주변 지형이 논으로 경작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운천이 흐르는 주변으로 주거지역이 입지할 만한 요건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古墳群이 위치한 지역에서 북서쪽 인근에 축조시기를 알 수 없는 土城인 大雲山城이 있다. 성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며, 현재는 성벽으로 생각되는 흔적만 확인될 뿐 시설물의 흔적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송전철탑을 세우면서 성벽의 일부가 유실되었으며 수풀이 우거져 있어 성벽의 형태는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아마도 토성으로 판단되는데 성벽의 아래쪽에 할석들이 일부 보이는 점으로 보아 토성을 쌓고 일부면을 돌로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성의 내부로 생각되는 곳에서는 아무런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축조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倭賊의 노략질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 피난처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雲化里古墳群이 입지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 일대에는 다수의 遺蹟이 분포하고 있다. 발굴조사가 된 곳으로는 三光里遺蹟과 청량면의 良東遺蹟¹⁾, 온산읍의 華山里古墳群²⁾, 華山里山城³⁾ 등이 있으며 발굴조사가 되지 않은 유적도 상당수 확인되었다. 그 내용은 蔚山市에서 발간한 文化遺蹟原簿⁴⁾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圖面1은 이를 참고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웅촌면에서 온양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따라 흐르는 남창천 주변지역으로 靑銅器 時代 이래의 많은 유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圖面1에서 알 수 있듯이 東海로 흘러 들어가는 支流를 따라서 遺蹟들이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발굴조

(1) 釜山大博物館, 1985, 『蔚州良洞遺蹟調查概報』, 遺蹟調查報告 第9輯.

(2) 釜山大博物館, 1983, 『蔚州華山里古墳群』, 遺蹟調查報告 第6輯.

(3) 東亞大學校 博物館, 1990, 『蔚州華山里城址』, 古蹟調查報告 第十六冊.

(4) 蔚山市, 昌原大學校 博物館, 1995, 『蔚山郡文化遺蹟原簿-埋藏文化財』.

蔚山市, 昌原大學校 博物館, 1997, 『蔚山市文化遺蹟原簿-埋藏文化財』.

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6~7세기대의 古墳群들이 이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6~7세기대의 이 지역은 상당히 번성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지역이 번성할 수 있었던 經濟的 基盤은 아마도 바다와 관계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雲化里古墳群이 위치한 온양면지역은 온산읍, 서생면과 같이 新石器時代의 遺蹟이 입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지만 이미 工團으로 개발되어 유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최근 황성동 세죽유적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의 貝塚과 서생면 新岩里 貝塚⁵⁾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지역은 신석기시대 이래 인간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雲化里古墳群의 주변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유적이 확인되었고 일부 유적은 발굴 조사되었다. 圖面1의 2, 38, 48, 49번 유적은 이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이다. 38번 유적은 三光里遺蹟으로 알려진 곳인데, 三國時代 初부터 墓域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48번 유적은 三國時代 後期の 墳墓遺蹟인 華山里古墳群이다. 36기의 분묘가 조사된 곳인데 時期는 대체로 6~7世紀代에 해당한다. 그리고 49번 유적은 48번 유적과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의 城址遺蹟이다. 사용시기는 統一新羅時代에 築城되어 고려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2번 유적은 靑銅器時代의 住居址와 三國時代의 墳墓遺蹟인 良東遺蹟이다. 이들 중에서 38번 유적을 제외한 나머지 유적들은 이미 유적에 대한 내용이 학계에 알려져 그 성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 외의 유적들은 아직도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존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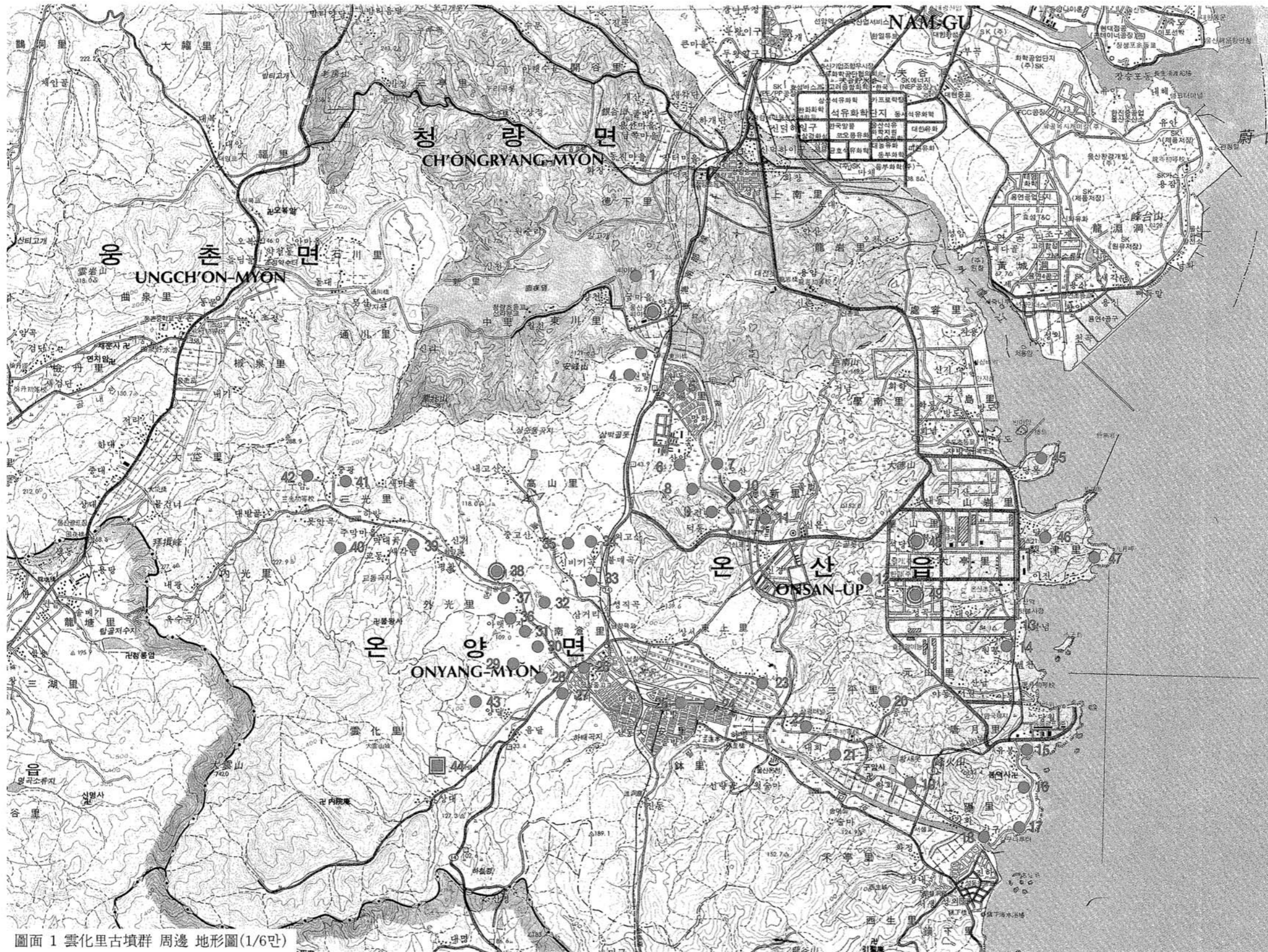
온양면지역이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하는 시점은 統一新羅時代이다. 西生, 溫山과 같이 이 지역은 新羅初期의 生西良郡이었으며 景德王 16年(757)에 東安郡으로 개칭되었다⁶⁾. 溫陽面이라는 지명이 사용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正祖 10年(1786)때의 읍지에 이미 온양면이라는 지명이 나타나고 있다⁷⁾. 溫陽面 地域에는 新羅때부터 佛敎가 성행하여 安胎峯에 天安寺, 德新리에 嶺南寺, 高山리에 安峯寺, 三光리에 新興寺와 玉蓮庵, 大雲山에 佛光寺와 大原寺, 安心寺, 鉢里의 '큰절' 등 4寺9庵이 있었다고 전한

(5) 國立中央博物館, 1988, 『新岩里 I』, 古蹟調查報告 第20冊.

國立中央博物館, 1989, 『新岩里 II』, 古蹟調查報告 第21冊.

(6) 『三國事記』 卷34 地理志1, 良州 東安郡條

(7) 『蔚山邑誌』, 壬辰倭變事蹟條.



- < 범례 >
- 1 동천리 굽마을유적
 - 2 동천리 양동유적
 - 3 망양리 원말유적
 - 4 망양리유적 I
 - 5 망양리유적 II
 - 6 망양리 산양유적
 - 7 덕신리 오산생활유적 I
 - 8 덕신리유적
 - 9 덕신리 오산복합유적
 - 10 덕신리 오산생활유적 II
 - 11 덕신리 덕신유적
 - 12 화산리 산성유적
 - 13 원산리 뒷불넙유적
 - 14 원산리 원봉유적
 - 15 우봉리 우봉유적
 - 16 강양리 마주돌유적
 - 17 강양리 갈매기돌유적
 - 18 강양리 강구유적
 - 19 강양리 하회유적
 - 20 삼평리 종곡유적
 - 21 삼평리 내회유적
 - 22 삼평리 상회고분군
 - 23 동상리 하서유적
 - 24 발리 하발유적
 - 25 발리 상말유적
 - 26 운화리 남창유적
 - 27 태화리고분군
 - 28 운화리 합수유적
 - 29 운화리 합수고분군
 - 30 운화 조개유적
 - 31 외광 외광유적
 - 32 외광 귀지유적
 - 33 고산 외고산유적 II
 - 34 고산 외고산유적
 - 35 고산리유적
 - 36 온양면 외광정골유적
 - 37 외광리 아랫귀지유적
 - 38 삼광리복합유적
 - 39 외광리 새각단유적
 - 40 외광리 하방고분군
 - 41 삼광리 중광유적
 - 42 삼광리 구암유적
 - 43 운화 태화골유적
 - 44 운화리고분군
 - 45 산암 담옥유적
 - 46 산암 달포유적
 - 47 범얼감유적
 - 48 화산리고분군
 - 49 화산리산성

圖面 1 雲化里古墳群 周邊 地形圖(1/6만)

Scale : 1/6만

다.

‘雲化里’라는 지명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大雲의 ‘雲’과 台化의 ‘化’가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Ⅲ. 調查內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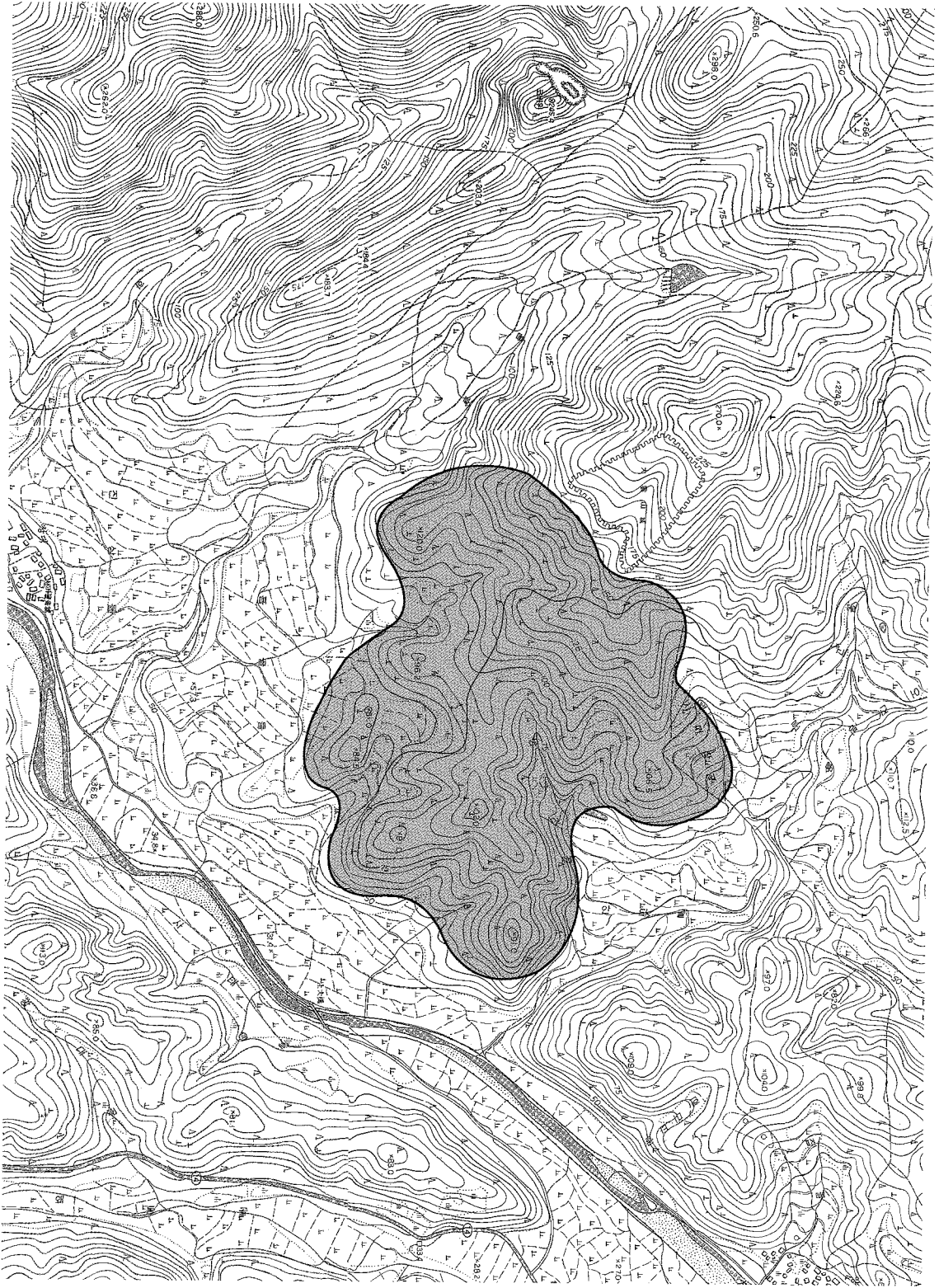
雲化里古墳群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는 일차적으로 유적에 대한 성격의 규명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發掘調査가 아닌 地表調査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니는 만큼 雲化里古墳群의 전반적인 性格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때문에 이번 조사는 운화리고분군에 대한 향후의 보존대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작성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실시되었다.

먼저 운화리고분군지역을 중심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유적의 정확한 범위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주변에서 채집된 유물들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器形 파악이 가능한 유물을 위주로 實測을 실시하여 圖面化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雲化里古墳群의 築造時期를 검토하여 보았다. 또한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유적들 중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을 검토대상으로 하여 운화리고분군의 성격을 추정하여 보고자 하였다. 또한 歷史學的 論考를 통하여 蔚山地域의 歷史的 成長過程과 雲化里古墳群이 위치하고 있는 溫陽面地域에 대한 歷史的인 狀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물론 영성한 문헌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이므로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현재까지의 文獻史的 연구 동향을 기초로 하여 雲化里古墳群의 性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文獻的 研究도 시도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文化遺蹟 中에서 整備計劃에 의하여 정비사업이 이루어진 유적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운화리고분군의 정비계획에 필요한 단서를 얻고자 하였다. 우리 나라의 유명한 文化遺蹟 中에서 울산지역에 인근한 慶州地域은 이미 많은 유적들이 정비되었고 이 유적들은 一般人을 상대로 한 教育의 場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들이 쉽게 가보기 어려운 遺蹟中에서 정비된 유적을 일부 선별하여 그 내용을 간략하나마 정리하여 보았다. 물론 정비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된 유적중에서 극히 우수한 시설을 보유한 곳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일부만을 선정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조사내용의 서술은 考古學的 調査와 歷史學的 調査로 나누고 報告書의 末尾에 보존, 정비된 유적의 소개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1. 考古學的 調査



圖面 2 雲化里古墳群地形圖(1/1萬)

雲化里古墳群은 蔚山地域의 三國時代 遺蹟中에서 가장 盜掘이 심한 지역중의 한 곳이다. 유적에 들어서면 유적을 가로 지르는 도로(송전탑 설치시 개설)의 단면에 파괴된 상태로 잔해를 들어내고 있는 수많은 遺構들이 확인된다. 그리고 도로에서 벗어난 구릉으로 들어가면 중간 중간에 盜掘坑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 특히 거대한 규모의 蓋石이 아직도 石槨(室)의 상단부에 걸쳐져 있으며, 그 내부에 최근의 도굴 당시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들이 채워져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蓋石이 있는 遺構의 경우, 陷沒에 의한 내부 훼손없이 내부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길이 3m 이상되는 蓋石들을 옆으로 밀어 제쳐 두고 遺構의 內部를 전면적으로 도굴해 버린 결과, 내부에는 유물의 흔적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遺蹟의 全面에 걸쳐서 파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遺構의 수는 적어도 수 십기 이상으로, 雲化里古墳群의 全體 規模는 실로 엄청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파괴된 유구는 대부분 豎穴式 石槨墓로 판단되며 橫口式을 포함한 橫穴式 石室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도굴된 유구는 대형분이는 하지만 대부분이 蓋石이 덮여져 있고, 도굴갱내에 많은 양의 土砂가 밀려 들어 있어 遺構의 內部를 살펴보기는 어려웠다. 단, 上部가 거의 삭평된 小形 石槨 1기를 수습할 수 있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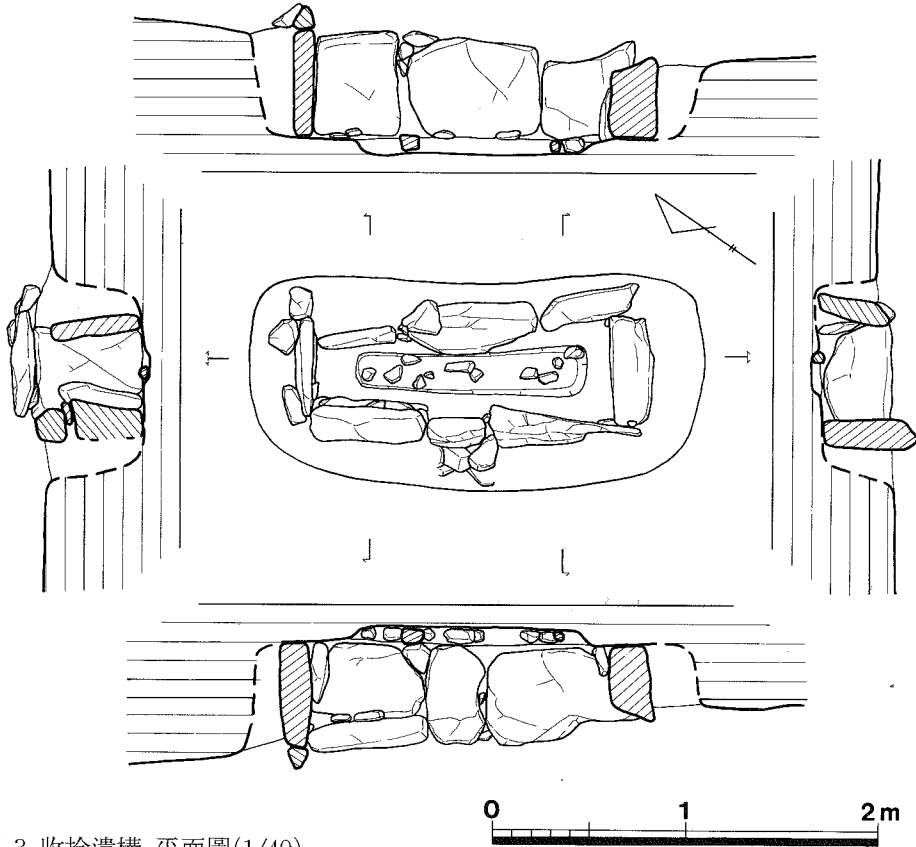
유적의 전체 면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土器片들은 이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도굴이 자행되어졌음을 의미하듯, 이끼가 낀 상태에서 버려져 있는 것에서부터 최근에 파손되어 버려진 것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널려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 高杯 및 壺類의 片들이었으며 파손의 상태가 심하여 실질적으로 채집하여 資料化 할 수 있는 유물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때문에 일부 기형을 알 수 있는 토기편만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채집하였으며, 이들 유물을 실측하고 파손이 심한 유물은 圖面 復元을 통하여 전체 기형을 추정하여 보았다.

(1) 收拾遺構(圖面3, 圖版8-9)

雲化里古墳群에 대한 地表調査過程에서 파괴된 상태로 방치된 수많은 遺構 中에서 내부가 다 드러난 遺構 1기를 수습조사하였다. 遺構는 小形の 石棺系 石槨墓로 아마도 대형분묘의 옆에 만들어진 소형의 倍墓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遺構는 황갈색의 풍화암반층을 파고 설치되어 있는데, 구조는 長壁에 3~4매의 板石을, 短壁에 1매의 板石을 댄 형태로 유구의 바닥은 판석의 최하단보다 깊다. 조사시에 유구의 내부에 蓋石으로 생각되는 석재가 채워져 있었으며 내부는 완전히 도굴되

어 아무런 유물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다. 主軸은 N34°W이며, 規格은 土壙의 길이



圖面 3 收拾遺構 平面圖(1/40)

240cm, 幅 108cm, 石槨의 內側 길이 156cm, 幅 40cm이다.

(2) 採集遺物

圖面4-1(圖版11-1)은 燒成이 보통인 陶質製 高杯인데, 胎土에는 石英, 雲母 및 長石이 혼입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灰白色을 띠며 회전물손질로 마무리하였다. 杯身部和 脚端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上下交叉하는 長方形의 透窓 4개씩을 臺脚에 배열하였다. 杯身部 外面을 沈線으로 2分하여 上부분에 斜格子文樣을 施文하였다. 規格은 높이 13.7cm, 口徑 11.8cm, 底徑 8.2cm이다.

圖面4-2(圖版11-2)은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 高杯이며 胎土에는 長石을 포함한 雲母

등이 혼입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灰青色을 띤다. 杯身部와 臺脚一部가 결실되었으나, 비교적 완형에 가깝다. 透窓은 上下交叉하는데, 상단의 것은 장방형이며 하단의 것은 방형으로 4개씩이다. 杯身部에는 5~6치구의 시문구를 사용하여 2단으로 엇갈리게 集線文을 施文하였다. 規格은 높이 11.1cm, 口徑 11.6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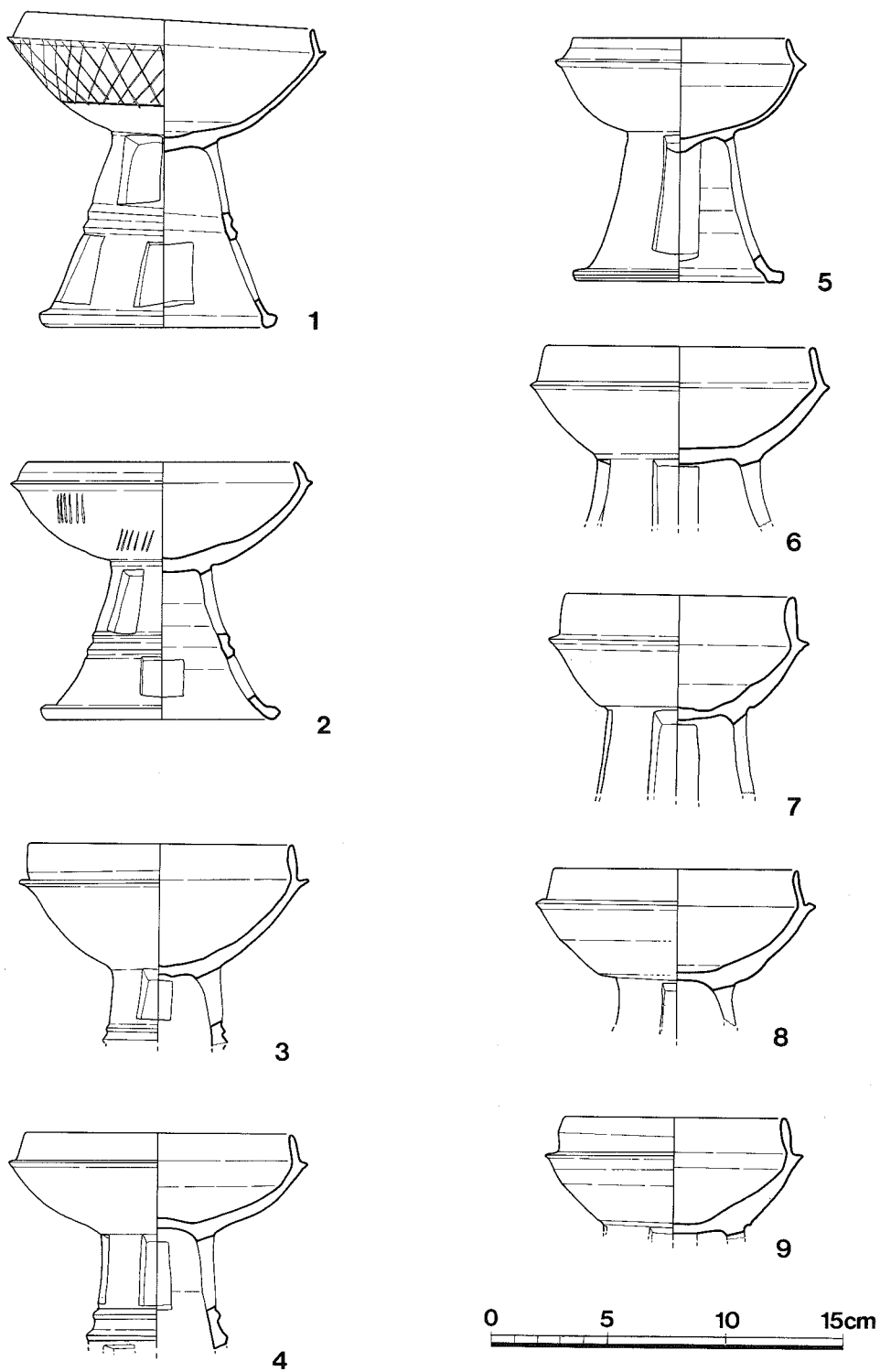
圖面4-3(圖版11-3)은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의 高杯이며 胎土에는 長石을 비롯한 雲母 및 石英이 일부 혼입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灰青色이며 속심은 紫色을 띤다. 臺脚의 아랫부분이 완전히 결실되었으며, 口徑에 비하여 杯身部가 깊은 편이다. 남아 있는 대각부분에는 5개의 방형에 가까운 透窓이 배치되어 있다. 規格은 殘存높이 8.5cm, 口徑 11.4cm이다.

圖面4-4(圖版11-4)은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의 高杯이며 胎土에는 長石과 石英이 일부 혼입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灰青色을 띠며 속심은 紫色이다.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는데 臺脚의 하단부는 결실되어 남아 있지 않다. 臺脚에는 5개의 透窓이 배치되어 있다. 規格은 殘存높이 9.5cm, 口徑 11.2cm이다.

圖面4-5(圖版11-5)은 燒成이 보통인 陶質製 1段透窓高杯이다. 胎土에는 長石과 石英이 일부 혼입되어 있으며, 외면은 灰青色을, 속심은 灰色을 띤다. 외면에는 회전목리흔이 남아 있으며 전체적으로 파손되었으나 도면상으로 복원이 가능하였다. 臺脚에는 장방형의 透窓 3개가 배치되어 있다. 規格은 높이 10.5cm, 口徑 9.2cm, 底徑 8.8cm이다.

圖面4-6(圖版11-6)은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의 高杯이며, 胎土에는 長石과 石英이 일부 혼입되어 있으며 외면은 灰青色을, 속심은 紫色이다. 臺脚部分이 결실되었으며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장방형의 透窓 4개가 배치되어 있다. 외면에 자연유가 일부 산화박리되어 있다. 規格은 殘存높이 7.9cm, 口徑 11.3cm이다.

圖面4-7(圖版11-7)은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의 高杯로,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雲母 등이 일부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灰青色, 속심은 紫色으로 외면에는 자연유가 산화박리되어 있다. 杯身部の 절반정도가 결실되었으며, 臺脚도 일부만 남아 있다. 정면기법



圖面 4 雲化里古墳群 採集遺物(1/3)

은 회전목리후 회전물손질하였다. 臺脚의 透窓은 4개인 것으로 보인다. 規格은 殘存높이 8.5cm, 口徑 9.7cm이다.

圖面4-8(圖版11-8)은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의 高杯이며,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그리고 미량의 雲母가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灰青色이며 속심은 紫色이다. 杯身部의 1/3정도와 臺脚部가 결실되었으며 臺脚의 透窓은 4개이다. 規格은 殘存높이 6.9cm, 口徑 10.3cm이다.

圖面4-9(圖版12-1)은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의 高杯이며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등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밝은 灰青色이며 속심은 紫色이다. 전체적으로 회전목리후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自然油가 酸化剝離되어 있으며 자연유의 부착범위로 볼 때 정치소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臺脚部分은 대부분 결실되었으나 透窓은 4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規格은 殘存높이 5.3cm, 口徑 9.4cm이다.

圖面5-1(圖版12-2)은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의 高杯이다.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그리고 雲母 등이 일부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밝은 灰青色이며 속심은 紫色이다. 口緣 일부와 臺脚部分은 결실되었다. 일부면에 산화 박리흔이 있다. 臺脚에는 4개의 透窓이 있었던 것으로 관찰된다. 規格은 殘存높이 5.9cm, 口徑 10.0cm이다.

圖面5-2(圖版12-3)는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의 高杯이며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그리고 雲母 등이 일부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밝은 灰青色이며 속심은 紫色이다. 臺脚部分은 완전히 결실되었으며 透窓은 4개가 있었던 것으로 관찰된다. 杯身內面에 자연유가 산화 박리되어 있다. 規格은 殘存높이 5.0cm, 口徑 9.6cm이다.

圖面5-3(圖版12-4)은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의 高杯이다.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등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밝은 灰青色이며 내면은 紫色이다. 臺脚은 결실되었으며 4개의 透窓痕迹이 남아 있다. 器面의 일부에 회전목리흔이 남아 있으며 자연유가 산화 박리되어 있다. 規格은 殘存높이 4.9cm, 口徑 9.4cm이다.

圖面5-4(圖版12-5)는 燒成이 보통인 陶質製의 高杯로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그리

고 雲母 등이 일부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灰青色이며 속심은 灰色이다. 臺脚部分은 결실되었으며 透窓은 4개가 있었다. 외면에 자연유가 산화 박리되어 있다. 規格은 殘存높이 4.7cm, 口徑 9.4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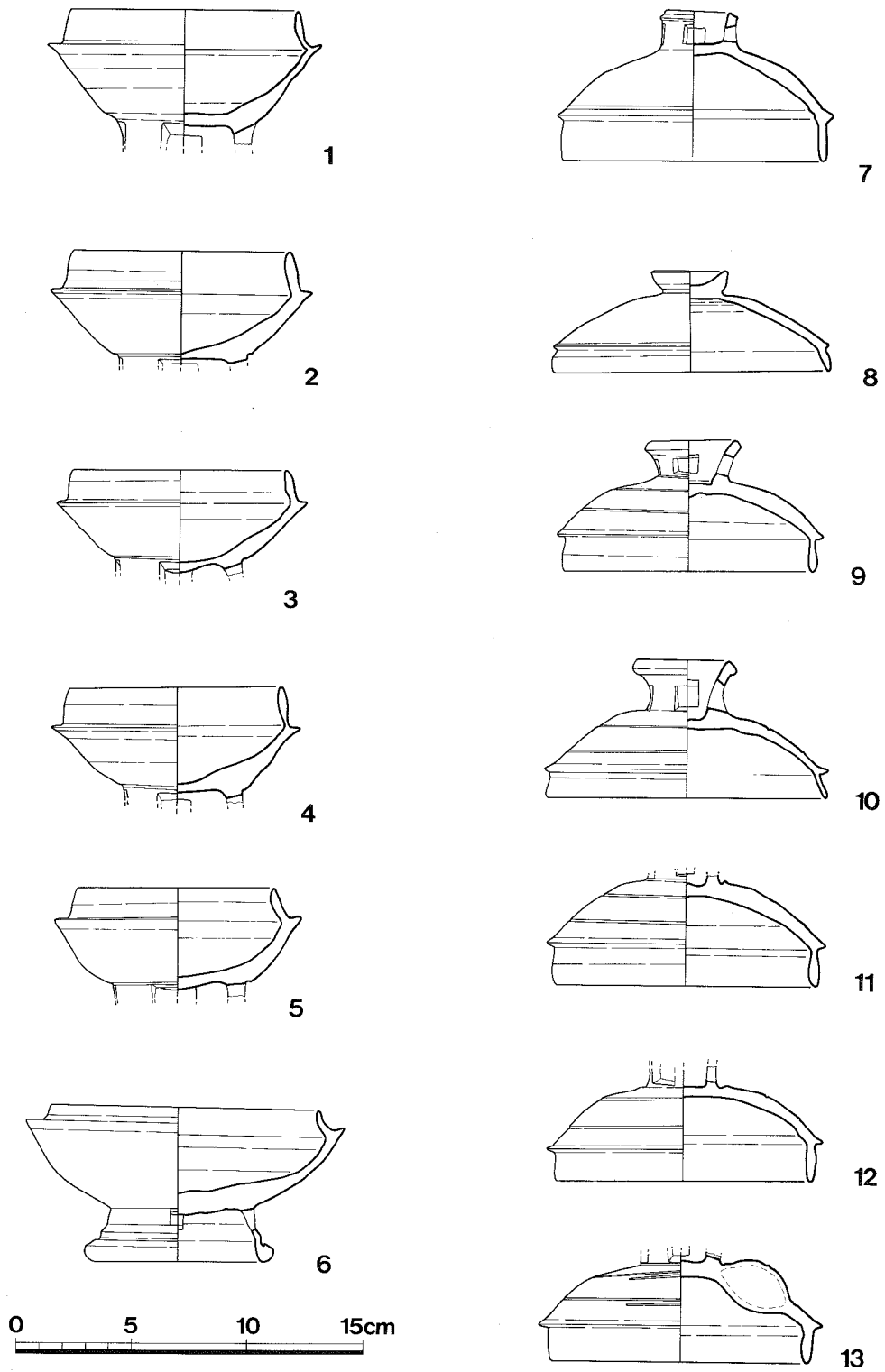
圖面5-5(圖版12-6)는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의 高杯이며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그리고 雲母 등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灰青色을 띠며 내면은 紫色을 띤다. 臺脚部分은 결실되었으며 透窓은 4개가 있다. 口緣端部分은 뽕족하게 처리되었으며 口緣部는 내측으로 內傾한다. 외면에는 暗綠色의 自然油가 산화 박리되어 있다. 規格은 殘存높이 4.8cm, 口徑 8.6cm이다.

圖面5-6(圖版12-7)은 燒成이 보통인 陶質製의 高杯로 胎土는 비교적 精選되었으나 石英과 長石 등이 소량 함유되어 있다. 器面의 色調는 짙은 暗青色으로 일반적인 新羅土器에서 보이는 灰青色보다는 탁한 느낌을 준다. 내심은 紫色을 띤다. 비교적 완형에 가까우나 臺脚 일부가 파손되었다. 器壁은 배신바닥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두텁다. 대각에는 小形透窓이 2개가 뚫어져 있으나 透窓의 위치는 비대칭이다. 이는 臺脚에 透窓을 區劃할 당시 3개를 의도하였으나 2개만 뚫은 것으로 보인다. 規格은 높이 6.9cm, 口徑 11.8cm, 底徑 7.3cm이다.

圖面5-7(圖版12-8)은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의 蓋이다.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등이 일부 혼입되어 있으며 외면의 색조는 暗灰色이며 속심은 灰色이다. 대각형 꼭지가 부착되어 있는데 방형의 透窓이 4개 뚫어져 있다. 自然油의 부착위치가 내면에 있는 점으로 보아 倒置燒成한 것을 알 수 있다. 規格은 높이 6.6cm, 底徑 11.4cm이다.

圖面5-8(圖版13-1)은 燒成이 보통인 陶質製의 蓋로서 胎土에는 長石과 雲母가 일부 혼입되어 있다. 외면의 색조는 灰青色이며 속심도 灰青色이다. 내면에는 꼭지부분의 부착시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나선상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胴體部에는 회전목리흔적이 잘 남아 있다.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規格은 높이 4.5cm, 底徑 12.1cm이다.

圖面5-9(圖版13-2)는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의 蓋로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雲母 등이 일부 혼입되어 있다. 외면의 색조는 전체적으로 灰青色이지만 自然油의 영향으로



圖面 5 雲化里古墳群 採集遺物(1/3)

일부면에서는 軟綠色을 띠기도 한다. 속심은 灰色이다. 臺脚形의 꼭지가 부착되어 있는데 透窓이 5개 뚫어져 있다. 胴體部 내면에 자연유가 부착된 점에서 倒置燒成하였음을 알 수 있다. 規格은 높이 5.8cm, 底徑은 10.9cm이다.

圖面5-10(圖版13-3)은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의 蓋이며,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雲母 등이 일부 혼입되어 있다. 외면의 색조는 暗灰青色을 띠며 속심은 灰色이다. 약 1/2정도가 결실되었다. 胴體部에 2줄의 沈線을 돌려 3등분으로 區劃하였으며 沈線의 사이에는 아무런 문양도 없다. 꼭지부분은 臺脚形으로 4개의 透窓이 뚫어져 있다. 自然油의 부착위치를 볼 때 倒置燒成하였다. 規格은 높이 6.1cm, 底徑 11.9cm이다.

圖面5-11(圖版13-4)은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의 蓋이며,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雲母 등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의 색조는 灰青色이며 속심은 紫色이다. 臺脚形의 꼭지부분은 결실되어 흔적만 남아 있으며, 透窓은 4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체부는 2줄의 沈線으로 3등분하였으며 文樣은 없다. 자연유의 부착위치로 보아 倒置燒成하였다. 規格은 殘存높이 4.9cm, 底徑 11.4cm이다.

圖面5-12(圖版13-5)는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의 蓋이며,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雲母 등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의 색조는 暗灰色이며 속심은 灰色이다. 臺脚形의 꼭지부분은 결실되었으며 透窓은 5개였던 것으로 보인다. 胴體部는 2줄의 沈線으로 3등분하였다. 規格은 殘存높이 5.0cm, 底徑 11.2cm이다.

圖面5-13(圖版13-6)은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의 蓋이며, 胎土에는 長石과 石英이 일부 혼입되어 있다. 외면의 색조는 灰青色이며 속심은 灰色이다. 동체부에 돌린 沈線이 나선형으로 돌려져 있으며 일부에 심하게 기포가 발생하였다. 꼭지는 臺脚形이며 透窓은 4개였던 것으로 보인다. 規格은 殘存높이 4.8cm, 底徑은 11.2cm이다.

圖面6-1(圖版13-7)은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의 蓋로서,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雲母 등이 일부 혼입되어 있다. 외면의 색조는 灰青色이며 속심은 軟紫色이다. 동체부에는 2줄의 沈線을 사용하여 3등분하고 그 안에 점열문을 上下 어긋나게 施文하였다. 꼭지는 臺脚形이며 4개의 長方形 透窓을 길이방향으로 배치하였다. 자연유의 부착위치로

보아 倒置燒成되었다. 規格은 높이 7.8cm, 底徑 13.1cm이다.

圖面6-2(圖版13-8)는 燒成이 보통인 陶質製의 蓋로,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雲母 등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灰白色이며 속심은 회색기운을 띤다. 동체부의 중간부분에 횡침선으로 2분하여 三角集線文을 上下로 施文하였다. 꼭지는 臺脚形이며 4개의 透窓을 뚫었다. 規格은 높이 6.5cm, 底徑 11.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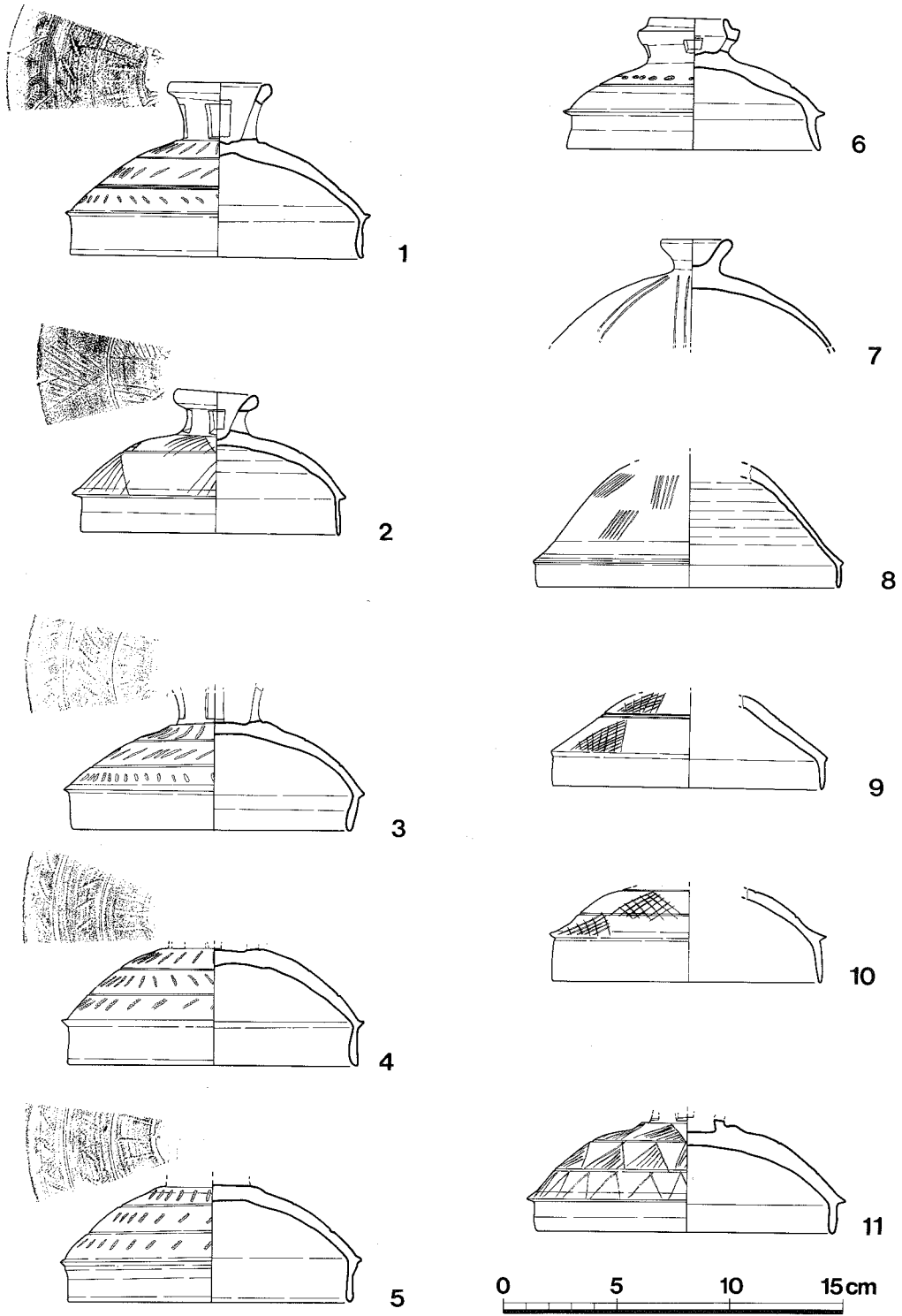
圖面6-3(圖版14-1)은 燒成이 보통인 陶質製의 蓋로,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雲母 등이 일부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灰白色이며 속심은 灰色이다. 동체부를 3등분하여 점열문을 상호 엇갈리게 施文하였다. 꼭지는 臺脚形으로 상단부가 결실되었으며 透窓은 4개가 뚫어져 있다. 規格은 殘存높이 6.5cm, 底徑 12.5cm이다.

圖面6-4(圖版14-2)는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의 蓋이며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雲母 등이 일부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灰白色이며 속심은 軟紫色이다. 동체부를 3단으로 구성하여 11치구의 도구로서 찍은 점열문을 시문하였다. 꼭지는 臺脚形으로 전체적으로 결실되었으나 透窓은 5개인 것으로 관찰된다. 規格은 殘存높이 5.4cm, 底徑은 13cm이다.

圖面6-5(圖版14-3)는 燒成이 보통인 陶質製의 蓋이며,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雲母 등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灰青色이며 속심은 灰色이다. 동체부는 沈線을 이용하여 3단으로 구성하고 점열문을 같은 방향으로 施文하였다. 杯身部の 절반 정도와 대각부분은 결실되었다. 規格은 殘存높이 5.2cm, 推定底徑 12.8cm이다.

圖面6-6(圖版14-4)은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의 蓋이며,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雲母 등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灰青色이며 속심은 灰色이다. 꼭지는 臺脚形이며 端部分이 內側으로 內傾한다. 透窓은 4개이다. 동체부는 침선으로 兩分되며 上段部에 단치구로 점상의 문양을 횡방향으로 시문하였다. 規格은 높이 5.9cm, 底徑 11.4cm이다.

圖面6-7(圖版14-5)은 燒成이 비교적 良好한 陶質製의 蓋이며, 胎土에는 長石 및 雲母가 일부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灰白色이며 속심은 灰色이다. 꼭지와 동체부만 남아 있다. 동체부에는 從方向으로 2조의 沈線을 施文하였다. 規格은 殘存높이 4.5cm이다.



圖面 6 雲化里古墳群 採集遺物(1/3)

圖面6-8(圖版14-6)은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의 蓋이며, 胎土에는 石英, 雲母가 일부 보이지만 매우 精選된 것으로 보인다. 色調는 전체적으로 灰青色이다. 꼭지부분은 결실되었고 身部の 일부만이 남아 있다. 身部에 6치구의 시문구로서 종방향으로 2단으로 엇갈리게 문양을 새겼다. 規格은 殘存높이 5.6cm, 推定底徑 13.5cm이다.

圖面6-9(圖版14-7)는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의 蓋이며,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雲母 등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灰白色이며 속심은 灰色이다. 동체부의 1/3정도가 결실되었으며 꼭지부분은 남아 있지 않아 형태를 알 수 없다. 동체부에 2조의 沈線文으로 2등분하였으며 상하단에 斜格子文을 三角形狀으로 施文하였다. 規格은 殘存높이 4.2cm, 底徑 12.1cm이다.

圖面6-10(圖版14-8)은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의 蓋이며, 胎土에는 석영 및 장석, 운모 등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회청색이며 속심은 회색이다. 동체부의 대부분과 꼭지부분이 결실되었다. 동체부에는 횡침선으로 분할하여 상하단에 사격자문을 삼각형상을 시문하였다. 규격은 잔존높이 5.5cm, 추정저경 12.8cm이다.

圖面6-11(圖版15-1)은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의 蓋로, 胎土에 石英 및 長石, 雲母 등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灰青色이며 속심은 灰色이다. 꼭지부분은 결실되었으나 남아 있는 흔적으로 보아 臺脚形의 꼭지로 보이며 透窓은 5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체부는 沈線을 이용하여 3등분하였고 하단에는 '스' 자상의 문양을 시문하였고 위로 2단에는 斜格子文을 三角形狀으로 시문하였다. 規格은 殘存높이 5.3cm, 底徑 13.2cm이다.

圖面7-1(圖版15-2)은 燒成이 보통인 軟質製의 蓋이며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雲母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黃褐色을 띠며 表面의 剝離가 심한 편이다. 軟質甕의 뚜껑으로 생각되는데 꼭지부분은 일부가 결실되었다. 規格은 높이 6.3cm, 底徑은 11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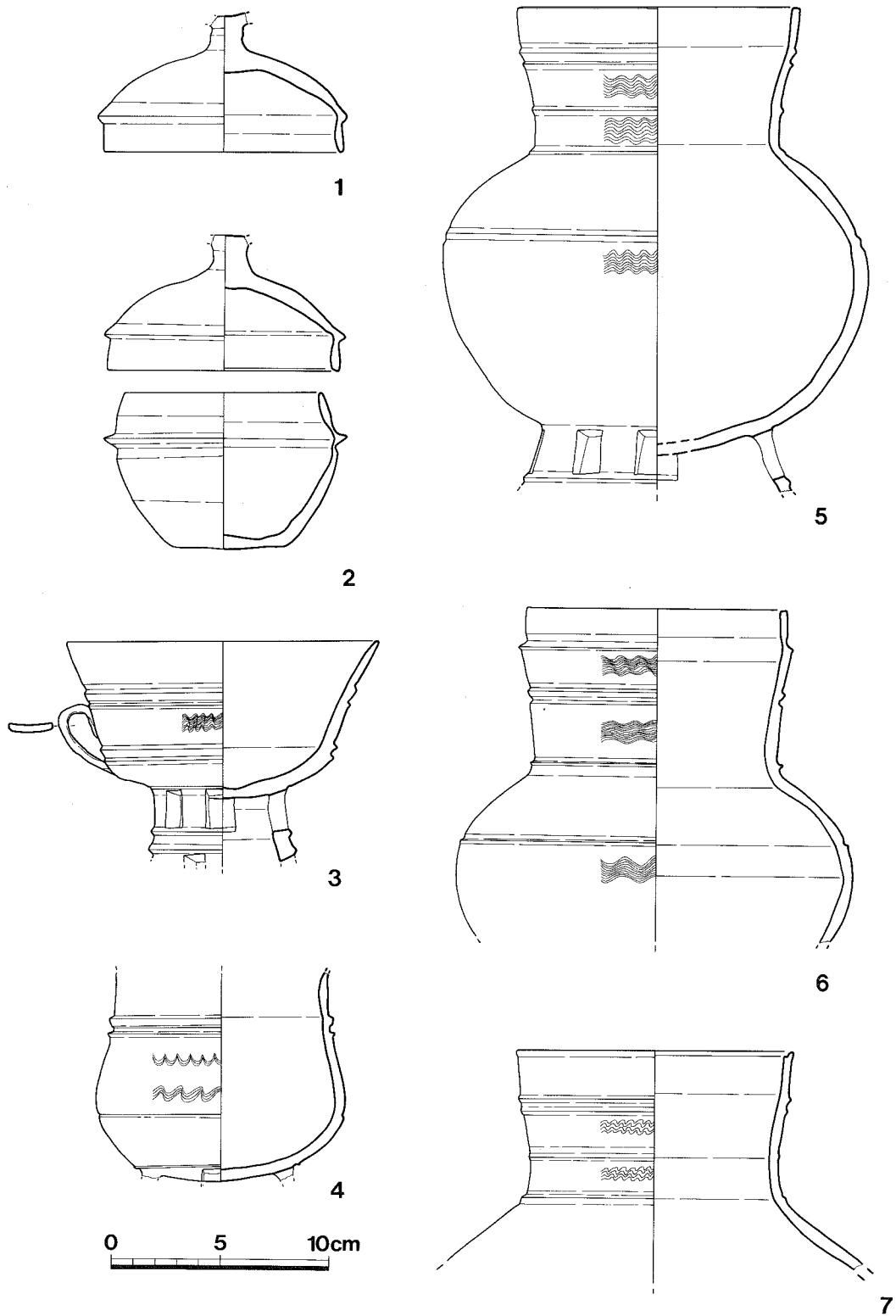
圖面7-2(圖版15-3, 4, 5)는 燒成이 보통인 軟質製의 蓋와 甕이다.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雲母 등이 혼입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黃褐色을 띠며 表面의 剝離가 심한 편이다. 蓋는 圖面4-1과 同形이며 甕은 뚜껑받이 턱이 돌출한 有蓋式의 軟質甕이다. 동체부의 하단부에 회전각기흔적이 남아 있다. 蓋의 規格은 높이 6.3cm, 底徑 10.8cm이며, 甕의 높이는 7.4cm, 口徑 9.2cm, 底徑 5.3cm이다.

圖面7-3(圖版15-6)은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의 把手附有臺碗이다.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雲母 등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灰青色이며 속심은 灰色이다. 杯身部는 2조의 돌대로 돌려서 3등분하고 중간부분에 6치구의 波狀文을 施文하였다. 把手部分은 帶狀으로 폭이 약 2cm로 넓은 편이다. 臺脚은 2단으로 1단만 남고 나머지는 결실되었다. 대각의 透窓은 상하 엇갈리게 6개가 뚫어져 있다. 杯身の 내면에는 自然油가 산화박리되어 있는데, 이로 보아 정치소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規格은 殘存높이 10.3cm, 口徑은 14.5cm이다.

圖面7-4(圖版15-7)는 燒成 良好한 陶質製의 有臺碗이다.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雲母 등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暗灰青色이며 속심은 紫色이다. 口緣端部分을 포함한 身部の 상당부분과 臺脚이 결실되었다. 身部에는 돌대를 이용하여 3단으로 구성하여 중간부분에 波狀文을 施文하고 있는데 波狀文은 윗부분에 3치구를 사용하였고, 아래 부분은 4치구의 도구를 사용하여 2단으로 시문하였다. 臺脚은 결실되었지만 透窓은 5개가 있었던 것으로 관찰되었다. 規格은 殘存높이 9.9cm이다.

圖面7-5(圖版15-8)는 燒成 良好한 陶質製의 臺附長頸壺이다.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雲母 등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의 색조는 明灰色이며 속심은 灰色이다. 口頸部는 돌대를 사용하여 3단으로 구획하였는데 1段과 2段은 2조의 돌대를 이용하여 구분하고 2段과 3段은 1조의 돌대를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본 유물은 파손이 극심하여 전체적으로 圖面 復元된 것이다. 중단부분과 하단부분에는 波狀文을 施文하였다. 동체부의 肩部에는 1조의 돌대를 돌렸으며 돌대의 아랫부분에 波狀文을 施文하였다. 臺脚은 파손되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2단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透窓은 6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동체의 하위부분에 회전목리흔이 남아 있다. 規格은 殘存높이 22.5cm, 口徑 12.3cm, 胴最大徑 19.4cm이다.



圖面 7 雲化里古墳群 採集遺物(1/3)

圖面7-6(圖版16-1)은 燒成 良好한 陶質製의 臺附長頸壺이다.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雲母 등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暗灰色이며 속심은 紫色이다. 口緣部の 형태는 마치 뚜껑받이 턱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有蓋式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口頸部에는 2조의 돌대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波狀文을 施文하였다. 동체부의 肩部에도 돌대를 들렸으며 바로 아래부분에 波狀文을 施文하였다. 동체부의 하단부분은 완전히 결실되었다. 規格은 殘存높이 15.7cm, 口徑 11.4cm, 胴最大徑 18.3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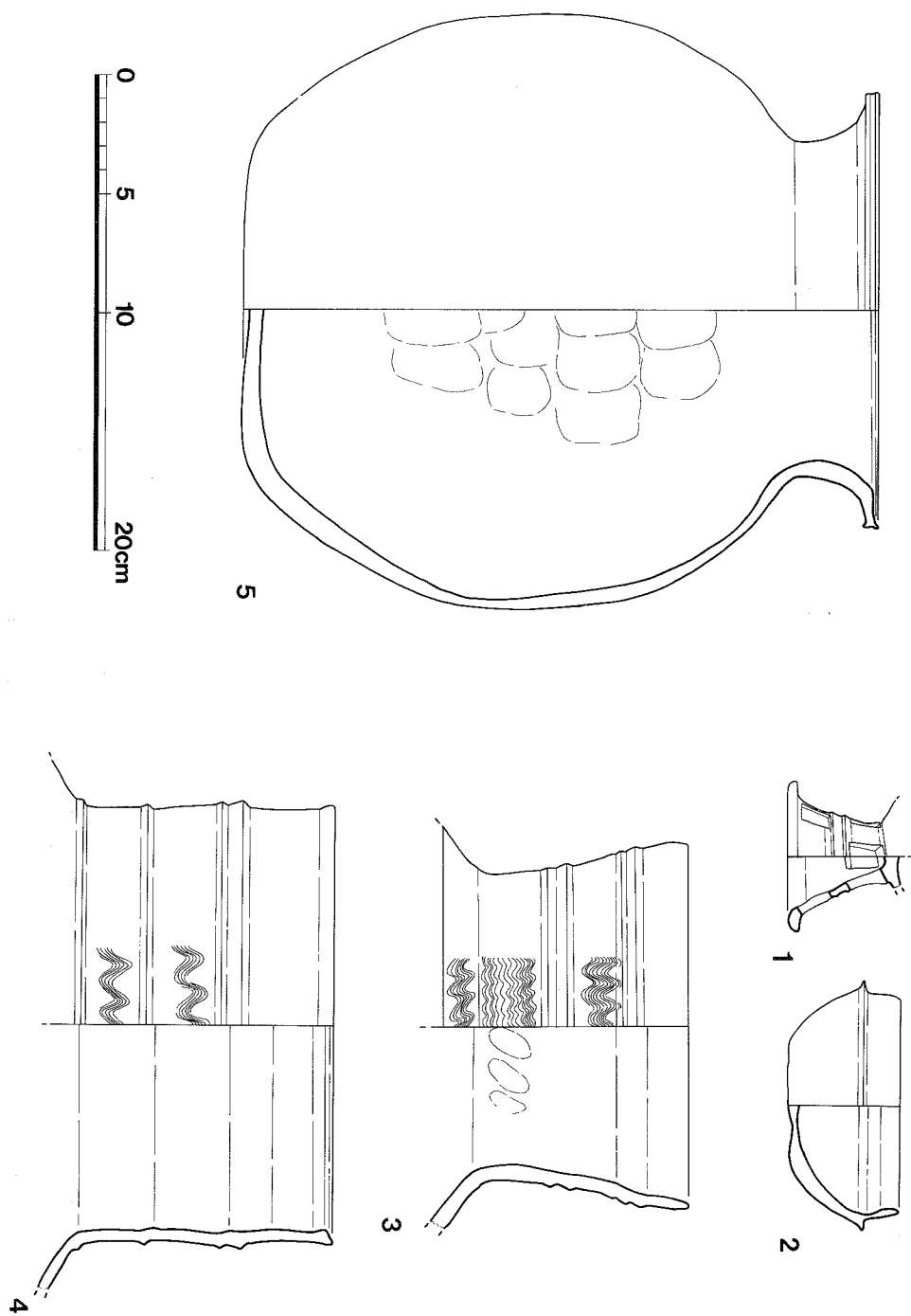
圖面7-7(圖版16-2)은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 臺附長頸壺의 口頸部이다. 胎土에는 石英, 長石, 雲母 등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暗灰色이며 속심은 紫色이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돌대를 이용하여 3단으로 구성하고 2, 3단에는 波狀文을 施文하였다. 표면에는 자연유가 산화박리되어 있다. 規格은 殘存높이 9.5cm, 推定口徑 13cm이다.

圖面8-1(圖版16-3)은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 小形高杯의 臺脚部分이다.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雲母 등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灰青色이며 속심은 灰白色이다. 2단의 상하엇갈림 透窓이 상하 4개씩 배치되어 있다. 規格은 殘存높이 4.6cm, 底徑 5.4cm이다.

圖面8-2(圖版16-4)은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의 杯이다.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雲母 등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暗灰青色이며 속심은 灰色系統이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나 身部下段은 깎기로 마무리하였다. 뚜껑받이 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蓋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規格은 높이 4.6cm, 口徑 9cm이다.

圖面8-3(圖版16-5)은 燒成이 良好한 陶質製 長頸壺의 頸部이다. 胎土에는 石英, 長石, 雲母 등이 혼입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灰青色을 띤다. 2단의 돌대로서 頸部를 3단으로 區劃하고 2단과 3단에 波狀文을 施文하였다. 그리고 肩部에도 波狀文을 施文하였다. 規格은 殘存높이 10.6cm, 推定口徑 15.2cm이다.

圖面8-4(圖版16-6)은 燒成이 良好한 口頸部の 편으로 아마도 大形の 臺附長頸壺인 것으로 판단된다. 胎土에는 長石, 石英 등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暗灰青色이며 내



圖面 8 雲化里古墳群 採集遺物(1/3)

면은 灰色이다. 돌대를 이용하여 3등분하고 중, 하단에 5치구의 도구로서 波狀文을 施文하였다. 口緣端部分은 凹面으로 처리되었다. 일부 남아 있는 肩部에는 자연유가 얇게 부착되어 있으며 산화 박리되어 있다. 規格은 殘存높이 12.0cm, 推定口徑 18.5cm이다.

圖面8-5(圖版16-7)는 燒成이 비교적 良好한 軟質製의 短頸壺이다. 胎土에는 長石, 石英, 雲母 등이 혼입되어 있다. 外面은 黃褐色이며 속심은 赤黃色이다. 器面에는 평행타 날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며 내면에 박자후 회전물손질하고 흔적이 남아 있다. 口緣端部分은 凹面으로 처리하였다. 바닥부분은 平底에 가깝다. 規格은 높이 26.2cm, 口徑, 18.4cm, 底徑 11.0cm, 胴最大徑 25.1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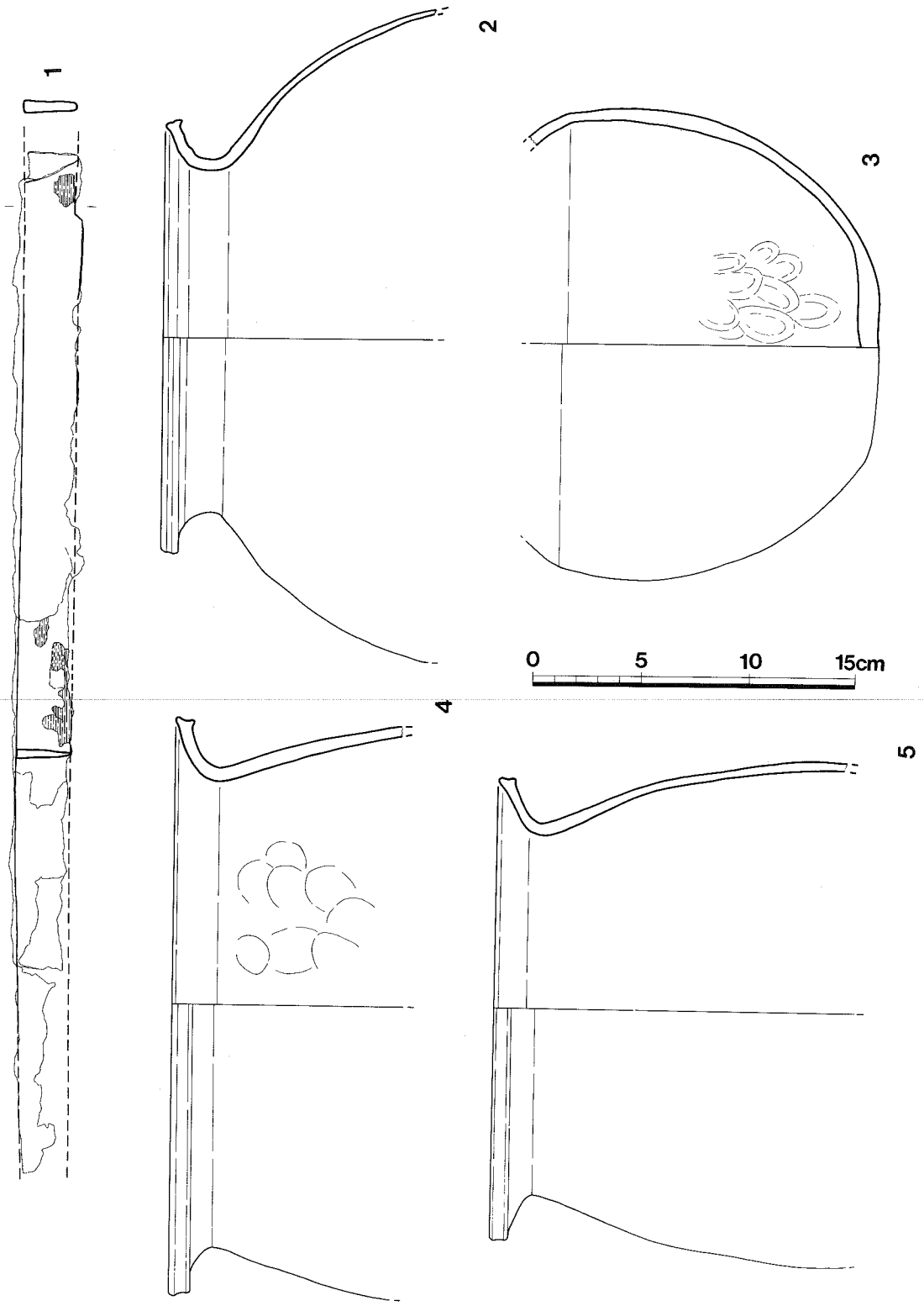
圖面9-1(圖版17-6)은 大刀의 편이다. 선단부와 손잡이 부분이 결실된 身部인데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다. 殘存길이 47.5cm, 幅 2.8cm이다.

圖面9-2(圖版17-1)는 燒成 상태가 불량한 陶質製의 短頸壺이다. 胎土에는 石英 및 雲母 등이 일부 혼입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灰白色을 띤다. 口緣과 동체부 일부만 남아 있는데 規格은 殘存높이 12.7cm, 推定口徑 19.8cm이다.

圖面9-3(圖版17-2)은 燒成이 良好한 短頸壺의 동체부이다.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등이 혼입되어 있다. 外面은 짙은 灰青色이며, 속심은 紫色이다. 器面에는 거친 회전물손질흔적이 남아 있으며 내면에는 成形時에 남은 指頭痕迹이 있다. 規格은 殘存높이 16.0cm, 胴最大徑 22.7cm이다.

圖面9-4(圖版17-3)는 燒成이 극히 良好한 陶質製의 甕이다. 胎土에는 石英을 포함한 長石 등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外面은 黃褐色이며 속심은 黃褐色과 灰白色을 띤다. 내면에 拍子痕이 일부 남아 있으며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마무리하였다. 規格은 殘存높이 10.3cm, 推定口徑 27.3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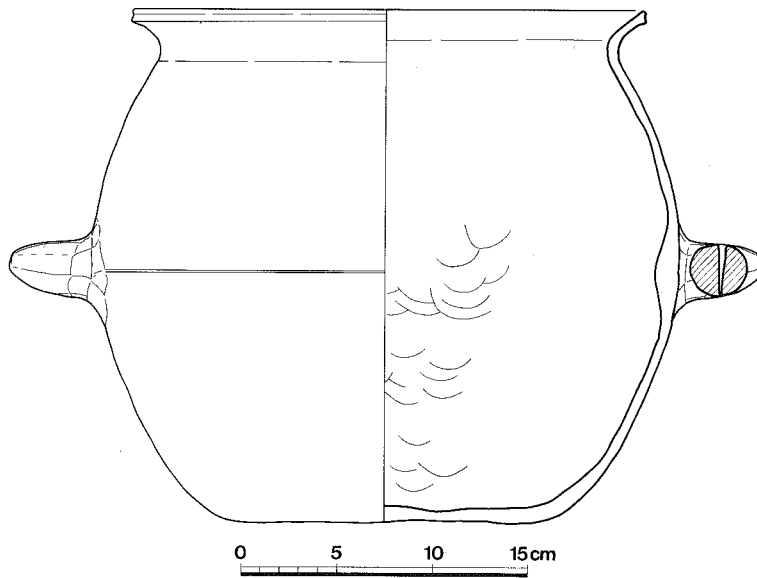
圖面9-5(圖版17-4)는 燒成이 대단히 良好한 甕이다. 胎土에는 石英 및 長石 등이 많은 양 혼입되어 있다. 外面은 黃褐色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黃褐色의 겉면에 다시 綠



圖面 9 雲化里古墳群 採集遺物(1/3)

色系列의 색이 덧입혀져 있다. 이는 燒成時의 열의 변화 내지 알 수 없는 化學的 作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내면은 黃褐色을 띤다. 規格은 殘存높이 16.7cm, 推定口徑 21.5cm이다.

圖面10-1(圖版17-5)은 燒成이 비교적 良好한 陶質製의 鉢形土器이다. 胎土에는 長石과 雲母 및 石英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灰青色이며 속심도 같은 색조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형의 경우는 赤褐色의 軟質製가 대부분인데, 본 유물은 灰青色을 띠고 있다. 동체에는 전체적으로 타날이 되어 있으며 동체부의 양쪽에 牛角形의 把手가 부착되어 있다. 바닥은 平底이며 口緣部는 외측으로 반전된 형태이다. 規格은 높이 27.5cm, 推定口徑 26.4cm, 推定底徑 15.5cm이다.



圖面10 雲化里古墳群 採集遺物(1/3)

(3) 周邊 遺蹟

1) 蔚州 良東遺蹟(圖面11, 圖版18)

良東遺蹟은 1980년 釜山大學校 博物館에 의하여 조사되었다. 이 遺蹟은 回夜江의 隣近에 위치하고 있는데, 淨水場 敷地로 편입되어 工事が 進行되던 중에 調査가 이루어

어졌기 때문에 遺蹟의 상당부분이 파괴되어 버렸다. 특히 積石木槨墓가 集中的으로 분포한 구릉의 中心部는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積石木槨墓의 대부분이 조사되지 못한 채로 소멸되었다.

調査된 遺蹟의 性格은 靑銅器時代의 住居址와 三國時代의 墳墓遺蹟이었다.

특히 三國時代의 墳墓들은 4世紀代에서 7世紀 前葉에 이르는 넓은 時期幅을 가지는데, 蔚山地域 墓制의 變化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圖面12). 그러나 발굴된 遺構의 일부만이 보고되어 전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조사된 4世紀代의 木槨墓는 蔚山地域의 特徵的인 形態인 細長한 木槨墓로 蔚山地域과 慶州地域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예가 많다. 때문에 '慶州型 木槨墓'로 불리워지고 있다. 이러한 細長方形의 경주형 목곽묘는 蔚山地域과 慶州地域을 중심을 확인되고 있는 특징적인 墓制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4세기대 이래로 蔚山地域이 慶州地域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다.

積石木槨墓도 慶州型 木槨墓와 마찬가지로 慶州地域에 국한되어 확인되는 신라 지배계층의 전유 묘제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울산지역의 小規模 古墳群으로 판단되는 良東遺蹟에서 積石木槨墓가 확인된다는 점은 木槨墓段階이래 慶州地域과 蔚山地域이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出土遺物을 살펴보면 良東遺蹟은 墓制에서 뿐만 아니라 日常的인 用具들도 慶州地域의 出土遺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出土遺物은 圖面13~16에서와 같이 5, 6世紀代의 가장 일반적인 副葬遺物인 高杯類와 臺附長頸壺 등이 대부분이다.

良東遺蹟의 조사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世紀代의 木槨墓는 以前의 三韓時代의 長方形 木槨墓에서 길이가 길어진 細長方形이었음이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慶州型 木槨墓'로 불리고 있다. 두 번째로 積石木槨墓가 蔚山地域에서 확인되었다는 것으로 新羅의 지배집단 묘제로 잘 알려진 積石木槨墓가 蔚山地域에서 확인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積石木槨墓의 분포범위는 慶州 隣近地域을 제외하고 경산 지역을 포함한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蔚山 良東遺蹟에서 적석목곽묘가 확인된다는 점은 蔚山地域이 新羅化된 후에 慶州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울산지역에서 확인되는 積石木槨墓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6世紀末로 편년되는 橫口式 石室이 확인되었는데 이점은 橫口式 石室의 등장과 함께 6세기 중엽부터 積石木槨

墓가 석퇴해 나가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중요한 성과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이 지역일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良東遺蹟이 위치한 과수원의 일부 지역에서 아무런 사전조사 없이 施設物을 가설하고자하는 시도가 있었던 흔적이 확인되었고, 遺構의 石材로 판단되는 돌들이 노출되어 있어 이 지역에 대한 行政的 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2) 蔚州 華山里古墳群(圖面17, 圖版19)

華山里古墳群은 1982년 釜山大學校 博物館에 의해 조사가 실시된 三國時代末의 墳墓遺蹟이다. 釜山大學校 博物館에서 조사한 華山里古墳群은 전체유적의 극히 일부만이 조사되었고 조사전에 이미 공단조성이 진행되어 대부분이 소멸되어 버렸다. 때문에 遺蹟의 중심부가 아닌 유적의 주변부에 있었던 고분만이 겨우 조사된 것이다.

모두 36기의 분묘들이 조사되었으나 대부분의 遺構가 파괴된 파괴고분군이였다. 확인된 묘제의 형태는 豎穴式 石槨墓와 橫口式 石室, 橫穴式 石室, 그리고 火葬墓 등이다. 유구는 대부분 심하게 훼손되어 겨우 최하단석 정도만이 잔존하고 있었으며 주변에 많은 양의 토기편들이 채집되어 보고되었다.

出土遺物들로 보아 대체로 6~7世紀代의 것들로서 統一樣式土器들이다. 그런데 주변에서 채집된 遺物中에는 5世紀代의 유물들도 상당수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파괴된 지역의 유적들과 같이 5~7세기대의 고분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遺物에는 印花文이 施文된 土器類와 附加口緣長頸壺등이 확인되고 있어 조사된 지역의 중심연대는 6世紀代에서 7世紀代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隣近한 良東遺蹟 등에서와 같이 이 일대에는 이러한 중소형급의 墓域들이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안을 끼고 있는 이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소개되는 華山里山城도 古墳群과 인접하고 있어, 이 일대는 海洋을 생활근거로 한 집단이 위치하였고 이에 따른 防護對策도 마련되어 있었음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古墳群이 위치했던 위치는 현재 공단으로 조성되어 유적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으나 이 일대에는 古墳群, 山城뿐만 아니라 넓은 범위에 걸쳐서 생활유적이 위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어 아쉬움을 남긴다.

3) 蔚州 華山里山城(圖面 21, 圖版 20)

蔚州 華山里山城은 88, 89년 2차년도에 걸쳐 東亞大學校 博物館에 의하여 발굴조사되었다. 山城은 소규모의 包谷城으로 계곡을 포함하는 소규모의 石城이다. 蔚山地域에는 많은 수의 성들이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壬辰倭亂 당시에 축성된 것으로 倭城들이 많다. 華山里山城이 최초의 축성된 시기는 대략 統一新羅時代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統一新羅時代에 축성되어 高麗時代의 일정시기까지 사용되었으나 朝鮮時代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山城은 전체둘레가 450m, 城壁의 幅은 520cm, 現存하는 城의 높이는 250cm이다. 성 내에는 연못이 한군데에서 확인되었을 뿐 특별한 시설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문지도 南門址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대단히 소규모의 성이며 日常的으로 사람이 거주한 것이 아니라 필요시 대피하기 위한 軍事的 施設로 보인다. 특히 蔚山地域은 倭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新羅의 關門城 築造등과 관련해 볼 때, 관문성의 축조가 신라의 국가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면 본 산성은 이러한 대규모 축성이 아니라 지역집단내의 방위를 목적으로 축성된 지역단위의 방위시설로 생각된다. 그리고 統一新羅末에서 高麗初에 걸쳐 지방에서 발흥하는 地方豪族의 성장과 관련해 본다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高麗王朝의 建國에 참여한 朴閔雄의 기반이 기장을 포함하는 이 일대였다는 점에서 이와 연관되는 유적일 가능성도 지극히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이 일대에 분포하는 유적들은 이 지역이 신라시대 이후에 중요한 교역내지 물산이 집중하는 경제적 중심지였음을 의미하는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蔚州 三光里遺蹟(圖版 23)

溫陽面 三光里 179(田), 16(林), 12-7(林) 능선 일대에 해당한다. 남창~서창 지방도로의 윗귀지마을에 연해 있는 3개의 구릉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이다. 특히 三光里遺蹟은 61년 겨울 國立博物館에서 현재 대추나무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는 구릉 일대를 발굴했는데 총 150여 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 유적의 대체적인 특징은 발굴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정확한 것은 알 수 없고 대체적인 성격만 일부 전하고 있는데, 遺構는 小形石槨이 주류를 이루며 蓋石과 封土는 없었다고 한다. 시기는 대체로 4~5세기에 걸치는 三國時代 前期이다.

遺蹟이 입지한 능선 중 林野로 되어 있는 완만한 丘陵에는 盜掘로 인한 파괴가 극

심하게 진행되었는데, 주위에는 石槨의 側壁石과 土器片이 흩어져 있다. 이 지역은 國立博物館에서 발굴한 지역과 연결되는 구릉인데 중간에 도로가 생기면서 독립된 구릉처럼 된 것이며 주 능선의 斜面部에 해당한다. 蓋石은 보이지 않고 또 대형분도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마을의 뒷쪽 구릉에서는 遺構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량의 토기편이 수습되는 것으로 미루어 삼국시대의 生活遺蹟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임을 추정 할 수 있다.

채집유물은 기형을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모두 편이다. 대부분 灰青色 陶質로 회전물손질 정면한 三國時代의 토기편이고 기벽 内外面에 자연유가 발려진 토기편도 있다.

이 일대에서 확인된 木槨墓에서 臺附直口壺가 출토된 점으로 보아 4세기대 이른 시기의 목곽묘가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보다 이른 시기, 즉 三韓時代의 遺蹟들이 입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지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이 일대에서 삼한시대의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三光里遺蹟은 三韓時代의 遺蹟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外光里 下方古墳群(圖版 22)

溫陽面 外光里 山204, 207林 일대에 해당한다. 大雲山의 북서쪽 구릉으로 남창-서창 지방도로변의 하방마을 남쪽 丘陵性山地의 안쪽 끝자락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94년 昌原大學校 博物館의 지표조사에서 그 존재가 알려졌으며 70년대에 대규모 盜掘이 있었음을 마을주민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현재는 林野로 되어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遺構가 盜掘에 의해 심하게 파손된 상태이다. 낮은 구릉에 위치한 일반적인 고분군의 입지와는 다르게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산지에 입지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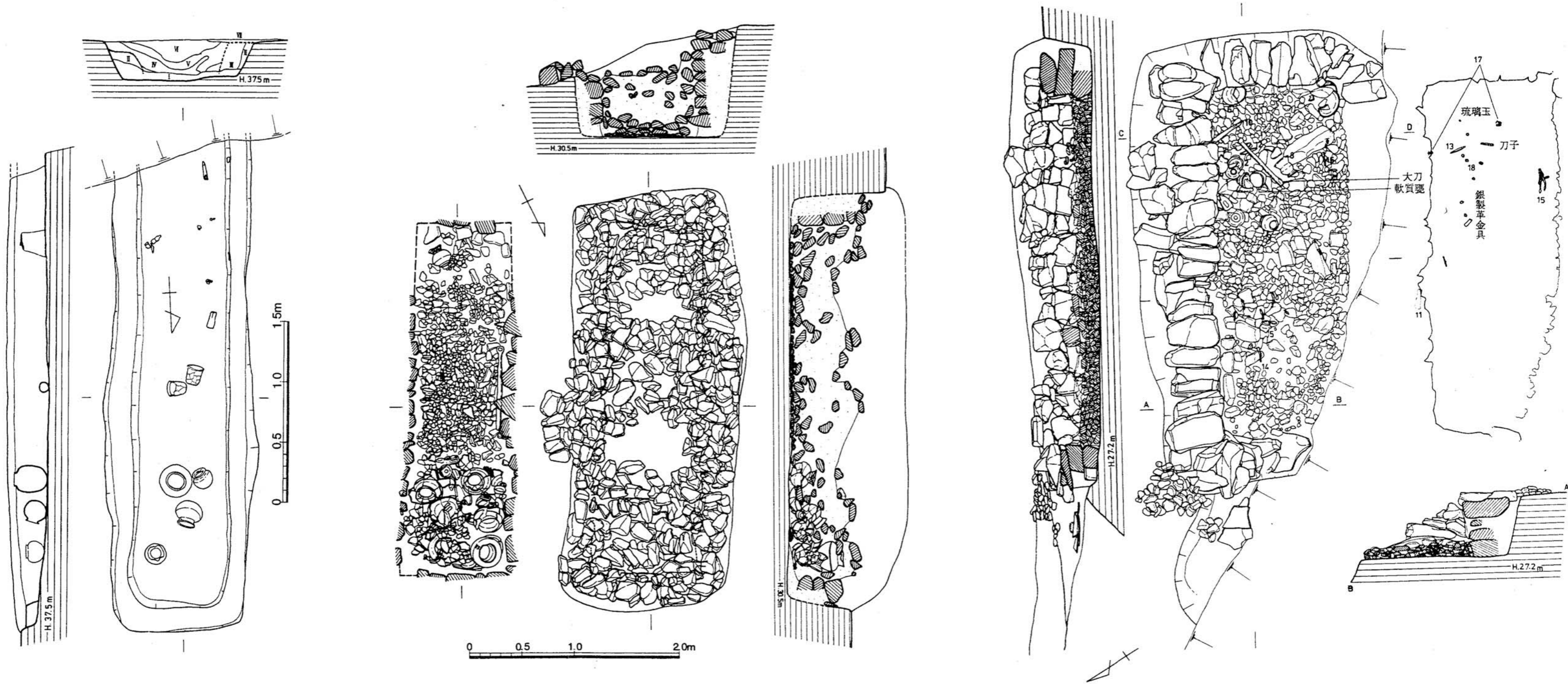
盜掘에 의해 드러난 유구의 윤곽으로 그 특징을 보면, 長軸方向은 等高線方向과 平行하며 대부분이 中小形이고 蓋石이 있는 대형분은 1기만 확인되었다.

採集된 遺物은 모두 陶質土器片으로 口緣, 高杯片을 제외하고는 모두 器形은 알 수 없는 것들이다. 片들은 대부분 灰青色 陶質이며 이 중 波狀文이 施文된 편에는 내면에 自然油가 발려져 있고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어 있다. 그외에도 짙은 灰青色의 高杯편 1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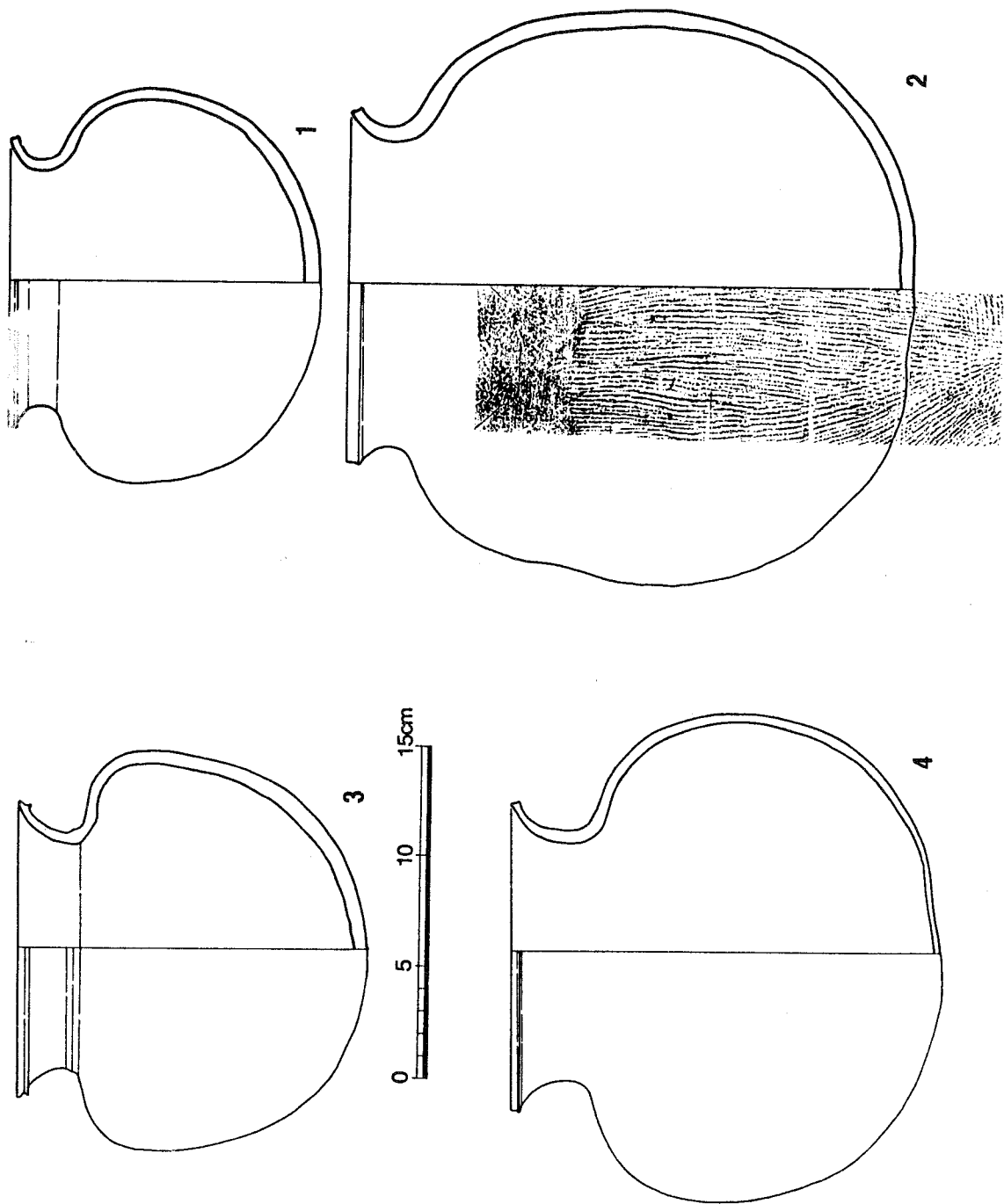


圖面11 良東遺蹟地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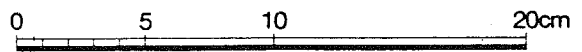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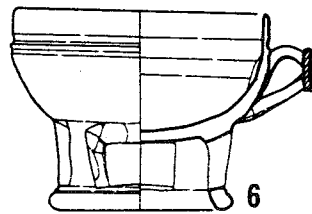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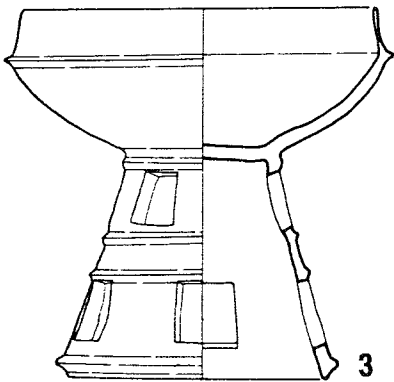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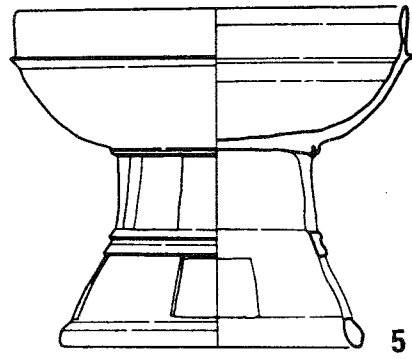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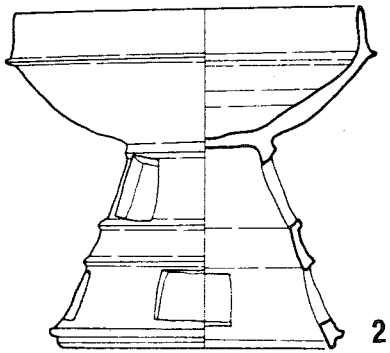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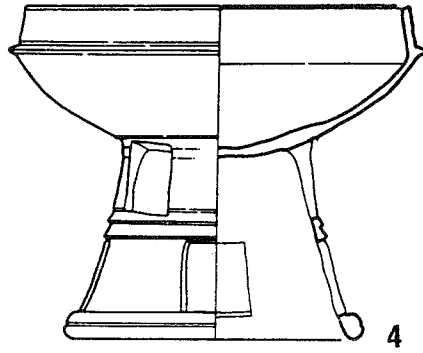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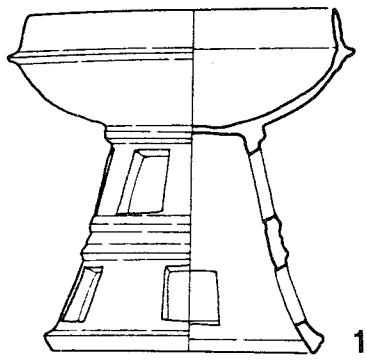
<1: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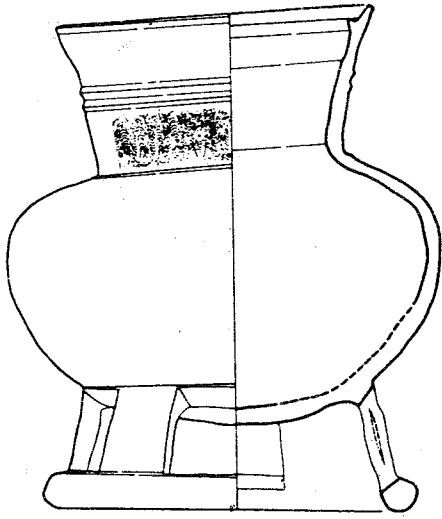
圖面12 良東遺蹟遺構變遷圖(左：24號, 中：14號, 右：32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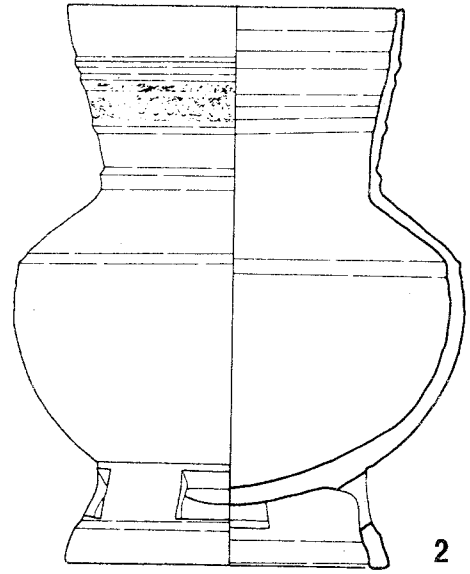
圖面13 良東遺蹟 出土遺物(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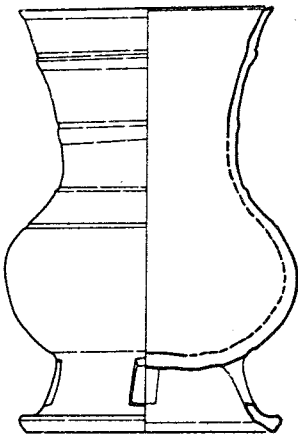
圖面14 良東遺蹟 出土遺物(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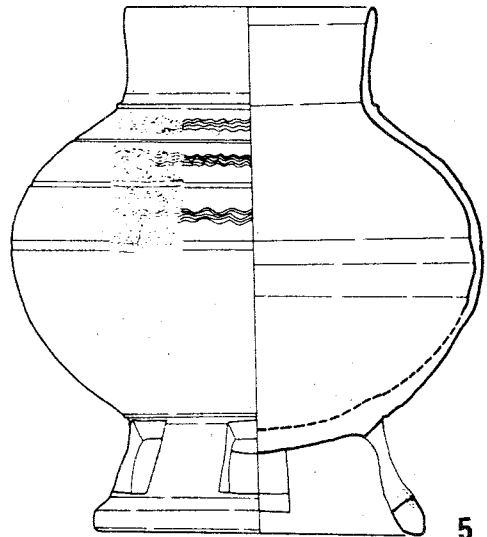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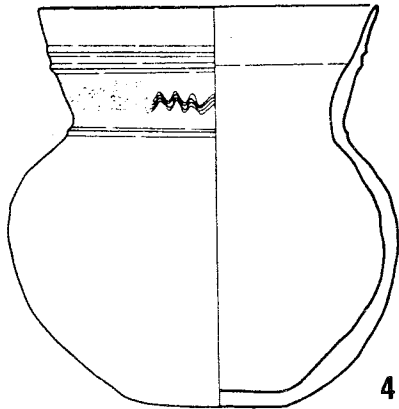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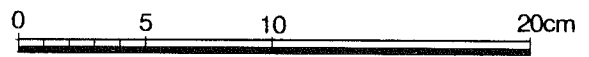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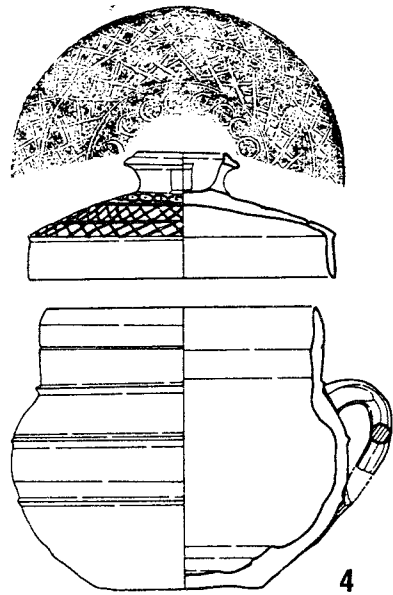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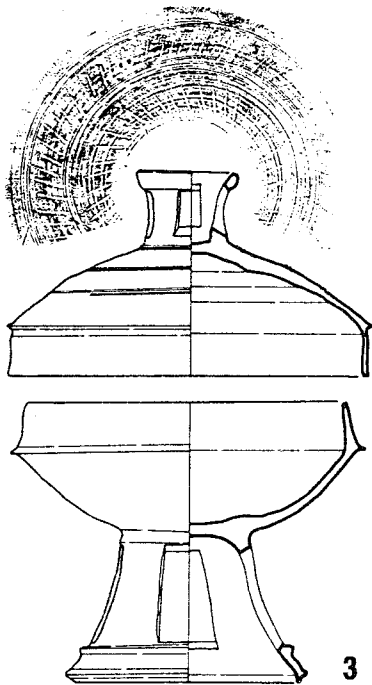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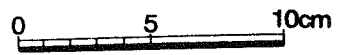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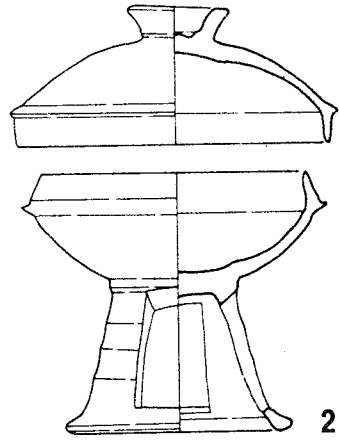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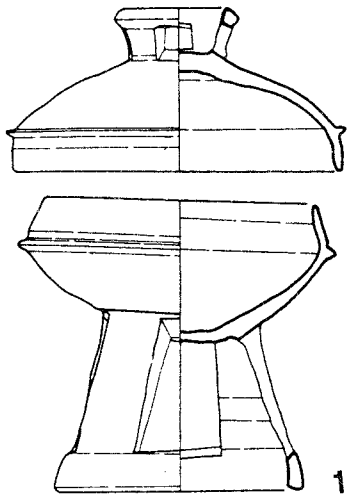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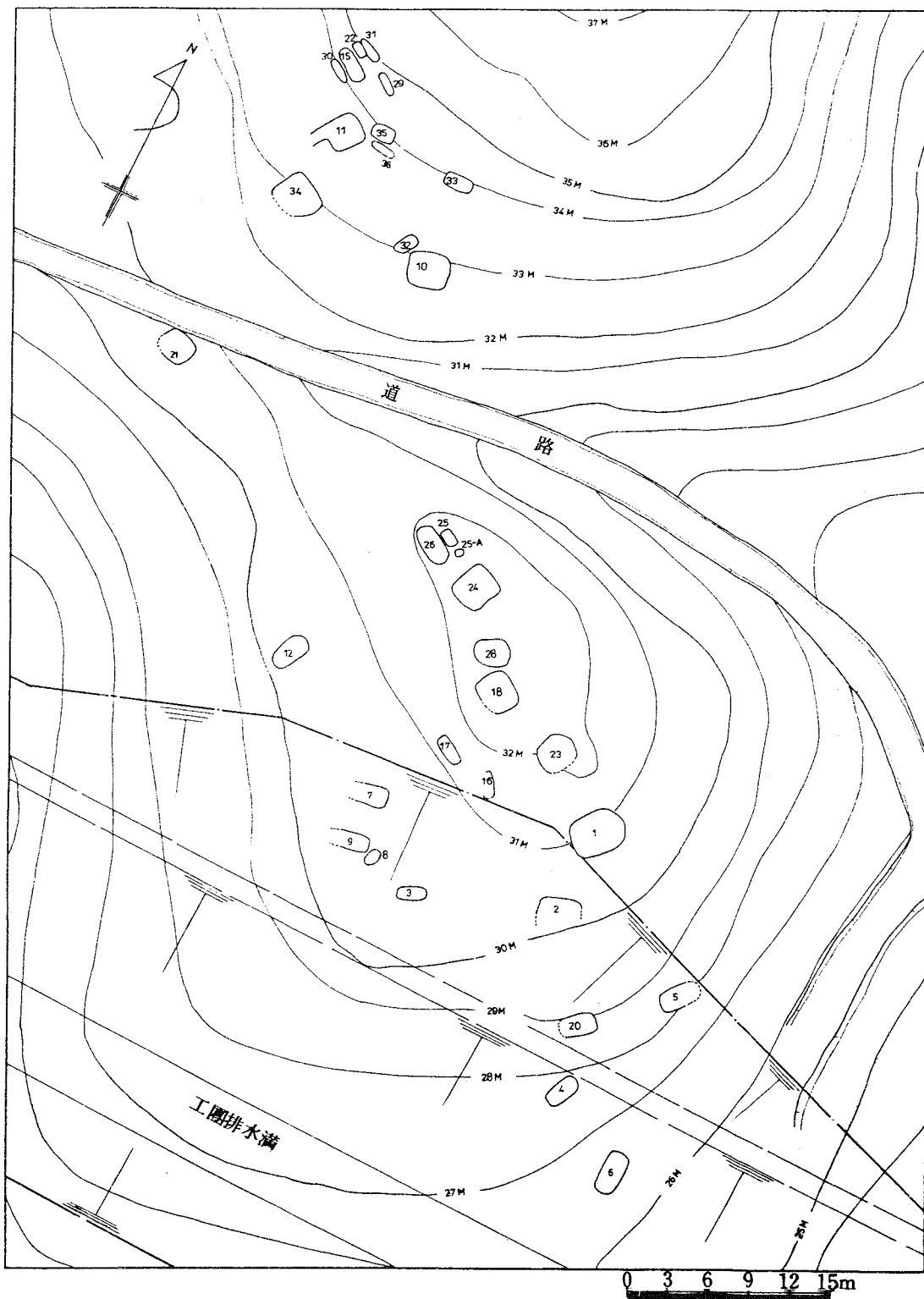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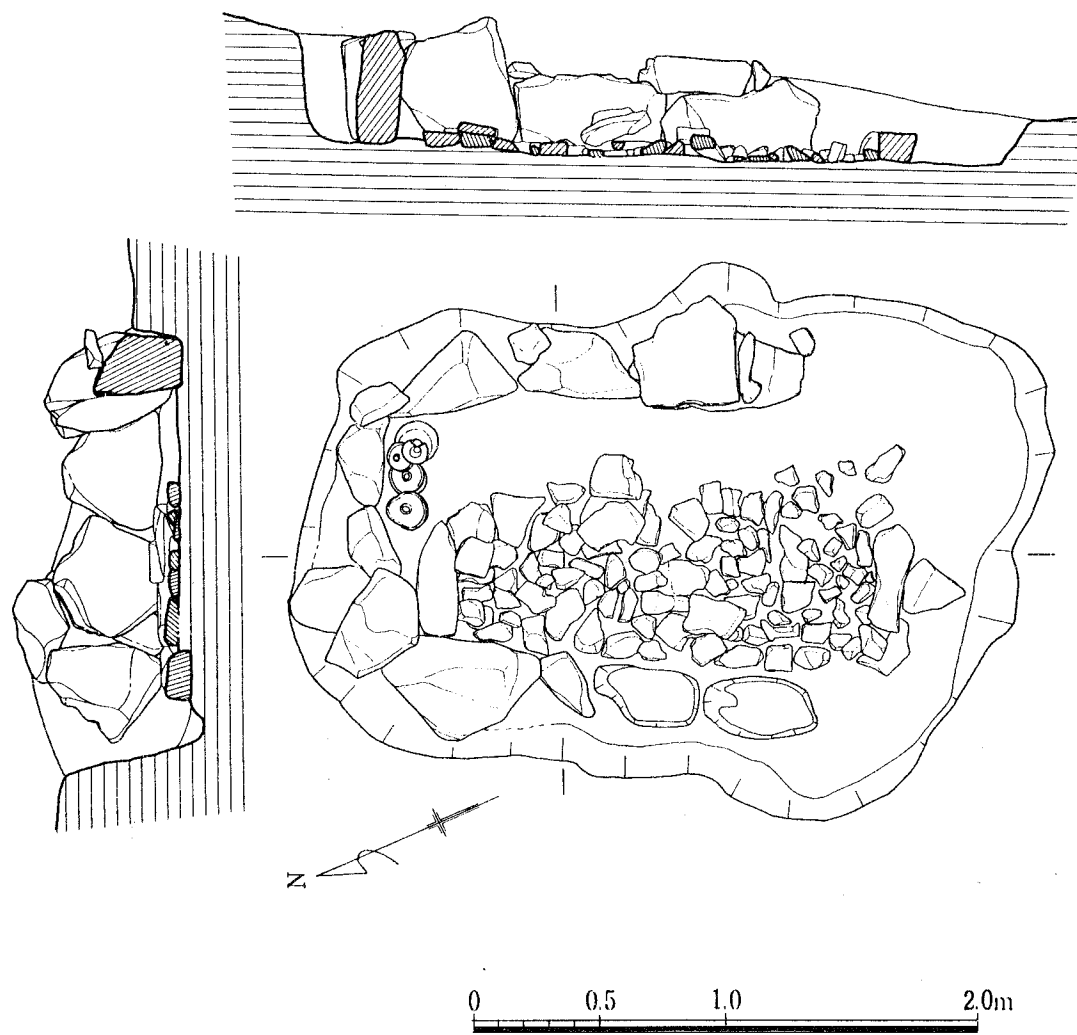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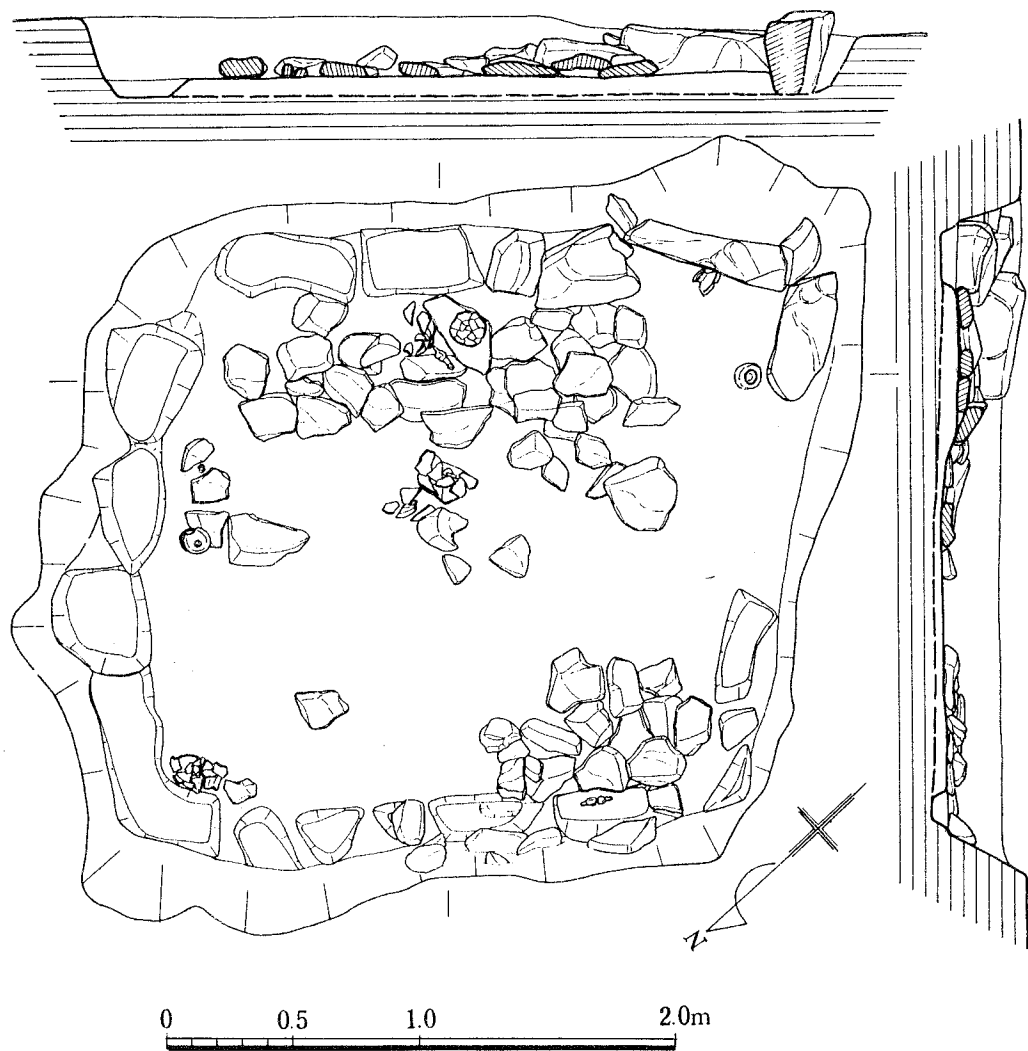
圖面15 良東遺蹟 出土遺物(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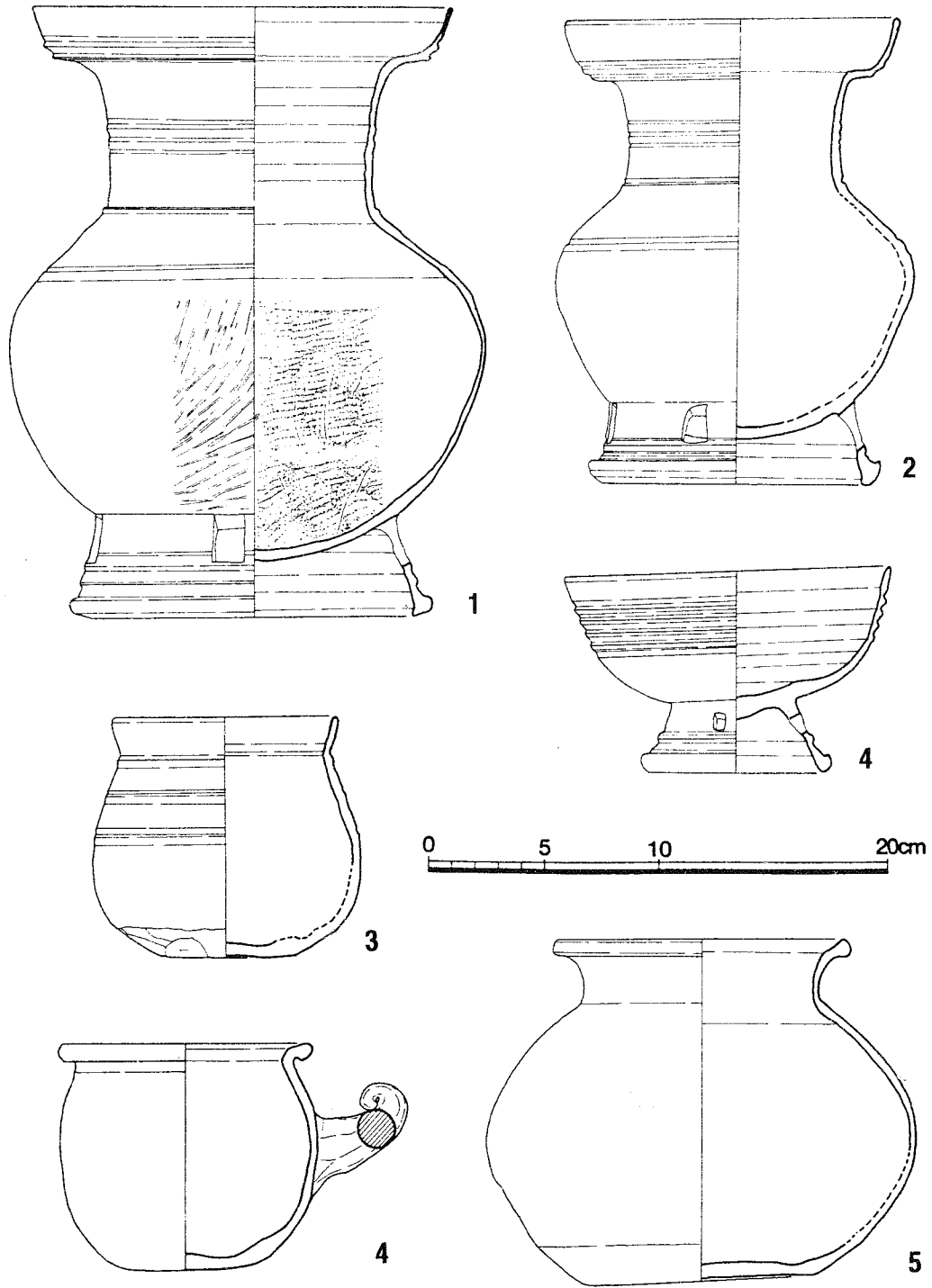
圖面16 良東遺蹟 出土遺物(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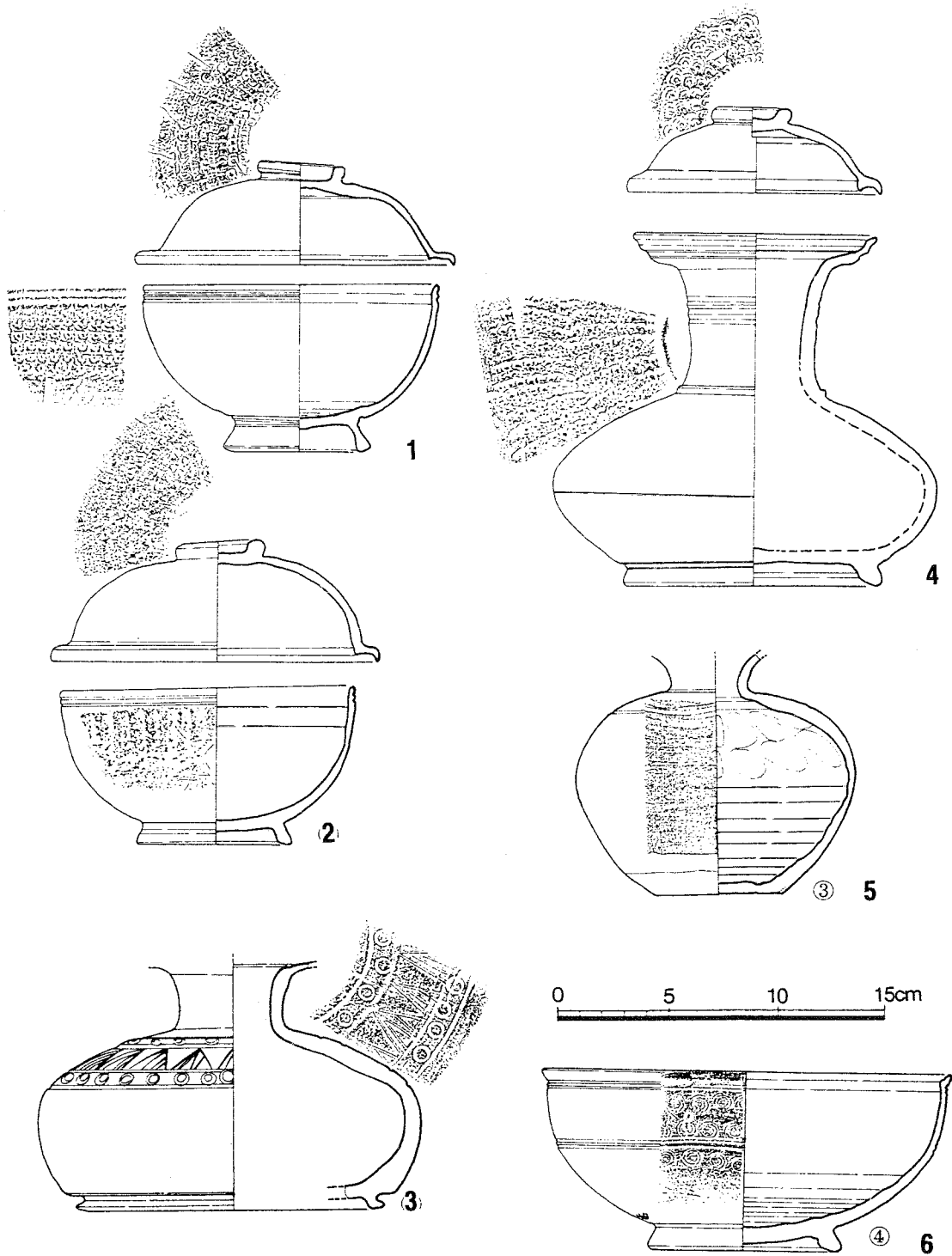
圖面17 華山里古墳群 地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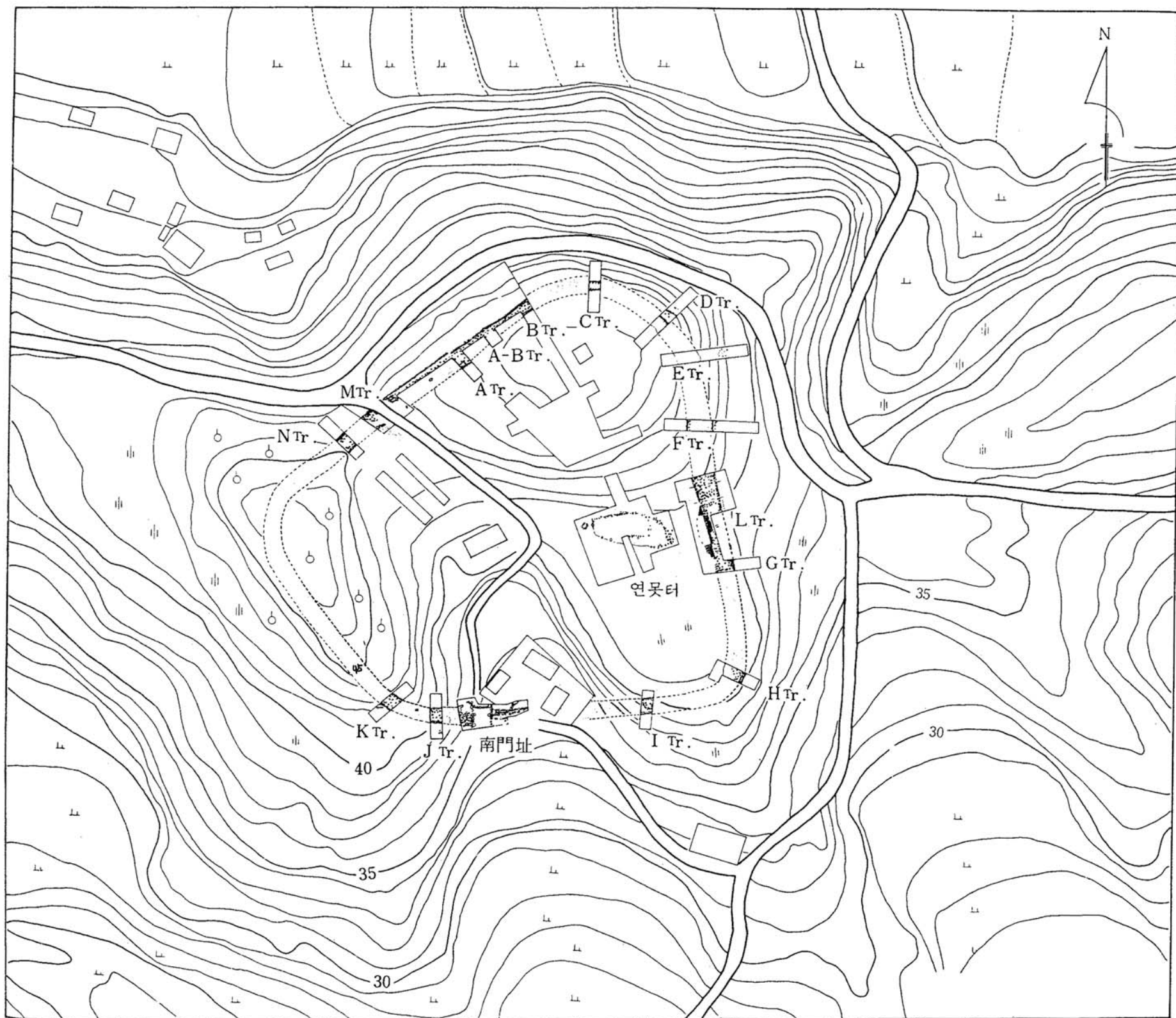
圖面18 華山里古墳群 遺構平面圖(左：24號, 右：12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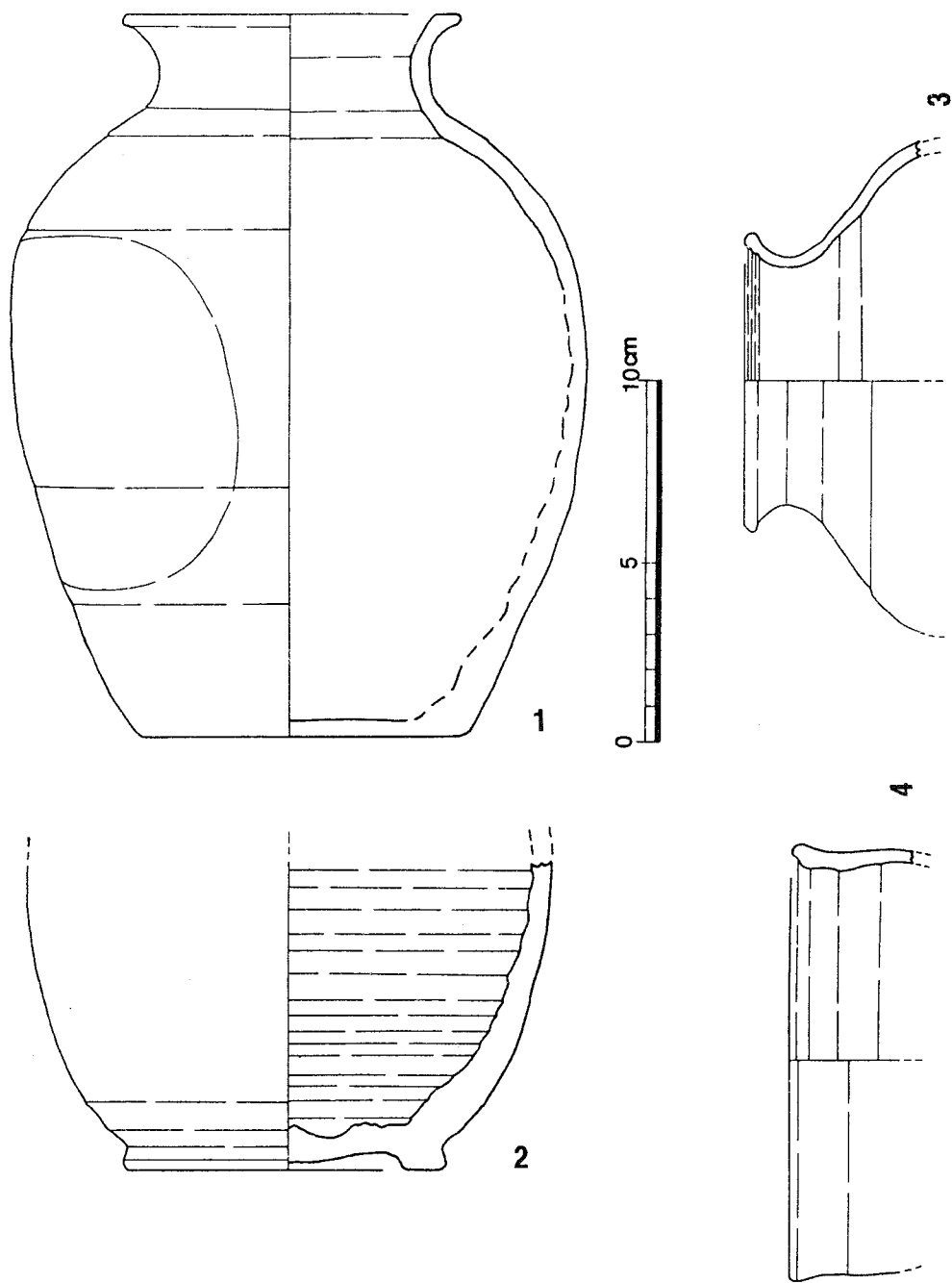
圖面19 華山里古墳群 出土遺物(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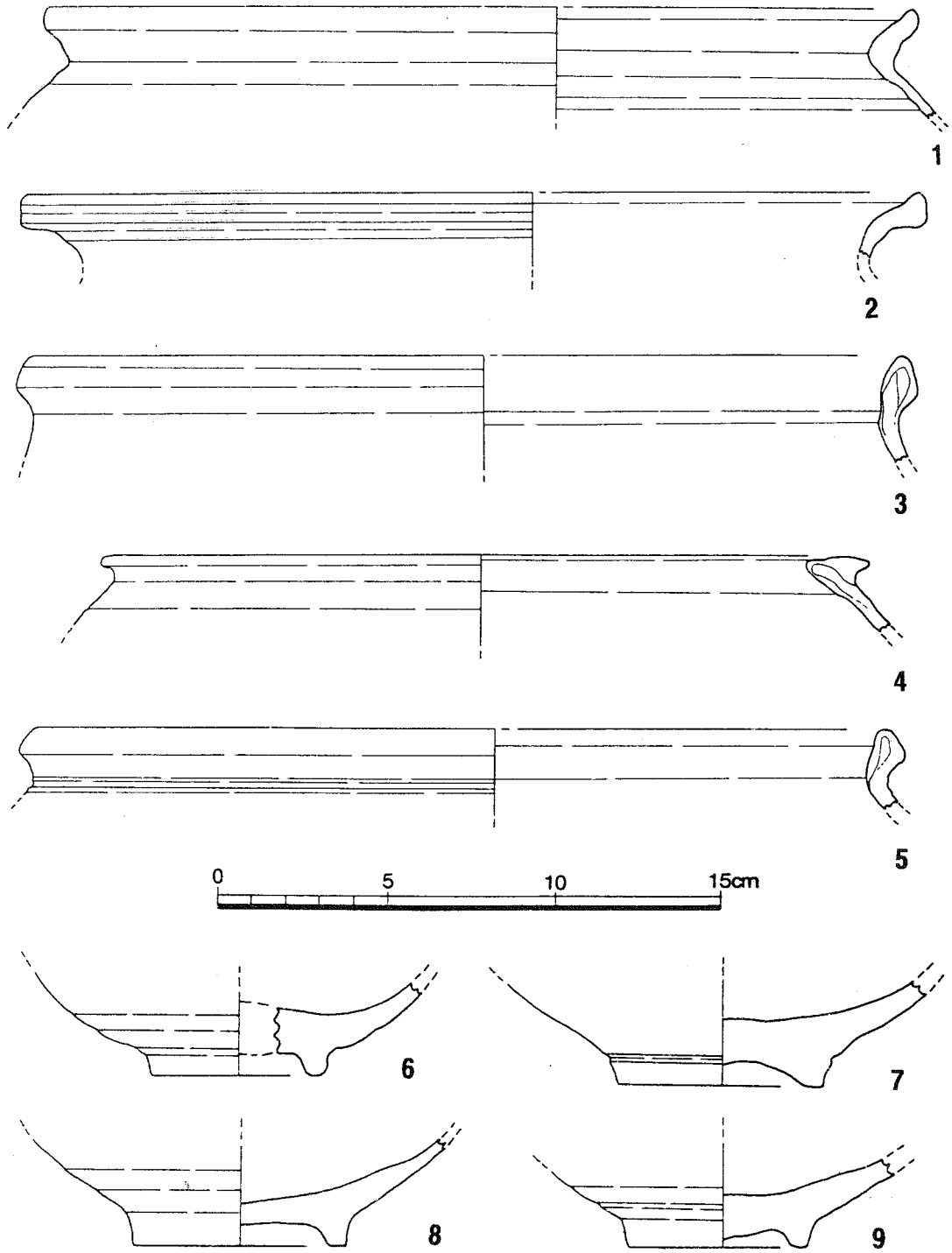
圖面20 華山里古墳群 出土遺物(1/3)



圖面21 華山里山城 地形圖



圖面22 華山里山城 出土遺物(1/3)



圖面23 華山里山城 出土遺物(1/3)

(4) 雲化里古墳群의 性格

이상과 같이 雲化里古墳群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운화리고분군의 인근에 위치한 유적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墓制

雲化里古墳群에서 확인된 遺構는 외관상 드러난 현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지표조사과정에서 채집된 유물로 보아 豎穴式 石槨墓段階에서부터 橫穴式 石室墓段階까지 연속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지표조사를 통하여 채집된 유물들과 다른 지역과의 관계에서 얻은 결론이다. 그리고 인접하고 있는 良東遺蹟에서와 같이 積石木槨墓도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과정에서 木槨墓로 보이는 유구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채집된 유물에서도 木槨墓段階의 遺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적의 전체 면적중 아직도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木槨墓의 存在도 전혀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파괴된 유구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유구는 石槨墓들이다. 遺構의 규모는 이 지역에서 가장 大型級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蓋石이 있는 石槨의 경우 蓋石의 길이가 무려 2.5m을 상회하고, 遺構의 길이도 거의 7m에 이르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雲化里古墳群이 溫陽面과 溫山邑一帶에서 中心古墳群이었던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었다. 蓋石이 드러난 遺構의 경우, 내부에 이물질들이 채워져 있었고 유구의 내부에 일정한 공간이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파괴되기 전에는 내부에 토사가 유입되지 않은 채로 보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현상으로 보아 유구를 축조한 후 蓋石部分을 진흙 등으로 密封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 조사단에서 수습한 1기의 石棺系 石槨墓는 대형분의 주변에 만들어진 陪墓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볼 때 유구의 전체적인 형태는 대형분을 중심으로 배묘들이 돌아 가는 구조로 판단되는데 발굴조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치 않다.

大形封墳이 확인되고 있으나 遺構의 정확한 현상은 아직 알 수 없다. 유구의 정상부에 도굴의 흔적이 있으나 파손된 유물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橫口式 내지 橫穴式 石室일 가능성이 높다. 封墳의 직경은 대략 10m이상인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封墳을 가진 대형고분들이 일정한 범위(구릉)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릉별로 산발적으로 확인되어 구릉별로 시기적인 이동이 있었던 흔적은 지금

까지의 조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2) 遺物로 본 雲化里古墳群

雲化里古墳群에서 채집된 유물들은 대체로 5世紀 後葉에서 6世紀代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채집된 유물은 대체로 土器類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高杯類와 蓋, 그리고 臺附長頸壺, 壺, 甕類 등이다. 遺物의 器形으로 볼 때 新羅土器一色이다.

채집된 遺物의 構成이 극히 단순하며 또한 공반관계가 불명확하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이들 유물에 대한 검토를 통해 雲化里古墳群의 性格을 규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이들 유물이 주변의 良東遺蹟과는 거의 시기적으로 평행하며, 華山里古墳群에서 조사된 출토유물보다는 선행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3개소 유적들이 어느 곳도 완전히 발굴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간의 관계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단 출토유물로 비교한다면 雲化里古墳群에서 수집된 유물들은 良東遺蹟의 것과 비교해서 약간 늦거나 거의 동시기의 것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雲化里古墳群에서 채집된 유물들의 시간적인 위치는 5世紀 後葉에서 6世紀代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蔚山地域에서 後期古墳段階의 大形封土墳이 위치한 遺蹟은 中山里古墳群, 大袋里古墳群, 川前里古墳群, 그리고 雲化里古墳群이다⁸⁾. 이러한 유적의 분포상황에서 良東遺蹟을 포함한 雲化里古墳群의 주변에 위치한 古墳群들은 소형고분군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蔚山地域이 이른 시기에 新羅圈에 편입된 이후 新羅勢力의 영향하에 놓인 결과 고분군의 位階化가 극히 단순화한 상태로 전개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雲化里古墳群은 蔚山地域의 4개의 대형봉토고분군중의 하나이며 울산지역의 後期古墳段階의 蔚山南東部地域의 頂点에 속한 支配階層의 墓域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8) 李盛周, 1996, 『新羅·伽耶古墳文化 時期區分 試案』, 碩晤尹容鎮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2. 古代의 蔚山과 雲化里古墳群

(1) 머리말

본 절에서는 역사학적인 조사를 통하여 古代 蔚山地域의 歴史的 成長過程과 雲化里古墳群이 위치하고 있는 歴史的 狀況을 다음과 같이 구명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자료를 통하여 고대 울산지역의 역사적 성장과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먼저 昔脫解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다.⁹⁾

비록 사료의 영성하여 한계가 있기는 하나, 기존의 연구성과를 재검토하면서 昔脫解의 出自를 밝혀보도록 하겠다. 여기에 필요한 문헌자료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등의 國內史書뿐만 아니라 인용 사료의 신빙을 위해 《三國志》 魏書 東夷傳¹⁰⁾ 과 《晉書》 및 그 東夷傳¹¹⁾ 등의 中國正史도 아울러 참고할 것이다. 다음 昔脫解가 울산만을 세력 거점으로 삼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세력을 성장해 가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고대 삼한시기의 울산지역은 어떠한 세력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신라에 편입되어 가는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雲化里古墳群이 차지하는 역사적 의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울산지역은 울산 동북부지역을 거점으로 세력을 회복한 昔脫解가 사료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 서남부지역의 于尸山國을 정복하고, 이후 신라가 이 지역을 어떠한 단계를 거쳐 지방통치체제를 구축하는가를 살펴보겠다. 여기에는 문헌자료뿐만 아니라 雲化里古墳群을 비롯한 유적자료도 참고할 것이다.

(2) 古代의 蔚山과 昔脫解

1) 昔脫解의 出自

(9) 昔脫解에 대한 주요한 연구성과로서는 다음의 논고가 참고된다.

金哲垓, 1952, 〈新羅 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上)〉《歷史學報》 1.

文暻鉉, 1972, 〈新羅建國說話의 研究〉《大丘史學》 4; 1983, 《新羅史研究》, 경북대학교 출판부.

千寬宇, 1976, 〈三韓의 國家形成(上)〉《韓國學報》 2; 1989, 《古朝鮮·三韓史研究》, 一潮閣.

李炯佑, 1994, 〈탈해집단의 斯盧地域 移住에 대하여〉《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5.

宣石悅, 1996, 〈『三國史記』 新羅本紀 初期記錄 問題와 新羅國家의 成立〉,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 이하 〈魏志東夷傳〉이라 약칭하겠다.

(11) 이하 〈晉書東夷傳〉이라 약칭하겠다.

昔脫解의 출자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金哲堧의 견해로서 동해 안지역의 울산·감포 방면에서 경주로 들어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¹²⁾ 다른 하나는 千寬宇의 견해로서 昔脫解가 한강유역에서 김해를 거쳐 경주로 이주해 왔다고 하여 북방 유이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¹³⁾ 이 두 견해는 같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기록에 근거를 두고 각기 다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전자는 막연히 유이설을 주장하고 있음에 반해, 후자는 中國正史의 기록을 참조하여 昔脫解가 원래 백제인으로서 신라왕이 되었다고 보는 점이 특이하다. 즉 석씨집단은 昔脫解와 계통이 다른 舊辰國系로서 백제의 압력으로 인하여 한반도 중부지방으로부터 소백산맥을 넘어 경주로 남하해 왔다고 보는 관점이 깔려 있다.¹⁴⁾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기록에 대한 검토는 잠시 뒤로 미루기로 하고 본절에서는 먼저 후자의 견해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중국정사의 기록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A-1 ① 新羅國 在高麗東南 居漢時樂浪之地 或稱斯羅 魏將卍丘儉討高麗 破之 奔沃沮 其後復歸故國 留者遂爲新羅焉 故其人雜有華夏·高麗·百濟之屬 兼有沃沮·不耐·韓·濊之地 ② 其王本百濟人 自海逃入新羅 遂王其國 ③ 傳祚至金眞平 開皇十四(594)年 遣使貢方物 (中略) 其先 附庸於百濟 後因百濟征高麗 高麗人不堪戎役 相率歸之 遂致強盛¹⁵⁾

A-2 其(筆者注: 弁韓)十二國屬辰王 辰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王¹⁶⁾

A-3 辰韓 在馬韓之東 自言秦之亡人避役入韓 韓割東界以居之 立城柵 言語有類秦人 由是 或謂曰秦韓 初有六國 後分爲十二 又有弁辰 亦十二國 合四五萬戶 各有渠帥 皆屬於辰韓 辰韓常用馬韓人作主 雖世世相承 而不得自立 明其流移之人 故爲馬韓所制也¹⁷⁾

(12) 金哲堧, 1952, <앞의 논문>《歷史學報》 1.

(13) 千寬宇, 1976, <위의 논문>; 1989, 《위의 책》

(14) 千寬宇, 《위의 책》, pp.299~302.

(15) 《隋書》 卷81, 列傳 46 東夷傳 新羅傳.

(16) 《魏志東夷傳》 弁辰傳.

(17) 《晉書》 卷97, 列傳67 東夷傳 辰韓傳.

A-4 新羅者 其先本辰韓種也 辰韓亦曰秦韓 相去萬里 傳言秦世亡人避役來適馬韓 馬韓亦割其東界居之 似秦人 故名之曰辰韓 (中略) 辰韓王常用馬韓人作之 世相孫 辰韓不得自立爲王 明其流移之人故也 恒爲馬韓所制 辰韓始有六國 稍分爲十二 (中略) 魏時曰新盧 宋時曰新羅 或曰斯羅 其國小 不能自通使聘 普通五年 王名募秦 始使使隨百濟 奉獻方物 (中略) 語言待百濟而後通焉¹⁸⁾

A-5 辰韓 在馬韓之東 其耆老傳世 自言古之亡人 避秦役 來適韓國 馬韓割其東界地與之 始有六國 稍分爲十二¹⁹⁾ <魏志東夷傳> 辰韓傳.

A-1은 <隋書> 新羅傳의 기록으로서 ②는 북방유이설을 주장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이다. 이 설의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여러 기록들을 아울러 검토해 보아야 한다. 먼저 A-1의 <隋書> 新羅傳의 기록을 분석하겠는데, 문제의 ② 앞에 기재된 ①에는 卍丘儉의 침입으로 沃沮로 피난왔다가 고구려로 돌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던 자들이 신라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 까닭에 신라의 주민 구성에는 중국계·고구려계·백제계가 섞여 있으며, 신라의 영토가 沃沮·不耐·韓·濊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신라가 漢의 樂浪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본 것은 6세기 중엽 진흥왕대에 沃沮와 不耐의 지역을 차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③에서 隋(589~618) 이전에 신라가 백제에 부용당하였고 그 뒤에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하였을 때 고구려인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신라에 귀속하여 이로써 신라가 강성해졌다고 하였는데, 이 시기는 開皇 14년 眞平王이 국교를 맺기 이전에 신라가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여 결국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또한 6세기 중엽 眞興王代의 일이다. 특히 신라가 백제에 부용당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A-4의 <梁書> 新羅傳에 보이듯이 신라가 백제를 따라 梁(502~557)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통역조차도 백제를 통하여 교섭 가능한 사실에서 연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①과 ③의 기록이 시기적으로 일치되는 점은 <隋書> 新羅傳에 수록된 내용이 주로 6세기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정된다.

그리고 A-3의 <晉書東夷傳> 기록은 4세기 전후의 진한에 대한 기록인데,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것은 '변한이 진한에 속하며 진한은 항상 마한인으로서 왕으로 삼으며 대대로 세습하며 자립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기존의 해석에서는 일반

(18) <梁書> 卷54, 列傳48 新羅傳.

(19) <魏志東夷傳> 辰韓傳.

적으로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千寬宇는 弁韓이 辰韓의 부용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²⁰⁾ 白承忠은 가야세력이 1~2 세기 무렵에 급격히 성장하다가 3세기 초에 거의 몰락하였으며,²¹⁾ 4세기에는 이미 辰韓 즉 新羅에 복속되었다고 하였다.²²⁾ 이는 初期記錄에 기재된 加耶關係記事가 3세기 후반부터 갑자기 보이지 않은 점에 착안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이들 加耶關係記事는 대부분 6세기 전반 加耶 諸國의 멸망과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²³⁾ 특히 金官國 즉 弁韓의 狗邪國 首露王이 진한지역의 분쟁에 개입하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소위 小國爭疆記事²⁴⁾는, 3세기 후반 斯盧國이 진한지역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분기점을 이루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후 진한지역이 사로국을 중심으로 통합되기 시작하고 변한과 진한이 각각의 세력권으로 성립되는 사건을 반영하는 것이었다.²⁵⁾ 또한 A-2의 辰王에 대해서도 李丙燾는 三韓 전체, 특히 馬韓 諸小國의 盟主로 보았다.²⁶⁾ 千寬宇는 韓傳과 弁辰傳의 진왕을 별개의 존재로 파악하여 韓傳의 '辰王'을 옛 辰國지역의 王으로서 伯濟國王을, 弁辰傳의 경우는 辰韓의 王인 斯盧國王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²⁷⁾ 李賢惠는 弁辰傳의 辰王을 斯盧國王으로 보는 설에 동조하면서 《三國史記》 新羅本紀의 初期記錄 가운데 小國征服記事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기록상 3세기 중엽에 이미 진한지역에 하나의 연맹체가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²⁸⁾ 그러나 A-2의 弁辰傳의 辰王은 韓傳의 辰王과 동일한 존재인 마한 目支國의 지배자로서 삼한이나 마한의 盟主가 아니라 3세기 전반 요동의 호족인 公孫氏가 인정한 이래로 지속된 마한·변한지역에서의 對中國郡縣 交涉代表者라는 의미에 불과하며, 진한지역은 동해안을 통해 濊를 매개로 하여 樂浪郡과 교섭을 하고 있었으므로 辰王과는 전혀

- (20) 千寬宇, 1977, 〈復元 加耶史(上)〉《文學과 知性》 1977 여름호; 1991, 《加耶史研究》, 一潮閣, p.8.
- (21) 白承忠, 1989, 〈1~3세기 가야세력의 성격과 그 추이 - 수로집단의 성장과 浦上八國의 亂을 중심으로 -〉《釜大史學》 13.
- (22) 白承忠, 1990, 〈3~4세기 한반도 남부지방의 제세력 동향 - 초기 가야세력권의 변화를 중심으로 -〉《釜山史學》 19.
- (23) 宣石悅, 1993, 〈{三國史記} 新羅本紀 加耶關係記事의 檢討 -初期記錄의 紀年 推定을 中心으로-〉《釜山史學》 24
- (24)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1 婆娑尼師今 23年 8月條.
- (25) 宣石悅, 1996, 〈3세기 후반 弁·辰韓 勢力圈의 變化〉《加羅文化》 13, pp.93~103.
- (26) 李丙燾, 1976, 〈蓋國'과 '辰國' 問題〉《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pp.240~241.
- (27) 千寬宇, 1976, 〈三國志 韓傳의 再檢討〉《震檀學報》 41; 《앞의 책》, pp.234~236.
- (28) 李賢惠, 1988, 〈4세기 加耶社會의 交易體系의 變遷〉《韓國古代史研究》 1, p.160.

관계가 없었다.²⁹⁾

어쨌든 A-3의 기록은 A-2의 〈魏志東夷傳〉 기록을 잘못 참조하여 기재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A-2에서 弁辰十二國屬辰王 辰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王이라 한 것을 A-3에서 弁辰屬於辰韓 辰韓常用馬韓人作主 雖世世相承 而不得自立이라 하여 ‘辰王’을 ‘辰韓’이라고 잘못 전제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록의 이면에는 ≪晉書≫의 편찬 시기인 唐 貞觀 22(646)년의 지식이 개입되어 있는데, 3세기 말 당시의 변한지역이 처해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6세기 전반 新羅에 의하여 병합되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皆屬於辰韓’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³⁰⁾

지금까지 분석한 것을 종합하여 ≪隋書≫ 新羅傳에 전하는 A-1 ②의 신라왕실 출자 기록을 검토해 보겠다. 신라왕실의 출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서로는 ≪隋書≫(唐 顯慶 원(656)년)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梁書≫(貞觀 10(636)년)와 ≪晉書≫(貞觀 22(648)년)가 있다. 唐代에 편찬된 사서 가운데 가장 늦게 나온 ≪隋書≫에는 신라왕실의 출자를 백제계통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이는 이전에 편찬된 다른 사서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앞의 사서나 다른 기록을 참조했을 것이다. 신라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한 A-4의 ≪梁書≫에는 〈魏志東夷傳〉 가운데 A-5의 辰韓傳의 망명기사와 A-2의 弁辰傳의 辰王 기록을 게재하였다. ≪梁書≫에서는 인용한 A-2에 덧붙여 진한이 마한에게 제압당하였다고 해석을 달고 있다. ≪晉書≫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辰王이 자립하지 못한 이유로 이해하게 되었고, ≪隋書≫에서는 이에 더욱 부연하여 신라왕실의 시조가 백제에서 신라로 건너온 것으로 해석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隋書≫에 전하는 신라왕실의 시조가 백제에서 유이하였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昔脫解가 마한 目支國계통이 도래하여 신라왕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³¹⁾ 또한 사실성이 없는 것이다.

(29) 宣石悅, 1996, 〈앞의 논문〉≪加羅文化≫ 13, pp.89~90.

(30) 新羅의 金春秋가 唐에 가서 ≪晉書≫를 가져왔다고 하는데(≪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5 眞德王 2(648)年條), 唐은 당시의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晉書≫에 辰韓傳을 特記하였을 것이다. 즉 이와 유사한 예로 3세기 중엽 당시의 同時代的 史書인 ≪三國志≫에는 馬韓의 소국이며 백제의 전신인 伯濟國에 대하여 특별한 내용을 따로 기재하여 두지 않았던 것이지만, ≪三國志≫의 내용을 요약 인용한 ≪後漢書≫ 東夷傳 韓傳의 경우에도 [(三韓)凡七十八國 ‘伯濟是其一國焉’]이라 하여 撰者인 范曄 자신이 생존한 5세기 중엽에 이르러 강성해진 百濟를 염두에 두고 이를 기재한 예도 참고된다.

(31) 文暲鉉, 〈앞의 논문〉; ≪앞의 책≫, p.56~58.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隋書》 新羅傳의 기록을 근거로 신라왕실의 기원을 북방유 이민으로 규정한 견해 가운데 특히 백제계통의 이주집단으로 상정한 견해는 성립될 수 없음을 검토하였다. 《隋書》 新羅傳의 기록은 《梁書》 新羅傳의 기록을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며, 《梁書》 新羅傳의 기록은 첫째 6세기 전반의 신라 상황을 전하는 부분과 둘째 〈晉書東夷傳〉의 기록을 인용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부분의 〈晉書東夷傳〉의 기록은 〈魏志東夷傳〉의 기록을 잘못 오해하여 재구성된 것이고, 첫째 부분의 6세기 신라의 상황은 梁代에 신라로부터 직접 채록한 것이 아니라 신라의 사신을 대동한 백제로부터 입수하였을 것이다. 7세기 중엽경 《晉書》, 《梁書》, 《隋書》의 시간적 순서로 편찬되는 과정 속에서 《隋書》 新羅傳은 《晉書》와 《梁書》의 新羅傳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신라왕실의 기원이 백제계통이었다는 독창적인 내용으로 변모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위 사서들의 신라 관련 기록에서 그 원전이 되는 〈魏志東夷傳〉 弁辰傳의 辰王 기록은 辰王과 진한의 관계가 아니라 對郡縣交涉의 대표자인 辰王과 변한과의 통속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晉書東夷傳〉 辰韓傳에서는 진한과 변한의 종속관계로 잘못 서술한 것이며, 《梁書》 新羅傳은 〈晉書東夷傳〉 辰韓傳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隋書》 新羅傳은 《梁書》의 6세기 신라 상황 기록을 감안하면서 신라왕실의 기원을 마한의 후신 즉 백제지역에서 쫓겨 진한지역으로 이주한 집단으로 상정해버렸던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정사의 기록은 간접적인 견문이나 제삼자로부터 정보를 채록하거나 편찬 당시의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술함으로써 크나큰 오류를 범하였다. 특히 시간적 격차가 컸던 신라왕실의 기원에 대하여 중국쪽의 기록에서는 동시대적인 사서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가함으로써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신라왕실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보의 수집이 어려웠던 타국의 사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라의 전승기록이 전해져 사서로 완성된 계승 왕조의 사서인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서 찾아야만 보다 정확하게 추구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비록 《三國史記》 등이 동시대적 사서가 아닌 점에서 기년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타국의 동시대적 사서에 의거하여 엄밀하게 검증해 보면 보다 정확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지만, 과거의 전승 특히 왕실의 기원이나 혈연에 관한 전승은 타국의 史書보다 상세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본 절에서는 본 장에서 추구하는 昔脫解의 出自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는데, 다음의 기록을 통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A-6 脫解 本多婆那國所生也 其國在倭國東北一千里 初其國王娶女國王女爲妻 有娠七年 乃生大卵 王曰 人而生卵不祥也 宜棄之 其女不忍 以帛裹卵並寶物 置於櫝中浮於海 任其所往 初至金官國海邊 金官人怪之不取 又至辰韓阿珍浦口 是始祖赫居世在位三十九年也 時海邊老母 以繩引繫海岸 開櫝見之 有一小兒在焉 其母取養之 及壯身長九尺 風神秀朗 智識過人 或曰 此兒不知姓氏 初櫝來時 有一鵲飛鳴而隨之 宜省鵲字 以昔爲氏 又解櫝而出 宜名脫解 脫解始以漁釣爲業 供養其母 未嘗有懈色 母謂曰 汝非常人 骨相殊異 宜從學以立功名 於是 專精學問 兼知地理⁽³²⁾

A-7 從郡至倭 循海岸水行 歷韓國 乍南乍東 到其北岸狗邪韓國 七千餘里 始渡一海 千餘里 至對馬國⁽³³⁾

A-8 望城中可居之地 見一峰如三日月 勢可久之地 乃下尋之 卽瓠公宅也 乃設詭計 潛埋礪炭於其側 詰朝至門云 此是吾祖代家屋 瓠公云 否 爭訟不決 乃告于官 官曰 以何驗是汝家 童曰 我本冶匠 乍出隣鄉 而人取居之 請掘地 看檢從之 果得礪炭 乃取而居爲焉 時南解王知脫解是智人 以長公主妻之 是爲阿尼夫人⁽³⁴⁾

A-9 始祖 姓朴氏 諱赫居世 前漢孝宣帝五鳳元年甲子四月丙辰(細注：一曰正月十五日)卽位 號居西干 時年十三 國號徐那伐 先是 朝鮮遺民 分居山谷之間爲六村(中略) 是爲辰韓六部 高墟村長蘇伐公 望楊山麓 蘿井傍林間 有馬跪而嘶 則往觀之 忽不見馬 只有大卵 剖之 有孀兒出焉 則收而養之 及年十餘歲 岐嶷然夙成 六部人 以其生神異 推尊之 至是 立爲君焉 辰人謂瓠爲朴 以初大卵如瓠故 以朴爲姓 居西干 辰言王(或云呼貴人之稱)⁽³⁵⁾

A-10 王夜聞 金城西始林樹間 有鷄鳴聲 遲明 遣瓠公視之 有金色小櫝掛樹枝 白鷄鳴於其下 瓠公還告 王使人取櫝開之 有小男兒在其中 姿容奇偉 上喜 謂左右曰 此豈非天遺我以令胤乎 乃收養之 及長聰明多智略 乃名闕智 以其出於金櫝姓金氏 改始林名鷄林 因以爲國號⁽³⁶⁾

A-11 桓靈之末 韓濊疆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³⁷⁾

(32)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脫解尼師今 卽位條.

(33) 《魏志東夷傳》倭人傳.

(34) 《三國遺事》 卷1, 紀異 第2 脫解王條.

(35)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始祖 赫居世居西干 卽位條.

(36)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脫解尼師今 9年 3月條.

(37) 《魏志東夷傳》韓傳.

첫째, 多婆那國의 위치에 대해서이다. 위의 昔氏 始祖 脫解의 출신지인 多婆那國의 위치가 倭國의 동북쪽 1천리에 있다고 하였다. 이에 참고되는 기록은 <魏志東夷傳> 倭人傳에 보이는 A-7의 기사인데, 帶方郡에서 倭로 가는 노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 노정은 서해안과 남해안을 지나 한반도의 동남단인 狗邪國에 이르고 狗邪國에서 다시 바다를 건너 1천여 리를 가면 對馬國에 도착한다고 하였다. 특히 ‘其北岸’이라고 한 점을 유의해 보면 ‘倭의 북쪽 對岸’을 狗邪國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魏志東夷傳>에 의하면 대마도에서 김해까지의 거리를 1천여 리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A-7의 기록과 대비해 볼 때 A-6에서 多婆那國이 倭에서 1천여 리라고 한 대상지역의 倭란 바로 대마도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마도에 기준을 두고 방향을 설정할 경우 ‘其北岸’이라 하여 김해는 대마도에서 북쪽이 되고 多婆那國의 방향은 대마도의 동북쪽으로 되어진다. 즉 倭의 동북쪽인 多婆那國은 김해로부터 동쪽에 위치하게 되는 셈이다.

A-8의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昔脫解가 瓠公의 집을 빼앗을 때 자신의 집이라고 내세운 증거 가운데 瓠公이 살고 있는 집은 원래 조부 때부터 토함산 아래의 경주 부근에서 살았음을 말하고 있다. 昔脫解의 원거주지가 경주 부근인 점과 위에서 분석한 내용에서 多婆那國이 狗邪國에서 동쪽인 점을 아울러 참조하면 多婆那國의 위치는 다름아닌 경주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을 방증해 주는 기록은 A-6에 보이는데, 昔脫解가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金官國 즉 狗邪國에 이르렀다고 한 점이다. <駕洛國記>에도 이와 유사한 설화가 보이는데, A-6의 <三國史記>보다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昔脫解가 狗邪國에 와서 首露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하는데,³⁸⁾ 이는 昔脫解의 원거주지인 多婆那國이 狗邪國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기존의 통설에 의하면 昔脫解는 그 자신이 북방으로부터 경주로 이주해 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의 기록들을 분석해 보면 昔脫解 자신이 북방으로부터 이주해 왔던 것이 아니라, 원래 조부 때부터 토함산 아래의 경주 부근에서 살았다고 하는 기록을 인정한다면 그의 조부 이전의 세대에서 이주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주의 계기에 대해서는 사료 A-1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세기 후반 後漢末에 본국의 내부 혼란으로 인하여 외방의 樂浪郡이 고립되었던 반면에 삼한과 동예의 세력이 강성해진 와중에 樂浪郡의 주민이 삼한으로 대거 유입되었는데, 昔脫解의 조

(38) <三國遺事> 卷2, 駕洛國記 참조.

부도 이 시기에 진한지역으로 이주해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순조로운 해석이 될 것이다.

그의 성장과정이 순탄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은 昔脫解 자신이 이주해 온 것이 아님을 반영해 준다. A-6의 昔脫解와 A-9의 혁거세, 그리고 A-10의 闕智는 그들을 지원하는 집단에 의해 '收養之' 되고 있음은 공통되는 점이다. A-9의 赫居世의 경우 그를 지원하는 집단에 의해 서라벌의 지배자로 추대되고 있고, A-10의 闕智의 경우에도 순탄하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양자는 斯盧國의 중심지에서 존재하고 있음이 공통되는 점이다. 그러나 昔脫解의 경우 A-6에 의하면 卵生한 점이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여 버려졌고 金官國을 거쳐 斯盧國의 외곽지역에 도착하여 오랜 성장과정을 겪었다. 게다가 斯盧國의 중심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유력한 세력집단과 경쟁하여 입지에 유리한 곳을 차지한 이후에야 중심세력과 혼인을 맺는 것으로서 그의 존재를 인정받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斯盧國의 중심세력으로 부각되기 이전에 昔脫解는 조부 때부터 경주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의 오랜 방랑의 원인은 斯盧國 내부의 여러 집단 간에 발생한 세력 경쟁에서 밀려났던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따라서 석씨집단의 기원에 대해서는 북방유이민설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昔脫解 자신이 북방에서 이주해 온 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2) 昔脫解의 勢力 成長

앞 장에서 보았듯이 昔脫解는 조부 때부터 斯盧國 지역에 이주 정착하고 있다가 주변 세력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외곽지역으로 이주하였다. 그 후 昔脫解는 斯盧國으로 돌아와 尼師今에 즉위하였는데, 이는 그 사이에 세력을 다시 신장시켜 중심세력으로 부각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절에서는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B-1 脫解齒叱今(細注: 一作吐解尼師今) ① 南解王時 駕洛國海中有船來泊 其國首露王 與臣民鼓 而迎 將欲留之 而舡乃飛走 至於雞林東下西知村阿珍浦(細注: 今有上西知·下西知村名) ② 時浦邊有一嫗 名阿珍義先 乃赫居王之海尺之母(中略) 言曰 我本龍城國人(中略) 言訖 其童子曳杖率二奴 登吐含山上 作石塚 留七日 望城中可居之地 見一峰如三日月 勢可久之地 乃下尋之 卽瓠公宅也 乃設詭計

潛埋礪炭於其側 詰朝至門云 此是吾祖代家屋 瓠公云 否 爭訟不決 乃告于官 官曰 以何驗是汝家 童曰 我本冶匠 乍出隣鄉 而人取居之 請掘地 看檢從之 果得礪炭 乃取而居爲焉 ③ 時南解王知脫解是智人 以長公主妻之 是爲阿尼夫人 及弩禮王崩 以光虎帝中元二年丁巳六月 乃登王位³⁹⁾

B-2 初南解薨 儒理當立 以大輔脫解素有德望 推讓其位 脫解曰 神器大寶 非庸人所堪 吾聞聖智人多齒 試以餅噉之 儒理齒理多 乃與左右奉立之 號尼師今 古傳如此 金大問則云 尼師今方言也 謂齒理 昔南解將死 謂男儒理 堦脫解曰 吾死後 汝朴昔二姓 以年長而嗣位焉 其後 金姓亦興 三姓以齒長相嗣 故稱尼師今⁴⁰⁾

B-3 忽有琬夏國舍達王之夫人妊娠 彌月 生卵 卵化爲人 名曰脫解 從海而來 身長三尺 頭圍一尺 悅焉詣闕 語於王云 我欲奪王之位故來耳 王答曰 天命我殺卽于位 將令安中國而綏下民 不敢違天之命以與之位 又不敢以吾國吾民 付囑於汝 解云 若爾可爭其術 王曰 可也 俄頃之間 解化爲鷹 王化爲鷲 又解化爲雀 王化爲鷓 于此際也 寸陰未移 解還本身 王亦復然 解乃伏膺曰 僕也適於角術之場 鷹之於鷲 雀之於鷓 獲免焉 此蓋聖人惡殺之仁而然乎 僕之與王 爭位良難 便拜辭而出 到 郊外渡頭 將中朝來泊之水道而行 王竊恐滯留謀亂 急發舟師五百而追之 解奔入雞林地界 舟師盡還 事記所載多異與新羅⁴¹⁾

B-4 五曰金山加利村(細註: 今金剛山栗寺之北山也) 長曰祇沱 初降于明活山 是爲漢歧部 又作韓歧部 裴氏祖 今云加德部 上下西知·乃兒等東村屬焉⁴²⁾

B-1에 의하면 昔脫解가 세력을 신장하여 斯盧國의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① 昔脫解는 버려져 狗邪國에 이르렀다가 다시 진한의 阿珍浦에 도착한 이후 ② 昔脫解가 그곳 도착세력의 도움으로 토함산까지 진출하여 斯盧國의 유력한 세력인 호공을 밀어낼 만큼 세력을 크게 신장하였고, ③ 이어 斯盧國王과 혼인관계를 맺고 尼師今에 즉위하였던 것이다. 이 기록을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昔脫解의 세력 성장과정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어디에서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알아보기로 하겠는데, 그것은 ①에서 보이는 阿珍浦의 위치에 대한 비정 문제에

(39) 《三國遺事》 卷1, 紀異 第2 第四 脫解王條.
(40)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儒理尼師今 卽位條.
(41) 《三國遺事》 卷2, 駕洛國記.
(42) 《三國遺事》 卷1, 紀異 第2 新羅始祖 赫居世王條.

관건이 달려 있다. 기존의 견해에 의하면 阿珍浦의 위치를 경북의 어느 지역으로 비정하고 있는데 영일지역설,⁴³⁾ 경주 감포설,⁴⁴⁾ 그리고 경주 양남면설⁴⁵⁾ 등이 있다. 영일지역설은 音義의 분석에 근거하여 《三國史記》 祭祀志의 阿等邊⁴⁶⁾ 과 같은 음으로 규정하였던 것이지만, 이런 음은 그외에도 유사한 지명이 많이 보이므로 音義의 분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곤란하다. 감포설은 《東國輿地勝覽》이나 《大東輿地圖》에 근거하고 있으나, 《大東輿地圖》에서는 그 위치가 잘못 비정되어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양남면설의 경우 B-1의 阿珍浦가 속한 촌락인 下西知村이 B-4의 신라 건국신화에도 보이고 있어 그 근거가 확실하다. B-4에 의하면 昔脫解가 존재한 훨씬 이후에 편재된 王京 六部 가운데 하나였던 韓歧部 소속의 촌락이 ‘上西知村·下西知村·乃兒村’ 등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 중에 下西知村과 乃兒村은 현재 경주시 양남면에 하서리와 나아리라는 지명이 남아 있음에서 보아 昔脫解가 도착한 阿珍浦는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도 현재까지 ‘하서리’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 양남면 설을 취하고자 한다. 따라서 세력경쟁에서 밀려난 昔脫解가 일시적으로 정착한 阿珍浦는 斯盧國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가까운 외곽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昔脫解는 阿珍浦에 도착한 후 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력의 성장과정을 거쳐 ③에 명시하고 있듯이 斯盧國王의 부마가 되고 尼師今位의 경쟁을 통해 왕위에 오르고 있다. 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②에서 昔脫解는 阿珍浦에 도착했을 때 老嫗 阿珍義先이라는 세력집단의 지원을 받았다. 老嫗는 정치적인 기능을 가진 司祭가 아니라 하위의 종교직능자인 巫이며,⁴⁷⁾ 老嫗는 阿珍浦 지역의 해상생활과 관련되는 종교직능자로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앞장의 A-6의 《三國史記》 기록에서 보면 그는 昔脫解를 ‘收養’한 것으로 보아 서로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老嫗가 斯盧國王 赫居世의 海尺의

(43) 李丙燾, 《(譯註)三國史記》(上), 1983, 을유문화사, p.33.

(44) 丁仲煥, 1962, 《加羅史草》, 부산대학교 한일문화연구소, p.67.

千寬宇, 〈앞의 논문〉, p.283.

(45) 李炯佑, 〈앞의 논문〉, p.25.

(46) 《三國史記》 卷32, 祭祀志 中祀 四海條.

(47) 老嫗를 주제로 다룬 논고로서는 다음의 것이 참고된다.

崔光植, 1981, 〈三國史記 所載 老嫗의 性格〉《史叢》 25; 1995 《한국고대의 국가와 제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母로 되어 있음에서 보아 그의 자식이 老嫗의 역할에 의해 海尺으로 되었을 것이며, 昔脫解는 이들과 관련을 가지고 阿珍浦 지역에서 세력을 키울 수 있었을 것이다. 즉 斯盧國의 중심 집단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昔脫解가 이와 같은 집단과 결합되었던 점은 세력의 회복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는 상당한 의의가 있었을 것이다. 昔脫解는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여타 경쟁세력의 별다른 견제없이 어업을 통해 해상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점차 세력을 키워 阿珍浦 지역에서 斯盧國의 중심부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인 토함산에 이르는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을 것이다.

昔脫解가 토함산으로 진출하였다고 하는 점은 昔脫解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昔脫解가 아진포에서 토함산으로 진출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위에서 보았듯이 영일만이나 감포지역에서 대종천을 따라 바로 토함산으로 진출한 것으로 보아 왔으나,⁴⁸⁾ 이와 달리 阿珍浦가 있는 양남면 지역에서 나아천을 따라 세력을 확장하면서 북상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⁴⁹⁾ 그러나 이 정도의 세력 기반으로 斯盧國 중심부에 들어가 주도권을 장악할 수는 없었을 것이며, 보다 넓은 지역을 자신의 세력으로 확보해야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阿珍浦에서 토함산으로 가는 길은 가파른 산악 지대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해로를 통하여 울산만으로 들어가 완만한 구릉사면을 따라 토함산 지역에 진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⁵⁰⁾ 아진포에서 울산만을 거쳐 토함산에 이르는 정도의 세력 기반을 확보한 昔脫解의 세력 성장은 斯盧國의 지배권을 두고 박씨왕실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후대의 신라에서도 昔脫解를 토함산과 연결하여 숭배하는 관념을 낳게 되었는데, 이를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5 故因名脫解 在位二十三年 建初四年己卯崩 葬䟽川丘中 後有神詔 慎埋葬我

(48) 文暲鉉, 〈앞의 논문〉; 《앞의 책》, p.55.

(49) 李炯佑, 〈앞의 논문〉, pp.24~27.

(50) 昔脫解가 대종천을 따라 토함산으로 올라갔다고 보는 文暲鉉의 견해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이 통로가 왜의 신라 침입경로로 상정하고 있다. 나아천을 따라 세력을 확장하면서 북상한 것으로 보는 李炯佑의 견해에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자연환경이라는 지리적 조건을 감안하고 있다. 그러나 산악으로 둘러싸인 내륙부지의 경주로 통하는 교통 조건은 울산만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가 동쪽으로 신라 왕경을 침입한 점과 이에 대비하여 毛伐郡城(關門城)을 쌓은 점(《三國史記》 卷 8, 新羅本紀 第8 聖德王 21年 10月條), 통일기 신라의 최대 항구가 울산이었던 점 등을 참고한다면 역사적으로 볼 때 신라 왕경으로 통하는 교통 경로는 울산만에서 경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骨 其髑髏周三尺二寸 身骨長九尺七寸 齒凝如一 骨節皆連瑣 所謂天下無敵力士之骨 碎爲塑像 安闕內 神又報云 我骨置於東岳 故令安之 (細注: 一云 崩後二十七世文虎王代 調露二年庚辰三月十五日辛酉 夜見夢於太宗 有老人貌甚威猛曰 我是脫解也 拔我骨於疏川丘 塑像安於土含山 王從其言 故至今國祀不絕 卽東岳神也云)⁵¹⁾

위 기사는 昔脫解를 東岳神으로 제사한 사실에 대한 내용인데, 本文과 細注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本文의 경우 昔脫解의 사후에 일단 疏川丘에 묻었다가 神詔가 있어 뼈를 부수어 소상으로 만들어 궁궐 안에 안치하였고, 또 다시 神詔가 있어 동악에 안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 細注의 경우 昔脫解가 문무왕에게 현몽하여 疏川丘에 매장해 두었던 뼈를 소상으로 만들어 토함산에 안치하게 하고, 그 후 東岳神으로서 국가의 제사로 받들게 되었다고 하여 本文의 3차에 걸친 분묘의 변동을 2차로 줄여진 점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변동은 석씨 시조에 대한 관념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신라 왕권의 변동이라는 정치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4세기 후반부터 석씨왕실은 김씨왕실과 신라왕권을 두고 경쟁하다가 5세기 전반에 소멸되었는데, 왕실을 통합하여 왕권을 확립한 김씨왕실의 위상이 높아진 것과 달리 석씨왕실의 정치적 지위가 격하되었음을 반영한다.⁵²⁾ 그 후 삼국을 통일한 文武王代에 이르러 국가의 제사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면서 석씨왕실의 존재를 다시 인정한 것이다. 석씨 시조 昔脫解를 東岳神으로 제사하여 中祀 가운데 五岳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는데,⁵³⁾ 五岳 가운데 斯盧國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東岳뿐이다. 이는 신라를 통일왕조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김씨왕실 외에 과거 상고 왕실의 전통을 세워 신라왕통의 유구함을 표방하려 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昔脫解가 토함산으로 진출한 것은 阿珍浦에서 울산만을 포괄하여 토함산에 이르는 지역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과거 일시적으로 약해졌던 세력을 다시 회복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세력을 회복한 昔脫解는 斯盧國의 중심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瓠公의 세력 기반을 탈취하기에 이르렀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瓠公은 본래 倭人이라고 하나 박씨 시조 赫居世居西干 때에 외교 사절로 활동하였던 점⁵⁴⁾에서 보아

(51) 《三國遺事》 卷1, 紀異 第2 第四 脫解王條.

(52) 宣石悅, 1996, 〈앞의 학위논문〉 제 IV장 제 1절 참조

(53) 《三國史記》 卷32, 祭祀志 中祀條.

박씨왕실과 관련이 깊은 세력이었는데, 昔脫解가 瓠公을 압도한 것은 박씨 왕실집단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③에 의하면 박씨 南解王은 장녀와 昔脫解를 혼인하게 하여 세력을 연계함으로써 斯盧國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昔脫解는 혼인을 맺은 박씨왕실과 斯盧國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 B-2에 나타나듯이 南解次次雄의 사망 직후 昔脫解는 儒理와 尼師今位를 두고 경쟁하였다. 昔脫解가 南解次次雄 재위시에 大輔로 있었던 것은 왕실을 보좌하였다기보다 박씨왕실이 斯盧國의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있어 昔脫解의 정치적 역량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南解次次雄의 사망으로 그 아들 우리가 계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昔脫解가 계승자로 지목되었던 것은 그만큼 昔脫解의 정치적 위상이 높았음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첫째, 昔脫解가 斯盧國 주도세력과 연계한 이후에도 阿珍浦를 거점으로 해상활동의 범위를 넓혀 가는 와중에 일어난 사건이 狗邪國과의 충돌이었는데, B-3의 《駕洛國記》 기록에는 昔脫解가 駕洛國 즉 狗邪國 首露王의 왕위를 빼앗으려 하였다. 이는 다음 장에서 밝히듯이 昔脫解는 울산만을 중심 거점으로 삼아 동남해안에서 대외교역활동을 전개하여 나갔는데, 점차 활동범위를 남해안 방면으로 넓혀 나가려는 의도에서 당시 남해안지역의 교섭대표세력이었던 狗邪國 首露王과 충돌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昔脫解는 울산만을 거점으로 삼아 세력을 신장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난 것이 울산남부의 于尸山國과 충돌하게 되어 邊官 居道를 통해 이를 정복한 것이다. 뒷 장에서 밝히듯이 于尸山國의 정복은 단순히 인근 소국과의 충돌이 아니라 동남해안지역에서 昔脫解와 首露王이 교역주도권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와중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러한 昔脫解의 활동은 단순히 斯盧國 소속 집단으로서의 임무수행이 아니라 독자적인 해상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昔脫解는 斯盧國 중심세력에서 밀려나 외곽지역인 아진포로 세력 근거지를 옮긴 이후 다시 세력을 키워 울산만을 중심으로 하여 토함산에 이르는 지역을 세력 범위로 확보하였다. 이후 昔脫解는 斯盧國의 주도세력인 박씨왕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세력을 신장하였고, 결국 왕위를 경쟁할 수 있는 정치적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기존의 통설에는 신라 상고왕실이 처음에 박씨왕통이 등장하고 그 사이에 석씨왕실이 개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김씨왕실이 참여하여 三姓王室이 변갈아 尼師今位를 계승하는 소위 交立說로 이해되어 왔다.⁵⁵⁾ 그러나 신라왕통을朴·

(54)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始祖 赫居世居西干 38年 2月條.

昔·金 三姓의 交立說로 볼 경우 각 세대간의 연령 차이나 혼인관계에 입각한 각 왕실간에 야기되는 기년의 혼선 착종 등의 모순을 해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交立說보다 竝立說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최근 필자는 新羅 上古世系의 紀年을 再調整하여 보았는데, 위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생존 연대가 확실한 박씨 朴堤上과 석씨 異次頓을 기년 추정의 기준점으로 삼아 소급 추정하여 박씨왕통과 석씨왕통의 실재 기년을 제시하였다.⁵⁶⁾

新羅 上古 王室世系의 紀年

朴氏	儒理王 229~	婆娑王 262~	祗摩王 294~	逸聖王 316~	阿達羅王 336~356	*과사왕→?→?→阿道→勿品→朴堤上(?-418)				
昔氏	脫解王 229~262	仇鄒 角干	伐休王 294~	奈解王 306~	助賁王 340~	沾解王 354~	儒禮王 371~	基臨王 385~	訖解王→ 397~437	功漢→吉升→異 次頓(502-527)
金氏	閼智→勢漢→阿道→首留→旭甫→仇道→					味鄒王 356~	奈勿王 378~	實聖王 402~	訥祇王 417~458	

그 결과 신라 상고왕통 기년의 개시시기는 3세기 전반부터였으며, 4세기 중엽까지 박씨와 석씨의 두 왕실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김씨 味鄒王이 즉위한 이후에는 박씨왕통이 단절되어 김씨왕실이 등장하였다. 이후 석씨 김씨의 두 왕실이 병존하다가 석씨왕권은 쇠퇴하여 5세기 전반에 왕통이 단절된 반면, 奈勿王系의 김씨왕권이 세습체제를 구축해 갔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昔脫解는 사로국 중심에서 일시적으로 밀려났다가 세력을 성장하여 다시 등장하여 박씨왕실과 병존한 독자적인 왕실을 구축하였고, 이후에도 세력을 더욱 신장시켜 나아가 울산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석씨왕통을 수립한 시조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55) 金哲垞, 1962, <新羅上古世系와 그 紀年>《歷史學報》 17·18 合輯; 1975,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產業社

(56) 宣石悅, 1996, <新羅 上古紀年の 再調整>《慶大史論》 9.

(2) 雲化里古墳群의 歷史的 意義

1) 昔脫解의 于尸山國 征服

斯盧國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한 昔脫解는 이후 보다 더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울산만을 경계로 갈등을 빚고 있었던 于尸山國의 정복이었다. 이에 관련되는 사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C-1 居道 失其族姓 不知何所人也 仕脫解尼師今爲干 時于尸山國·居柒山國介居境 頗爲國患 居道爲邊官 潛懷并吞之志 每年一度集馬於張吐之野 使兵士騎之 馳走以爲戲樂 時人稱爲馬叔 兩國人習見之 以爲新羅常事 不以爲怪 於是起兵馬 擊其不意 以滅二國⁵⁷⁾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은 于尸山國의 정복을 수행한 居道는 ‘干’을 官名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居道의 官名 干은 일반적으로 소국 지배자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脫解王에 소속한 점에서 보아 소국 지배자의 관리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⁵⁸⁾ 居道가 가진 관명인 干의 의미를 조금 더 상세히 언급하자면 居道가 군대를 지휘하여 소국을 정복하였던 점을 볼 때 소국의 군사지휘권을 가진 존재를 干이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昔脫解가 斯盧國의 왕으로 등장하면서 그 내부의 권력구조가 복잡해진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脫解王의 우시산국 복속은 단순히 인근 소국 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앞 장의 사료 B-3의 《駕洛國記》 기록에는 昔脫解가 駕洛國 즉 狗邪國 首露王의 왕위를 빼앗으려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조금 시각을 달리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C-2 音汁伐國與悉直谷國爭疆 詣王請決 王難之謂 金官國首露王 年老 多智識 召問之 首露立議 以所爭之地 屬音汁伐國 於是 王命六部 會饗首露王 五部皆以伊瀆爲主 唯漢祇部 以位卑者主之 首露怒 命奴耽下里 殺漢祇部主保齊而歸 奴逃依音汁伐主 陔鄒干家 王使人索其奴 陔鄒不送 王怒 以兵伐音汁伐國 其主與衆自降 悉

(57) 《三國史記》 卷44, 列傳 第4 居道傳.

(58) 干의 응례와 연구사적 정리는 徐毅植의 〈新羅 ‘上古’ 期 ‘干’의 編制와 分化〉(1993, 《歷史教育》53)가 참조된다.

直·押督二國王來降⁵⁹⁾

C-3 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 下戶詣郡朝謁 自服印綬衣 千有餘人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智激韓忿(필자주: 韓臣智激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C-4 ① 辰王治目支國 ② 臣智或加優呼臣雲遣支報 安邪跂支 漬臣離兒不例 拘邪秦支廉之號⁶⁰⁾

C-2에서 시사하고 있는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삼한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이다. 이것은 C-3과 C-4에서 시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C-4은 ①의 目支國의 辰王과 ②의 臣雲新國의 遣支(=險側)로 弁辰 安邪國의 跂支(=臣智)로 漬臣離兒國(=臣漬活國)의 不例(=樊濊)로 弁辰 拘邪國의 秦支(=臣智)로 이해되는데,⁶¹⁾ 삼한의 78 소국 중에서 유력한 소국과 그 지배자의 칭호를 열거한 것이다. 이들 유력한 소국은 교역 여건이 유리한 큰 강 하류에 위치한 것이지만, 마한과 변한의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진한지역의 유력한 소국은 보이지 않는다.⁶²⁾ 진한지역의 경우는 帶方郡과 교섭한 마한과 변한의 소국들과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C-3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기사에서 유의해 보면 진한지역에도 중국 군현과 교섭한 존재가 잘 드러나고 있다. <魏志東夷傳> 기록에 변한과 진한의 철이 수출되는 지역으로 馬韓 濊 倭 및 郡縣을 들고 있다.⁶³⁾ 그 가운데 濊의 경우는 진한과 경계를 접하고 있음에서 보아 변한과 교역하는 것보다 진한과 교역하는 편이 교통상 더 유리할 것이다. 그것은 '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이라 한 기록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景初 연간에 曹魏가 군현을 매개로 하는 삼한과의 교섭대상을 재조정하였을 때 서해안과 남해안에 연하는 마한과 변한의 소국들은 帶方郡과 교섭하는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진한의 8國은 樂浪郡과 교역하는 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언급된 것은 '樂浪郡이 본

(59)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婆娑尼師今 23年 8月條.

(60) 이상 <魏志東夷傳> 韓傳.

(61) 李丙燾, 1959, <韓國史>(古代篇), 震檀學會, p.300.

(62) 宣石悅, 1996, <앞의 논문><加羅文化> 13, pp.78~79.

(63) <魏志東夷傳> 弁辰傳.

래 삼한의 소국들을 통할하였음으로써 이를 근거로 진한의 8개 소국은 樂浪郡의 교섭 권으로 설정하였다'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帶方郡 설치 이전인 後漢代에 樂浪郡만 존재할 때 삼한과 교섭한 전례를 토대로 한 조치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들 8국이 樂浪郡과 교섭하도록 조처를 취하려 한 것은 진한의 12국 가운데 주로 동해안에 연하여 위치한 것이므로, 동해안에서 남해안과 서해안을 거쳐 帶方郡과 교섭해야 하는 지리 교통상 불리한 상황이었다. 반면 동해안에 위치한 濊는 북쪽지역에서는 樂浪郡과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濊의 남쪽지역은 진한과 接界하고 있었다.⁶⁴⁾ 따라서 진한의 소국들은 鐵을 매개로 하여 濊와 교섭하였으며, 또한 濊를 매개로 樂浪郡과도 교섭을 전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진한의 12국 전체가 아니라 8국을 樂浪郡과의 교섭대상으로 하려 한 것은 辰韓지역의 소국 가운데 일부는 지리적인 여건상 변한지역의 交涉圈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辰韓지역에서 동해안을 통한 樂浪郡과 교섭을 주도한 유력 소국은 누구였을까. 동해안에 연하여 樂浪郡과 교섭할 수 있는 소국을 기록에 의해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문헌기록을 통하여 소국들과 그 위치⁶⁵⁾를 언급하면 《三國史記》에 보이는 것은 徐那伐(경주),⁶⁶⁾ 屈阿火村(울산),⁶⁷⁾ 于尸山國(울산)·居柒山國(동래),⁶⁸⁾ 音汁伐國(안강)·悉直谷國(삼척),⁶⁹⁾ 骨伐國(영천),⁷⁰⁾ 河西良國(강릉)⁷¹⁾ 등이며, 《魏志東夷傳》에 보이는 것은 斯盧國(경주)·勤耆國(영일)·優由國(울산) 등⁷²⁾ 이다. 이와 같이 양 기록에 보이는 소국을 비교할 경우 경주의 斯盧國과 徐那伐, 울산의 于尸山國⁷³⁾과 優由國과 같이 서로 부합되는 수가 매우 적다. 悉直谷國과 河西良國은 濊지역의 소국이

(64) 《魏志東夷傳》濊傳.

(65) 弁韓과 辰韓의 소국에 대한 위치비정을 집중적으로 다룬 논고는 다음과 같다.

李丙燾, 1934~1936, 《三韓問題의 新考察(1~4)》《震檀學報》, 1·2·4·5; 《앞의 책》

任昌淳, 1959, 《辰韓位置攷》《史學研究》 6.

金貞培, 1968, 《三韓 位置에 對한 從來說과 文化性格의 檢討》《史學研究》 20.

千寬宇, 1976, 《辰·弁韓諸國의 位置試論》《白山學報》 20; 1991, 《앞의 책》

(66)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 第1 始祖 赫居世居西干 卽位年條.

(67) 《三國史記》卷34, 地理志 第1 良州 臨關郡條.

(68) 《三國史記》卷44, 列傳 第4 居道傳.

(69)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 第1 婆娑尼師今 23年 8月條.

(70) 《三國史記》卷2, 新羅本紀 第2 助賈尼師今 7年 2月條.

(71) 《三國史記》卷36, 地理志 第3 溟州條.

(72) 《魏志東夷傳》弁辰傳.

고, 居柒山國은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狗邪國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三國史記》의 나머지 소국은 〈魏志東夷傳〉의 기록과 제대로 부합되지 않은데, 이는 현재까지 지명 비정상의 근거 자료가 부족하여 양 기록의 상관성을 밝혀내기가 곤란하다. 또한 〈魏志東夷傳〉 기록의 소국으로 언급되지 않은 《三國史記》 기록의 나머지 소국 가운데 진한지역의 小別邑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魏志東夷傳〉에서 辰韓은 처음에 6國에서 점차 12國으로 소국이 증가하였다⁷⁴⁾ 고 한 점을 감안하면 3세기 중엽 이후 이들 小別邑 가운데 소국으로 성장한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婆娑王代에 분쟁이 일어난 두 소국 가운데 悉直谷國의 위치는 강원도 삼척으로 비정되고, 音汁伐國은 경주부근의 안강에 비정되는 것으로서 이들 소국간에 영토 분쟁이 일어났다는 점은 상당한 의문이 따른다. 그런데 悉直谷國이 위치한 삼척에 가까운 何瑟羅(강릉)는 濊族의 古國⁷⁵⁾ 이라 하는데, 〈魏志東夷傳〉에 의하면 濊는 辰韓과 경계를 접한다고 함에서 보아 悉直谷國 역시 濊族 계통의 소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⁷⁶⁾ 3세기 중엽 이전에 濊族은 辰韓지역과 철을 매개로 교역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3세기 말엽의 시기에 이르러 이들이 남하하여 辰韓지역과의 교섭을 적극화 함에 따라 辰韓지역의 소국인 音汁伐國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분쟁은 단순히 영토분쟁이라기보다 철을 매개로 한 교역과정 상의 갈등으로 해석함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어쨌든 이들 辰韓 소국 가운데 동해안의 교섭을 주도한 것은 바로 석씨왕실과 박씨왕실이 세력을 결합한 斯盧國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반영해 주는 것은 昔脫解의 등장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昔脫解는 辰韓 阿珍浦에 도착한 후 세력을 양성하자 이에 斯盧國의 主帥와 혼인을 통하여 세력을 연계하였다. 울산지역은 기록상으로는 漢祗部로 되어 있고, 이를 지배한 昔氏세력은 朴氏·金氏의 세력과 더불어 울산·경주지역의

(73) 屈阿火村은 후대에는 竭火城이고(《三國史記》 卷48, 列傳 第8 勿稽子傳)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 일대에 비정되며, 울주구 웅촌면에 중심한 于尸山國의 소속 읍락으로 생각된다.

(74) 〈魏志東夷傳〉 辰韓傳.

(75) 《三國史記》 卷35, 地理志 2 溟州條.

(76) 眞興王 22(561)년 건립의 眞興王巡狩昌寧碑에 의하면 隨駕人物 가운데 직명이 [于抽悉直何西阿郡行使大等]이라 하여 울진(于抽) 삼척(悉直) 강릉(何西阿) 지역이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되었던 점은, 이들 지역이 그 이전부터 하나의 勢力圈이었음에서 연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三國史記》 地理志에서 統一期 九州의 하나인 溟州의 최남쪽의 군현인 有隣郡의 領縣인 清河縣(卷35, 地理志 3 溟州 有隣郡條)이 경북 흥해로서 音汁伐國 즉 안강지역과 인접함도 참고될 것이다.

핵심세력이었다. 두 소국이 세력을 결합한 것은 진한지역에서 그 위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昔脫解는 해상세력으로서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음에서 보아 斯盧國이 동해안의 교섭을 주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 3세기 후반의 소국분쟁사건에서 나타난 斯盧國의 위상은 그 이전부터 위와 같이 하여 존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斯盧國은 〈魏志東夷傳〉 단계에서부터 辰韓 - 濊 - 樂浪郡의 동해안 교섭을 주도하였고 〈晉書東夷傳〉 단계에서도 辰韓과 西晉의 교섭을 주도하였다. 위의 기록에서 悉直谷國과 音汁伐國이 斯盧國에게 분쟁의 해결을 요청하였다는 점은 〈晉書東夷傳〉에 반영되어 있는 3세기 후반 辰韓지역의 교섭체계는 斯盧國이 주도하고 있었음을 위의 《三國史記》 初期記錄에서도 역시 방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동해에 연한 소국인 悉直谷國과 音汁伐國이 쟁강하였다는 것은 음략 통제력 강화 이후인 〈晉書東夷傳〉 단계에 辰韓지역에서 소국간의 분쟁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또한 悉直谷國을 비롯한 濊族 지역은 辰韓六村 가운데 觜山珍支村 또는 觜山于珍村⁷⁷⁾에 해당하는 지역이므로, 이들 지역은 이 시기에 斯盧國을 중심으로 한 교섭체계 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濊族 계통의 소국인 悉直谷國은 3세기 중엽 이전부터 樂浪郡과 동해안을 통하여 교섭해 왔으나, 그 이후 西晉이 樂浪郡 등 동방 郡縣에 대한 정책이 약화되고 대신 遼西의 幽州 또는 東夷校尉府를 통하여 東夷 諸族과의 교섭을 전개함에 따라 斯盧國 주도하의 辰韓지역 交涉圈으로 편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 분쟁을 야기한 두 소국이 斯盧國에게 그 해결을 요청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辰韓의 斯盧國이 주변의 소국분쟁사건을 처리하지 못하여 金官國 즉 弁韓의 狗邪國을 통하여 해결한 점이다. 그러나 斯盧國이 분쟁의 해결을 다른 지역 交涉圈을 주도하는 유력 소국에 의뢰한 것은 斯盧國이 辰韓지역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하여 그 주도세력으로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交涉圈 내의 소국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狗邪國이 3세기 중엽 이전부터 弁·辰韓 지역의 유력한 소국으로 존속해 온 세력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斯盧國의 婆娑王이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주었던 狗邪國의 首露王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는 과정에서 六部가 모두 참석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의 六部는 신라국

(77)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赫居世居西干 卽位條의 視山珍支村 細註 [或云 干珍村]

가의 王京六部라고 볼 수 없는데, 그것은 건국설화의 六村이 斯盧六村이 아니기 때문이다.⁷⁸⁾ 즉 婆娑王代の 六部란 후대의 관념에 의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므로 斯盧國 내의 여러 읍락집단을 의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⁷⁹⁾ 小國主帥인 斯盧國王의 명령에 읍락집단의 세력이 모두 응하였다는 것은 소국의 邑落 통제력이 이미 강화되어 있었던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⁸⁰⁾ 앞장의 기년 재조정에 의하면 소국분쟁이 일어난 시기는 3세기 말엽의 婆娑王代이므로 3세기 중엽 脫解王代 이후의 일이다. 위의 사료에서 3세기 말엽 首露王을 위한 연회에서 漢祗部가 반발한 것은 이전의 사건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름아닌 B-3의 昔脫解와 首露王의 경쟁설화에 있었다.

이 와중에 일어난 사건이 C-1의 정복기사이다. 그에 의하면 정복 대상으로 동래의 居柒山國이 포함되어 있지만, 居柒山國은 이때 脫解王에 의해 복속되지 않았다. 居柒山國이 신라세력권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⁸¹⁾ 이들의 다양한 견해는 《三國史記》 新羅本紀의 初期記錄의 기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신빙론에 의하면 居柒山國을 동래로 보기를 부정하거나,⁸²⁾ 사료해석의 오류로 인하여 529년 이후 신라에 편입된 것으로 보기도 하여⁸³⁾ 동래지역이 1세기 후반 신라에 복속된 것을 부정하고 있다. 수정론에 의하면 3세기 중엽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하며,⁸⁴⁾ 진한소국의 정복시기는 3세기 말엽부터 4세기 중엽까지로 보면서도 居柒山國은 여기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⁸⁵⁾ 수정론의 입장을 참고하여 4세기 중엽에는 동래지역이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도 하고,⁸⁶⁾ 가야사의 입장에서

(78) 宣石悅, 1996, 〈앞의 학위논문〉, 제 III 장 제 1절 참조.

(79) 宣石悅, 1996, 〈新羅 六部制의 成立過程〉《國史館論叢》 69, pp.87~88.

(80) 여기서 斯盧國 소속의 읍락 가운데 하나인 漢祗部 즉 울산만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位卑者'를 보낸 것은 主帥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金官國에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된다.

(81)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朱甫暉의 〈4~5세기 釜山地域의 政治的 方向〉(1997, 《가야사 복원을 위한 복천동고분군의 재조명》, 부산광역시립복천분관)이 참고된다.

(82) 李鍾旭, 1982, 《新羅國家形成史研究》, 一潮閣

(83) 千寬宇, 1976, 〈앞의 논문〉; 1989, 《앞의 책》

(84) 姜鍾薰, 1997, 〈新羅 三姓 族團과 上古期의 政治體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5) 宣石悅, 1996, 〈앞의 학위논문〉

(86) 白承忠, 1990, 〈앞의 논문〉

朱甫暉, 1997, 〈앞의 논문〉

5세기 이후 후기가야연맹기에 신라권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⁸⁷⁾ 이와 같이 3세기 중엽 이전에 居柒山國의 신라 편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점은 모두 일치되고 있어 위의 사료 가운데 于尸山國만 脫解王에게 복속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居柒山國이 脫解王에게 복속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이 없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진한지역은 변한 狗邪國에 의해 대외교섭 상에 통제를 받아 왔는데, 그것은 사료 B-3의 경쟁설화에 보이듯이 3세기 전반에 昔脫解가 동남해안의 대외교섭 주도권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였음과 관련된다. 이와 같은 상황이 3세기 말엽에도 지속되었고, 이에 漢祗部가 반발하고 斯盧國이 세력을 강하게 결집하여 狗邪國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C-1의 정복을 행한 소국 가운데 于尸山國은 복속되었으나, 居柒山國은 狗邪國 주도의 交易圈으로 유지되었다. 이로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진한지역은 하나의 교역권으로 성립되었다. 이후 斯盧國은 진한지역의 대외교섭을 통제하고 여기서 이탈하거나 대항하는 소국에 대해서는 征服과 徙民을 통하여 강력하게 응징하였으며, 이같은 조처는 4세기 후반 新羅國家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2) 新羅의 地方統治와 雲化里古墳群

진한소국을 복속하여 성립된 新羅國家는 복속 소국을 통치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조처를 취하였다. 지방통치체제는 新羅國家의 성립을 전후로 세 단계를 거쳐 정비되어졌는데, 그것을 간단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단계는 4세기 후반 이후이다. 小國征服을 완료한 이후에는 服屬小國 지역과 정복을 수행하지 않은 辰韓六部 지역에 대한 통치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辰韓六部 지역은 기록상으로 보면 복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지배층은 대부분 온존하고 있었다. 이들 지역은 斯盧國에 대해 우위를 인정하면서 간접적인 통제를 받았다. 이에 반해 복속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파견하여 통치하였다.

제 2단계는 5세기 후반 이후로서 新羅는 辰韓의 전 지역에 대하여 직접적인 통치를 행할 수 없었지만, 이 단계에 이르러 전 영역에 걸쳐 이전의 소국지역을 단위로 거점 지역으로서 城·村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를 개시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지방통치는 道使에 의하여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道使와 村干 등 재지 지배층

(87)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과의 협력에 의한 지방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이행된 것이 소백산맥일대와 경북전역에 걸치는 築城事業이다. 이에 道使와 재지 지배층의 협력으로는 완수할 수 없어 중앙의 상급관리가 일시적으로 파견되어 관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新羅가 高句麗의 침입에 대비하는 한편, 지방통치체제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

제 3단계로서 505년의 州郡制 시행 이후 新羅는 전 지역을 邑落 단위로 세분하여 통치를 전개하게 되었으며, 이를 조직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이전의 道使 이외에 상급관으로서 軍主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재지 지배층의 경우에는 기존의 지배자인 村主層을 분화시키고 그 하부조직으로서 使人層까지 지방 통치체계에 편입하였다. 이와 같은 지방통치체제의 강화는 지배층이 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奈勿王代에 新羅國家가 성립한 이후 麻立干을 정점으로 소국지배자 출신을 서열화하고 慈悲王代 이후 국가 지배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하면서 干群官等과 실무자집단인 典事人을 奈麻라는 官等에 두었다. 州郡制 시행 이후에 이르러 중앙지배층의 서열로서 京位 17等과 지방지배층의 서열로서 外位 11等이라는 官等體系를 확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지배체제 정비는 小國征服 이후인 麻立干時期에 이행되어 왔던 것이며, 6세기 전반 중앙집권화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울산지역의 경우 지방통치를 위해 편제되었는데, 관련 사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D-1 東安郡 本生西良郡 景德王改名 今合屬慶州 領縣一 虞風縣 本于火縣 景德王改名 今合屬蔚州⁽⁸⁸⁾

D-2 臨關郡 本毛火(細注: 一作蚊化)郡 聖德王築城 以遮日本賊路 景德王改名 今合屬慶州 領縣二 東津縣 本栗浦縣 景德王改名 今合屬蔚州 河曲(細注: 一作西)縣 婆娑王時 取屈阿火村置縣 景德王改名 今蔚州⁽⁸⁹⁾

D-3 良州 文武王五年 麟德二年 割上州·下州地 置敵良州 神文王七年 築城 周一千二百六十步 景德王改名良州 今良州 領縣一 蠟陽縣 本居知火縣 景德王改名 今因之⁽⁹⁰⁾

자료 D-1에 의하면 신라 통일기 景德王代에 개명되기 이전에서 보면 生西良郡이

(88) 《三國史記》 卷34, 地理志 1 良州 東安郡條.

(89) 《三國史記》 卷34, 地理志 1 良州 臨關郡條.

于火縣의 상급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신라가 이 지역을 편제한 이후의 상황을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이와는 반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于火縣은 于尸山國 또는 優由國이 있었던 곳으로서⁹¹⁾ 삼한시기에는 于火縣이 소국의 중심지로 되어 있었을 것이며, 生西良郡은 그에 소속된 읍락들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영천의 骨伐國의 경우에도 국읍이 있었던 곳은 臨川縣으로 격하하고 다른 읍락을 군으로 삼고 있는 점,⁹²⁾ 창녕의 比子伐國의 경우에도 복속당한 이후 국읍과 읍락의 지위가 바뀌어진 것이 있다. 이는 신라 중앙에서 볼 때 전략상의 이유로 등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⁹³⁾

사료 D-2에는 毛火郡에 栗浦縣과 河曲縣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는 울산만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서 昔脫解가 가지고 있었던 세력근거지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河曲縣은 위 사료에서 보이듯이 婆娑王이 취하였다고 함에서 보면 그 이전에는 석씨집단의 세력 범위로 되어 있다가 경쟁세력인 박씨왕실의 세력 범위로 바뀌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료 D-3에는 울산서북부에 위치한 언양의 居知火縣이 良州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는 일찍이 斯盧國에 편입되었다가 朴堤上이 양산지역으로 진출한 이후 교통이나 전략상 良州 소속으로 편제하였을 것이다.

위의 사료를 통해서 볼 때 昔脫解는 D-2의 울산만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인접한 D-1의 于尸山國을 복속하였고, 이들 울산서남부지역을 기반으로 박씨집단과 세력경쟁을 하였을 것이다. 또한 박씨왕실은 斯盧國의 경주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석씨집단과

(90) 《三國史記》 卷34, 地理志 1 良州條.

(91) 優由國의 위치에 청도설(李丙燾, 1936, <앞의 논문(4)>《震檀學報》 5; 1976, 《앞의 책》, p.276), 울진설(千寬宇, 1976, <앞의 논문>《白山學報》 20; 1991, 《앞의 책》, pp.83~85) 등이 있어 왔다. 그러나 《三國史記》에는 울산지역의 소국을 '于尸山國' 또는 '于柚村'(同卷45, 列傳 第5 昔于老傳)이라 부르는 점, 《日本書紀》에 '宇流助富利智干'(同卷9, 神功 攝政前紀 12月 一云條) 즉 宇流의 助富利智干(舒弗那)이라 하는 宇流 등에서 優由國이나 于柚村과 相通하는 지명들이 보인다. 특히 宇流는 인명으로 보고 昔 '于老'와 동일인으로 보는 것(三品彰英, 196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上, p.74)은 의문인데, 이는 사실성이 결여된 《日本書紀》의 사실을 《三國史記》에 가탁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어쨌든 위의 기록은 울산지역에 소국이 존재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勤耆國의 위치에 대해서는 영일지역으로 보는 설(千寬宇, 1976, <위의 논문>; 1991, 《위의 책》, pp.73~75)을 따른다.

(92) 《三國史記》 卷34, 地理志 1 良州 臨阜郡條.

(93) 宣石悅, 1995, <昌寧 桂城古墳群 出土 土器 銘文의 檢討 -특히 '大干'을 중심으로- >《昌寧桂城古墳群》, 釜山大學校 博物館.

세력을 경쟁하였을 것이며, 婆娑王代 이후에는 河曲縣을 확보하여 이전보다 나은 세력 경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군현의 위치를 현재 지명으로 비정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毛火郡은 경주와 울산의 경계지점에 해당하고 栗浦縣과 河曲縣은 울산만을 경계로 두고 울산시를 포함하여 남북으로 위치하는데, 栗浦縣은 울산만 북안쪽의 울산시지역이고 河曲縣은 屈阿火村(竭火城:범서면)을 포함하여 울산만 남안쪽 일대로 추정된다. 生西良郡은 于尸山國의 일반 읍락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서생면 온산읍 온양면 일대를 포괄하고 于火縣은 于尸山國의 국읍으로서 웅촌면으로 추정되어진다.

D-1의 于尸山國은 3세기 전반 脫解王에게 복속당하였지만 곧 바로 지방통치를 위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 아니라, 脫解王의 세력근거 가운데 하나로서 상당기간 존속되었을 것이다. 于尸山國의 중심지역인 울산광역시 울주구 웅촌면에는 여러 분묘군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대대리의 경우 下垔遺蹟에서는 이 지역에서의 대형급인 木槨墓가 3~4세기대에 보이다가 이후 5세기대의 中垔遺蹟에서는 小型石槨이 밀집 분포되고 저리유적에서는 5~6세기대의 石槨墓와 大型封土墳이 확인되고 있는 등 묘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울산지역에 한정해 볼 경우 이러한 변화상은 일반적인 양상이다. 4세기대 무렵의 木槨墓는 웅촌면의 下垔遺蹟을 비롯하여 청량면 良洞遺蹟, 온양면 三光里遺蹟 등이 있다. 5~6세기대의 경우 선행하는 豎穴式石槨墓는 온양면 雲化里古墳群을 비롯하여 웅촌면 中垔遺蹟, 온산읍 華山里古墳群 등이 있다. 이들 중 雲化里古墳群의 豎穴式石槨墓가 울산지역에서는 가장 대형급이다. 다음 積石木槨墓는 良洞遺蹟만 알려져 있으나 雲化里古墳群에서도 축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6~7세기대의 경우 橫穴式石室墓는 良洞遺蹟과 華山里古墳群이 있고 그리고 雲化里古墳群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橫穴式石室墓는 良洞遺蹟과 華山里古墳群, 그리고 雲化里古墳群에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면 울산지역은 시기별로 다음과 같은 세력판도의 변화를 추정해 볼 수 있다.

4세기 이전의 경우 3세기 전반경까지는 울산지역은 두 개의 세력권으로 나눌 수 있다. 서남부지역은 于尸山國의 세력권으로서 그 중심지역은 下垔遺蹟으로 대표되는 웅촌면일대가 국읍에 해당하며, 소속 읍락은 청량면 온산읍 서생면 온양면 등이 있었을 것이다. 동북부지역은 울산시지역을 포함하여 범서면 농소면 강동면 등지에 昔脫解의 세력권이 자리잡고 있어 斯盧國의 소속으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4세기대에 이르면 특징적인 것으로서 細長한 형태의 慶州型 木槨墓라 하는 묘제가 경주뿐만 아니라 울산지역의 청량면 良洞遺蹟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는 3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脫解王의 于尸山國 정복과 婆娑王의 屈阿火村 복속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울산지역은 斯盧國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斯盧國이 진한 소국을 정복한 단계에는 墓制의 변화가 곧이어 일어나지 않는데, 그와 달리 울산지역의 경우 복속에 이어 斯盧國의 墓制가 적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斯盧國 인근에 위치한 于尸山國의 일부 지역이 斯盧國의 직접 통제 아래에 들어간 때 문으로 생각된다.

5세기 이후 옛 于尸山國 지역은 재지의 복속집단이 세력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 于尸山國의 읍락이었던 온양면 雲化里古墳群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5세기 후반경에 축조된 雲化里古墳群의 竪穴式石槨墓는 울산지역의 竪穴式石槨墓 가운데 가장 대형묘에 해당하는데, 웅촌면 中垜遺蹟, 온산읍 華山里古墳群 등의 竪穴式石槨墓는 규모가 소형인 점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료 D-1의 生西良郡條에 보면 국읍지역이었던 웅촌면은 生西良郡의 領縣인 于火縣으로 격하 편제되어진 반면 옛 于尸山國의 일반 읍락이었던 지역이 郡으로 승격되어졌다. 5세기 후반 당시에는 郡과 縣이 설치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 신라의 지방통치체계에 비추어 볼 때 옛 소국을 하나의 단위로 전략상 주요 지역을 거점으로 설정하였던 것이 문헌기록에서는 郡이나 縣으로 기재되었을 것이다. 이 시기의 良洞遺蹟에는 신라 지배층의 전유 묘제인 積石木槨墓가 확인되고 있어 이 지역이 신라 중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유적의 상당 부분이 파괴 도굴되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竪穴式石槨墓에서 橫穴式石室墓까지 연속적으로 축조되고 있는 雲化里古墳群에서도 積石木槨墓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雲化里古墳群과 良洞遺蹟을 관련지을 수 있는데, 이 두 지역은 신라 지방통치상의 주요 거점으로 설정되었을 것이다. 특히 雲化里古墳群은 良洞遺蹟보다 신라의 외곽지대이며 해안에 가까운 지역으로 정치적 군사적 전략상의 조건이 좋은 곳이므로 6세기 이후에도 신라의 지방통치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갔을 것이다.

(4) 맺음말

昔脫解의 出自에 대해서는 북방유이민계통이라는 견해가 통설이지만 그 근거를 《隋書》 新羅傳에 두어 신라왕실의 기원을 북방유이민으로 규정한 견해 가운데 특히

백제계통의 이주집단으로 상정한 견해는 성립될 수 없었다. 《隋書》新羅傳 기록의 원전이 되는 《魏志東夷傳》辰王傳의 辰王 기록은 辰王과 辰韓의 관계가 아니라 對郡縣交涉의 대표자인 辰王과 弁韓과의 통속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晉書東夷傳》辰韓傳에서는 진한과 변한의 종속관계로 잘못 서술한 것이며, 《梁書》新羅傳은 《晉書東夷傳》辰韓傳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隋書》新羅傳은 《梁書》의 6세기 신라 상황 기록을 감안하면서 신라왕실의 기원을 마한의 후신 즉 백제지역에서 쫓겨 진한지역으로 이주한 집단으로 상정해버렸던 것이다. 따라서 신라왕실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보의 수집이 어려웠던 타국의 사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라의 전승기록이 전해져 사서로 완성된 계승왕조의 사서인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서 찾아야만 보다 정확하게 추구되어지는 것이었다.

昔脫解는 斯盧國 중심세력에서 밀려나 외곽지역인 아진포로 세력 근거지를 옮긴 이후 다시 세력을 키워 울산만을 중심으로 하여 토함산에 이르는 지역을 세력 범위로 확보하였다. 이후 昔脫解는 斯盧國의 주도세력인 박씨왕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세력을 신장하였고, 결국 왕위를 경쟁할 수 있는 정치적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昔脫解는 박씨왕실과 병존한 독자적인 왕실을 구축하였고, 이후에도 세력을 더욱 신장시켜 나아가 울산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석씨왕통을 수립한 시조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斯盧國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한 脫解王은 세력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狗邪國 首露王과의 경쟁이나 居柒山國과 于尸山國의 정복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脫解王은 首露王보다 세력기반이 열세에 있었으므로 울산서남부의 于尸山國을 복속하는 데 그쳤지만, 이같은 세력기반의 확충은 脫解王 이후의 석씨왕실집단이 진한 소국의 정복 등과 같이 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4세기 중엽을 분기로 斯盧國은 진한 소국의 정복사업을 완료하고 복속소국에 대한 간접통제, 소국 단위의 거점 설치에 의한 직접통제, 주군제 실시에 의한 직접지배라는 3단계의 지방통치체제의 정비를 수행하였다. 울산지역의 경우 간접통제와 직접통제가 시기적으로 한 단계 빨리 전개되어 갔는데, 이는 경주지역과 인접한 요인도 있었지만 昔脫解의 세력기반이었기 때문이었다. 울산지역의 서남부에 위치한 于尸山國은 신라 중앙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적용되어 옛 국읍지역보다 지리적으로 이점을 가진 읍락지역을 주요 거점으로 설치하였다. 특히 雲化里古墳群은 5세기 후반 옛 于尸山國지역의 주요 거점으로 설정되어져 신라의 지방통치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추정

되었다.

앞으로 울산지역의 고대 유적이 보다 많이 조사되면 于尸山國의 존재양상이나 昔脫解의 세력기반 확대, 그리고 복속 이후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단계적 진전 상황이 구체적으로 해명되리라 전망하는 바이다.

IV. 보존·정비의 필요성과 방향

1960년대를 거치면서 近代化의 美名 아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文化遺蹟들이 흔적도 없이 소멸되었다. 당시의 어려운 경제여건상 文化遺蹟에 대한 관심은 극히 微微한 수준이었으며 극소수의 뜻있는 사람들만이 이를 안타까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골몰할 뿐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慶州의 天馬塚, 皇南大塚 등의 조사과정을 통하여 文化遺蹟의 중요성이 급속도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80年代 이후 文化財에 대한 시각은 일부 王陵級 遺蹟에 국한되지 않고 韓半島의 歷史를 알 수 있는 전체 유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新羅의 古都 慶州 및 百濟의 首都가 있었던 公州, 扶餘지역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찬란한 역사의 흔적들이 복원되고 정비되어 국민들의 산 교육장이 되었다. 최근에는 百濟圈整備事業이 충청도일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新羅의 古都 慶州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지역편중의 정비사업이 일정한 균형을 갖추면서 우리나라 古代文化의 우수성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文化遺蹟에 이러한 대한 정비사업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역사적 자료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遺蹟의 整備事業이 단순히 新羅와 百濟의 古都가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만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伽耶圈에 대한 調査成果와 이를 통한 많은 연구성과에 힘입어 중요한 유적들이 속속 정비되고 있으며, 이 중 몇몇유적은 展示館까지 만들어져 국민들을 대상으로 당시 사회의 귀중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日本의 경우 단일유적에 대한 정비가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어 지방자치단체하에 많은 展示館, 資料館, 記念館들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吉野ヶ里(요시노가리)遺蹟은 蔚山地域의 檢丹里遺蹟과 비교될 만한 遺蹟으로 완전히 整備되어 日本人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여행중에 찾아갈 정도로 잘 알졌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잘 정비된 文化財는 단순히 教育的 次元에서 가치뿐 아니라 觀光資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중요한 유적의 정비사업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문화정책의 한축으로 자리 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1. 유적 정비사례⁹⁴⁾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의 단일유적 가운데 學術的 重要性이 감안되어 유적의 일부가 정비되어 교육적 자료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곳을 중심으로 그 의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1) 東萊 福泉洞古墳群(圖面 24, 圖版 24, 25)

【지정사항】 : 사적 273호(1981년 6월 9일 지정)

【유적종류】 : 고분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50번지 일대

【시대】 : 삼국 시대

【유적내용】

현재의 東萊 중심가 북쪽에 반달 모양으로 에워싸고 있는 속칭 대포산의 중앙부에서 서남쪽으로 길게 뻗어나온 구릉상에 위치하는 釜山의 가장 대표적인 고분군이다. 본 고분군이 조영되어 있는 구릉은 가장 높은 곳이 標高 62.5m, 지금의 서남단이 標高 약 45m이며,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완만하게 낮아지는 지세를 띤다. 현재는 이 구릉의 길이가 약 700m, 폭은 80~100m 가량이지만, 원래는 현재의 동래 시장 부근까지 이어진 꽤 긴 구릉이었다고 한다. 이 구릉은 일명 鶴巢臺라고도 한다.

1969년 주택 공사로 이 고분군의 일부가 파괴되어 알려진 후 1969년부터 1974년에 걸쳐 東亞大學校 博物館에 의해 10기의 분묘가 조사되고, 이어 1974년 이후 수 차례 걸쳐 釜山大學校 博物館, 부산시립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福泉洞古墳群의 영조는 수장묘를 기준으로 하면 대체로 5세기 중엽에 종료된다. 분묘 입지 조건으로 보아 10, 11호분이 본 유적에 있어서 최후의 수장묘인 것으로 판단되며, 금동관이 나온 동아대학교 박물관 발굴 조사의 1호분은 규모와 부장품의 질과 양으로 볼 때 5세기 후엽의 수장묘로 판단할 수 있으나, 구릉 하단의 서쪽 사면에 축조된 입지 조건으로 보아 수장묘라기보다는 수장급묘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유적에 있어서 지배 집단 무덤의 조영은 대체로 5세기 중엽에 종료된 것으로 보아도 좋다. 수장묘가 아닌 분묘는 5세기 중엽 이후에도 구릉 능선부의 공간과 사면에 계속 영조되고 있으나, 이들도 대체로 5세기 후엽에는 끝난다. 이후의 이 지배자 집단의 분묘는 東萊 蓮山洞古墳群 지역으로 옮겨진다.

墓制는 木槨墓와 豎穴式 石槨墓의 2종인데, 대형묘 중에는 주곽과 일자형이 되게

(94) 본 내용은 국립 문화재 연구소에서 배포한 『문화유적총람(CD)』 제 1, 2, 3집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편집한 것이다.

목곽 형식의 독립된 부곽이 딸린 것이 있다. 대형묘를 기준으로 하면 연대 추이에 따라 주곽, 부곽이 모두 목곽묘-주곽(또는 室)이 수혈식 석곽, 부곽은 목곽-부곽이 폐지된 단독의 수혈식 석실묘로의 변화가 뚜렷하게 간취된다. 주곽의 내부 주체가 목곽에서 수혈식 석실로 대체되는 최초의 예는 21, 22호분이며, 5세기 전엽의 연대가 상정되고 있다. 이러한 형식에서 부곽이 없어지고 細長한 豎穴式 石槨墓로 되는 것은 동시대 발굴 조사의 1호분과 부산대 조사의 15호분부터이며, 5세기 중엽에서 후엽에 걸친 일로 생각된다. 소형분의 경우 본 유적에서는 대체로 5세기 중엽에 내부 주체가 목곽에서 수혈식 석곽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는 동래 복천동고분군의 주변 고분인 북구화명동고분군, 혹은 김해 지역에서는 4세기 중엽 혹은 후엽에 소형분에서 먼저 정형화된 豎穴式 石槨墓가 출현하고 있는 점과는 매우 대조된다.

출토 유물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다. 토기류는 高杯, 長頸壺, 短頸壺, 鉢形 器臺, 筒形 器臺, 土製 燈臺, 馬頭形角杯, 小形 圓底廣口壺, 小形 器臺 등 그밖의 다양한 기종들이 있다. 이들 토기들로 보아 늦어도 4세기 중엽에는 이웃한 金海와 지역성이 강한 동일 문화권을 이루었음이 판명되고 있다. 이것은 그밖의 유물 이를테면 甲冑 등의 考古 資料를 고려하면, 정치적으로 4세기부터 동일 정치권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철기류는 鐵斧, 鐵刀子 등의 工具類, 鐵鏃, 環頭大刀, 鐵鏃 등의 武具類, 有刺利器와 같은 儀器類, 短甲, 甲, 투구, 馬冑 등의 甲冑類, 재갈, 杏葉, 鎧子, 鉸具 등의 馬具類 및 鐵鋌 등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그밖에 金銅冠, 筒形銅器 등의 儀器類도 출토된다.

한편 東萊 福泉洞古墳群은 구릉에만 분묘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평지에도 분묘가 축조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평지에는 최근 영남 각지의 발굴 조사 성과에 따르면 삼국 시대 이전인 삼한 시대 특유의 묘제인 목관묘가 다수 영조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후 지금의 동래 시장 부근 등에 형성되어 있을 이러한 목관묘마저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면 동래 복천동 유적이야말로 기원 전후부터 5세기대까지 우리 나라 고대사상의 제문제를 해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래 복천동 고분군은 지금까지의 발굴 조사 성과를 보는 한 가야 자체의 역사와 문화의 복원은 물론, 우리 나라 고대사의 규명, 나아가 고대 한일 관계사의 해명에 으뜸가는 중요한 유적임이 틀림없다.

현재 부지 면적 약 1만 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의 전시관과 6,800평의 고분군 조성, 730평의 주차장 조성 사업을 완료되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2) 高靈 池山洞古墳群(圖面 25, 圖版 26, 27)

【지정사항】사적 제79호(1963. 1. 21. 지정)

【유적종류】고분(삼국시대고분)

【소재지】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 8

【시대】삼국시대(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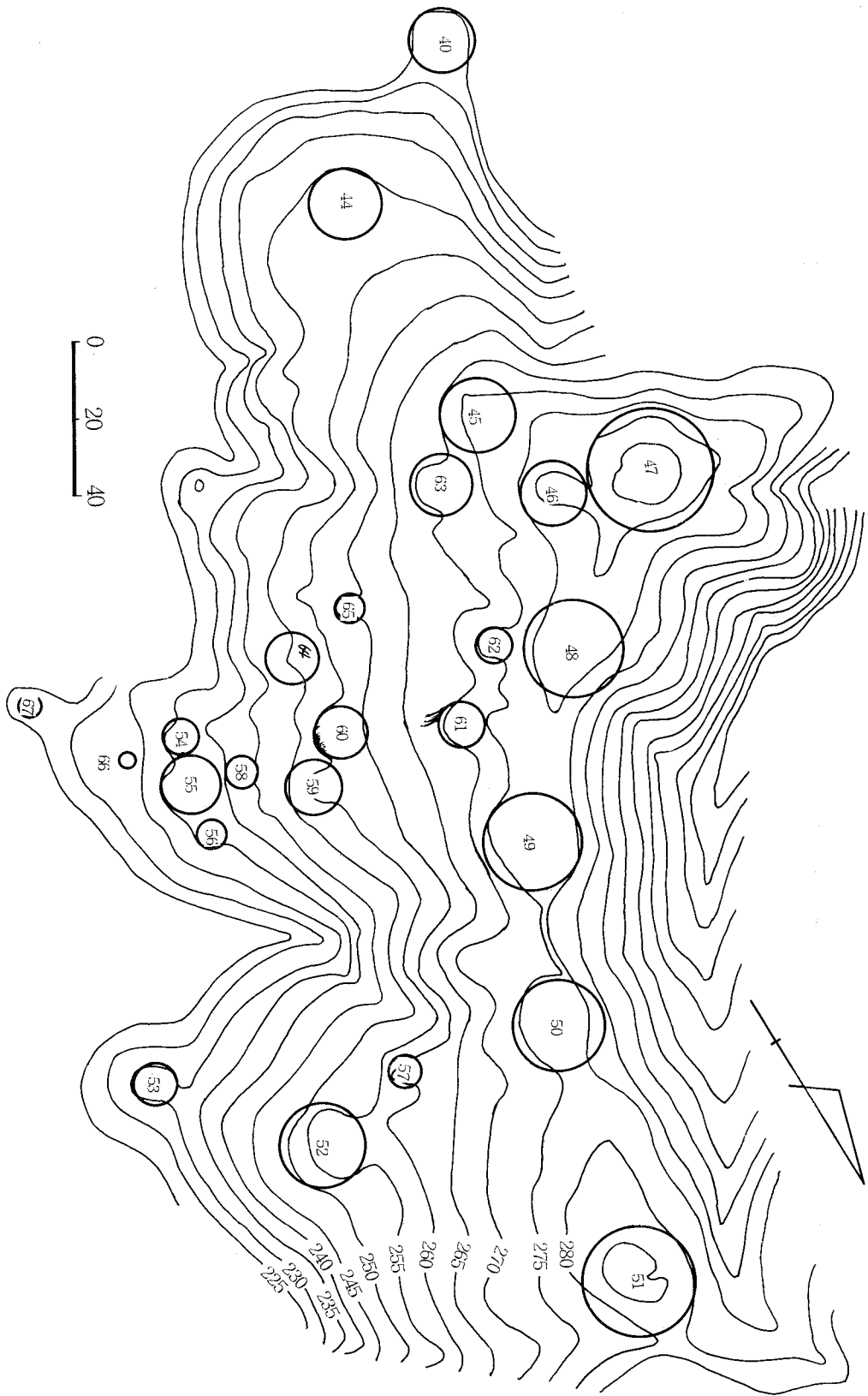
【유적내용】

池山洞古墳群은 高靈의 진산(鎭山)인 주산(主山)의 남주척릉(南走脊稜)과 읍내쪽의 가지능선, 그리고 거창행 국도가 지나가는 덕곡재를 넘어 고아동일대까지를 포함하여 산재하는 고분들을 말한다. 주로 대형분은 남주척릉상에, 중형분은 읍내쪽으로 뺀어내린 가지능선의 척능에 소형분은 중·대형분의 주위나 고분군의 전지역에 고루 분포하는데 결국 가지능선의 정부(頂部)를 중심으로 한 소군집분(小群集墳)들이 모여 지산동 대고분군을 이루고 있다.

묘제는 수혈식의 석곽, 석실로 석곽묘는 할석 또는 판석으로 축조하되 혼용한 경우도 있으며 석실묘는 모두 할석으로 축조하였다. 평면이 대개 장방형이며 단면이 약간 내경하는 소위 약한 제형(梯形:사다리꼴)을 이루고 있다. 봉토는 석곽이나 석실의 장축방향으로 약간 긴 타원형을 이루되 석곽묘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護石을 갖추고 있다.

또한 32·35, 44·45호분 발굴을 통해 대가야시대의 殉葬墓制의 형태가 밝혀지기도 하였다. 44·45호분에서 高杯, 長頸壺, 器臺, 把手附有臺杯, 把手杯 등의 土器類와 金, 銀, 金銅製耳飾, 靑銅環 등의 裝身具와 鏡子, 杏葉, 雲珠, 靑銅製馬具 등의 武裝具와 棺釘, 격쇠, 철부 등이 출토되었다. 32·35호분은 高杯, 長頸壺, 短頸壺, 蓋杯, 有空廣口小壺, 把手附有臺壺, 紡錘車, 盒 등의 土器類와 金銅冠, 金銅製耳飾 등의 裝身具와 武具類, 棺釘, 격쇠 등이 출토되었으며 해당 발굴보고서에 그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위의 각 유물은 현재 高靈郡의 大伽耶展示室, 慶北大博物館, 啓明大博物館에 보관, 전시중이며 이외의 출토품은 고령전시실에 전시중이다. 지산동고분군에서 출토된 많은 유물들은 발굴조사에 참여했던 기관에 보관되고 있지만 고령군의 대가야전시관에 도 일부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圖面25 高靈 池山洞古墳群 遺構配置圖

(3) 昌寧 校洞古墳群(圖面 26, 圖版 28)

【지정사항】사적 제80호(1963. 1. 21 지정)

【유적종류】고분(석실분)

【소재지】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산 5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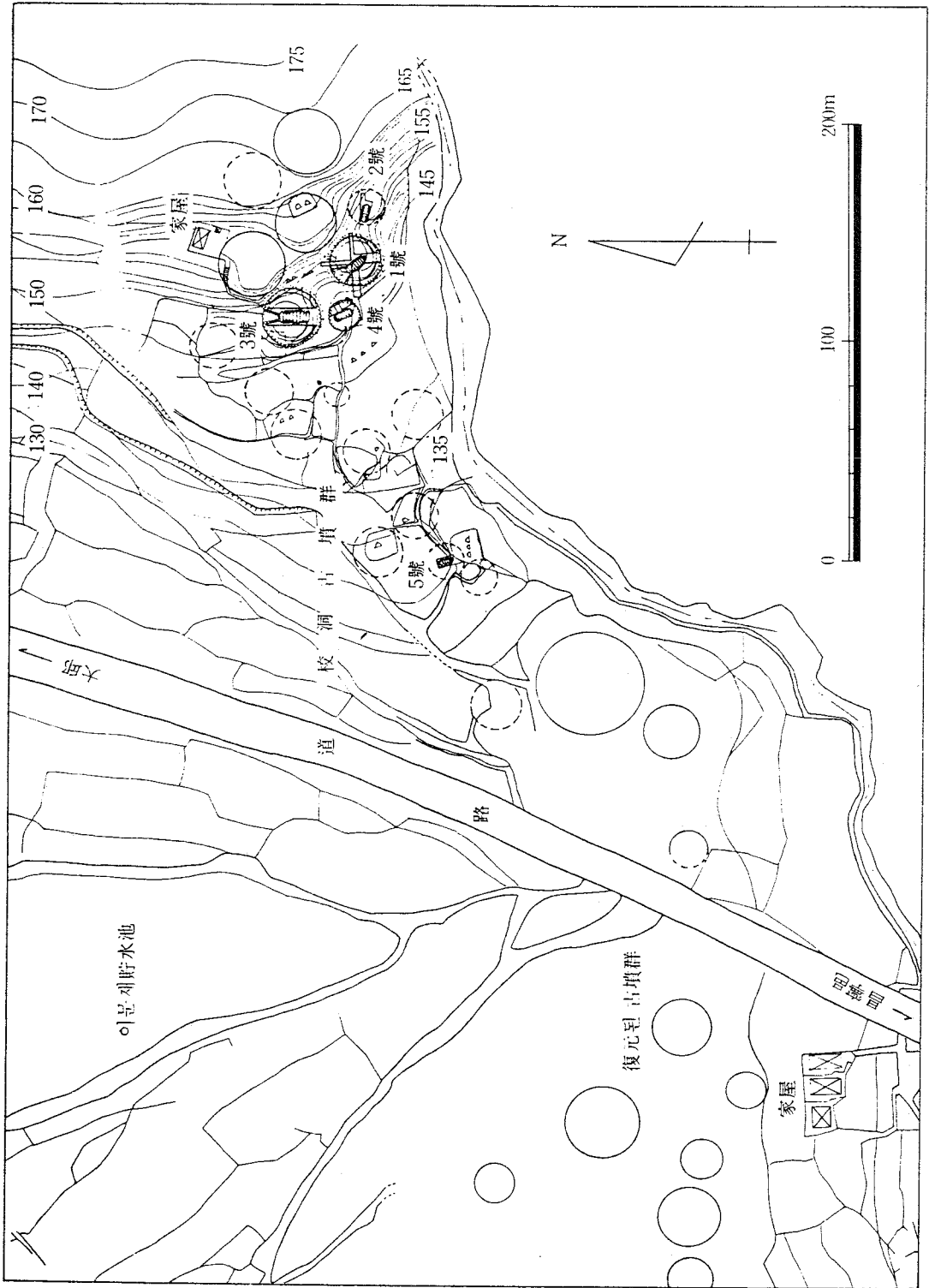
【시대】삼국시대

【유적내용】

校洞 산 5번지에는 王陵이라 불리고 있는 大古墳(校洞 제7호)을 중심으로 대소 70여기의 고분들이 군집하여 있었는데 지금은 8기만 남아 있고 봉토의 파손이 심하다. 이 지방에 분포하는 고분군은 창녕읍의 동쪽 목마산(牧馬山) 기슭의 송현동(松峴洞) 구릉에서부터 읍의 북쪽 교동의 고지에 이르기까지 흩어져 있다.

이 지방의 고분들은 1918년에 교동의 5, 6, 7, 8, 9, 10, 11, 12, 21, 31호분과 송현동의 89, 91호분이 발굴되었는데 이때 마차 20대, 화차 2량분의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하나 그 보고서도 나오지 않았고 유물의 일부도 행방이 애매하게 되었다. 당시 발굴하지 않았다는 교동 4, 9호분의 유물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인 1918년에 교동 21호, 31호분이 별도로 발굴되고 그 결과가 1918년 『古蹟調査報告書』에 발표되었는데, 이것이 당시의 창녕 고분군에 대한 유일한 조사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 기록과 다른 자료에 의하면 창녕의 고분은 교동 12호분이 경주의 고신라(古新羅) 고분과 같은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인 것 이외에는 모두가 장방형의 횡구식석곽묘(橫口式石槨墓)인 듯하다. 31호분의 경우 그 크기가 길이 5.4m, 폭 1.5m, 높이 1.8m이며 그 구조는 장방형 횡구식으로 석실의 중앙에는 석관대(石棺臺)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경주 보문리(普門里), 양산(梁山) 부부총(夫婦塚)등에서 보이는 것과 같고 석실의 입구가 남쪽이 아니라 서북쪽에 위치한 것이 특이하다. 이 31호분에서 출토된 高杯(高杯)들은 대부분이 신라형식으로 그 시기는 6세기 후반이나 7세기 전반경으로 추측된다.

창녕 교동고분군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출토유물에 대한 교육적 가치에 따라 단순한 봉분의 복원뿐만 아니라 출토유물의 전시를 위한 창녕유물전시관이 개관되었다. 창녕유물전시관은 소규모의 유물전시관으로 창녕군지역의 유적들과 유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1992년 부지를 확보하고 1993년 건축공사가 시작되어 1994년 완료되었으며 1994년부터 전시시설공사에 착수하여 1996년 3월에 개관하였다. 시설은 부지면적 4,881㎡, 지상 1층 730㎡, 지하 1층 464㎡의 소규모 전시관이다.



圖面26 昌寧 校洞古墳群 遺構配置圖

(4) 咸安 末伊山古墳群(圖面 27, 圖版 29)

【지정사항】사적 제85호

【유적종류】고분(석실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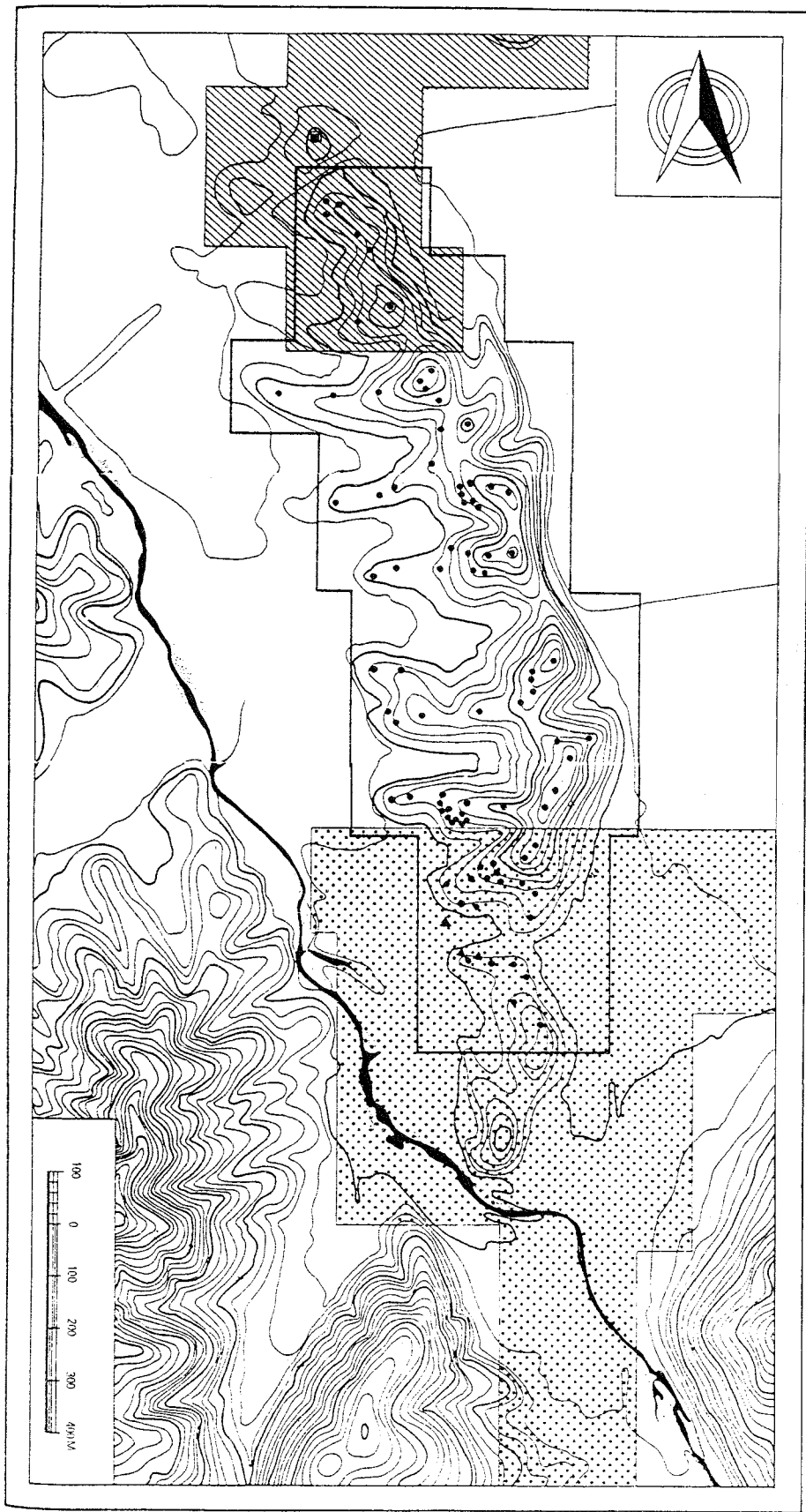
【소재지】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시대】삼국시대

【유적내용】

함안의 중심지로서 가야읍의 서쪽 남북으로 뻗은 가늘고 긴 구릉위에 외형상 원형 봉토분 50여기가 연이어 분포하고 있는데, 이 고분군은 행정구역상 도항리 고분군과 말산리 고분군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 일대에는 약 113여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는데 도항리 고분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말산리에 포함되는 고분은 봉분이 뚜렷한 7기의 고분(봉분이 뚜렷하지 않는 것이 5기) 지나지 않는다. 현재 가야읍 아라공원내에 있는 외형이 가장 큰 무덤(당시 34호, 지금 4호)이 1911년 일본인 금서룡(今西龍)에 의해 발굴 조사되어 무덤 내부 구조와 성격이 밝혀지게 되었다. 당시 조사된 내용에 의하여 봉토의 높이가 약 10m, 무덤의 밑지름이 약 43m의 외형을 보이고 있었고 내부에는 석실을 만들어 시체를 위에서 내려놓고 여러 개의 판석을 잇대어 덮어 만드는 수혈식 석실묘(豎穴式石室墓)임이 밝혀졌다. 석실은 길이 약10m, 너비 1.6m, 높이 1.7m의 규모였으며 석실의 네벽은 모두 활석을 사용하여 쌓아 올렸다. 특이한 것은 동, 서의 긴 벽에 각 2개소, 북쪽의 짧은 벽에 1개소 등, 모두 5개소에 작은 벽장을 마련하였다. 유물은 남아 있지 않아 벽장의 용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등잔을 올려 놓아 무덤 내부를 밝히는 燈龕으로 보인다. 벽에는 회칠을 하지 않았으나 못이 박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림을 그려 놓은 커튼 형태의 채화장막(彩畫帳幕)을 드리웠던 것으로 추측된다. 석실 내에서는 토기를 비롯하여 많은 유물이 출토 수습되었다. 출토유물은 거륵식(車輪式)토기, 행엽(杏葉), 조형(鳥形)토기 등을 들 수 있다.

말이산고분군은 50여기의 봉분을 중심으로 정비되어 있는데 봉분들 사이로 산책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특별한 전시시설은 없으며 출토된 유물은 창원 문화재연구소에 보관중이다.



圖面27 威安 末山里古墳群 遺構配置圖

(5) 宜寧 中洞里古墳群(圖面 28, 圖版 30)

【지정사항】〈지정사항 없음〉

【유적종류】고분(삼국시대고분)

【소재지】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산 6번지

【시대】삼국시대

【유적내용】

1호분은 橫穴式石槨墓이며, 단벽장벽의 길이의 비율이 1:6.9에 달하는 극단적인 細長方形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야의 늦은 시기에 축조된 고분임을 알 수 있다. 盜掘坑內에서는 1점의 蓋와 2점의 高杯片이 발견되었는데 蓋는 석곽내의 교란 토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본 고분의 매납품일 가능성이 높지만 2점의 高杯片들은 석곽밖의 봉분(封墳)의 도굴갱내에서 발견되었으므로 1호분의 부장품이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출토유물 중에는 장식마구(裝飾馬具)도 있다. 조선시대의 민묘에 의해 태반이 파괴되었으나 다행히 남아있는 부분을 참고로 복원하면, 일반적인 가야의 소형 황혈식석곽묘와는 달리 석곽 안에 부장유물을 포함하지 않은 석곽이 만들어져 있는 다소 특이한 구조를 가진 유구이다. 출토되는 토기는 모두 陶質土器로서 蓋杯와 高杯, 長頸壺, 罍形土器, 大壺이다.

조선시대의 토광도 확인되었는데 1호분의 봉분과 1-1호분의 석곽을 파괴하면서 만들어졌다. 특별한 구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구의 주축방향이 등고선과 직교하고 있는 것에서 가야시대의 무덤들과 차이가 난다.

제4호분은 황혈식석실묘로서 장폭비 1:3.1의 장방형의 현실에 짧은 연도가 달린 유구이다. 4호분에서는 棺釘과 관고리, 具와 혁금구와 같은 馬具만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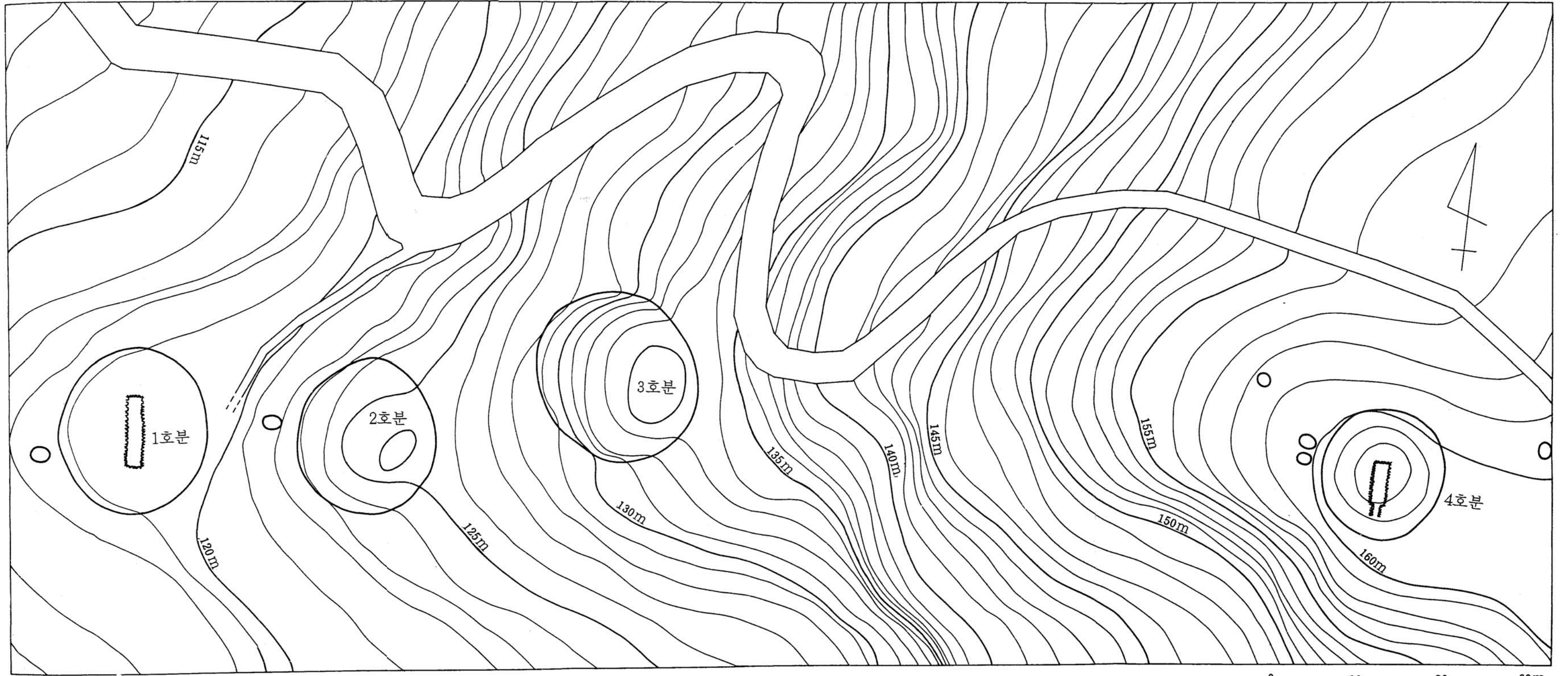
중동리고분군은 의령군의 문화유적 보존차원에서 조사된 유적으로 발굴조사후 봉분을 복원하여 정화사업을 실시하였다. 전시공간은 확보되지 않았으며 출토유물은 경상대학교 박물관에서 보관중이다.

(6) 陝川 玉田古墳群(圖面 29, 圖版 30)

【지정사항】사적 제326호(1988. 7. 28. 지정)

【유적종류】고분(삼국시대고분)

【소재지】경상남도 함천군 쌍책면 성산리 산 23번지



圖面28 宜寧 中洞里古墳群 遺構配置圖

【시 대】삼국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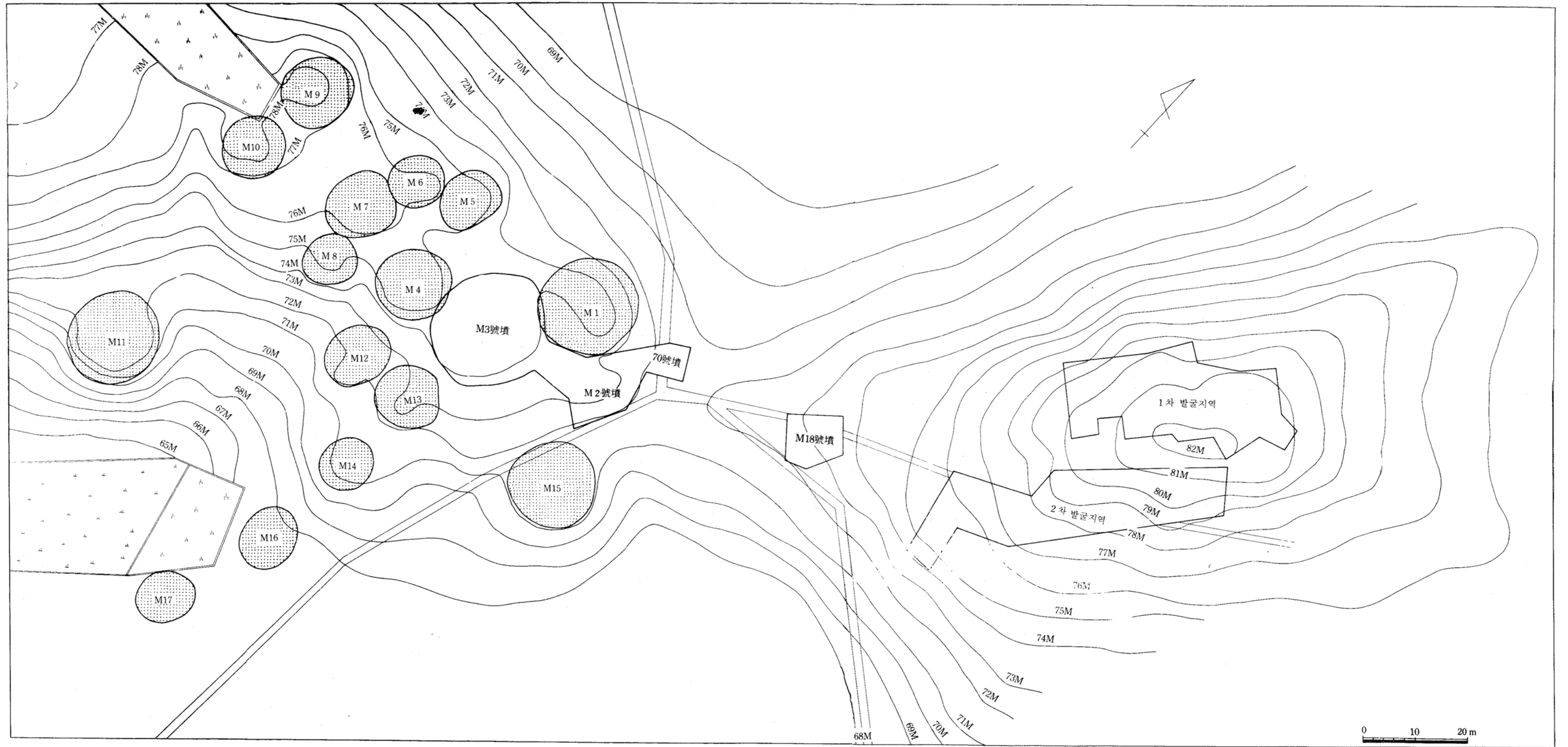
【유적내용】

이 고분군은 합천과 거창지역을 유역권으로 하는 황강(黃江)이 낙동강 본류와 합쳐지는 하류의 관문지역에 위치하며 본류와는 약 6km 정도 떨어져 있다. 주변의 지세는 남쪽으로는 황강과 해발 200m의 다봉산을 사이에 두고 초계 분지와 접해 있으며 양 지역은 단봉산과 옥두봉(玉斗峯) 사이의 협곡을 통해 내왕이 가능하다. 북쪽으로는 해발 200m 정도의 고개를 넘으면 협곡을 통해 고령과 연결되는 교통로에 있다.

고분군은 몇개의 능선에 나누어져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로는 1,000 여기에 달한다. 경상대학교 박물관에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5차에 걸쳐 발굴하여 6권의 보고서를 간행 하였다. 조사보고에 따르면 지표조사에 의한 분포상태는 소형 석곽묘가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반면, 이른 시기의 목곽묘는 능선의 정상부에서 동남쪽으로 뺀내린 능선에 주로 분포하고 고층 고분은 서남쪽의 고개마루 건너편의 능선에 26기가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다.

조사된 高塚 古墳과는 달리 橫穴式 石室을 내부주체로 하는 고층 고분이 능선의 동북 반대쪽의 다른 능선에도 형성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도로의 확장공사와 수로공사때에 다수의 토기가 출토되었다고 하며 鴨形土器도 이곳 능선의 말단부에서 수습되어 신고되었다. 옥전 고분군의 묘제는 木槨墓→大形 豎穴式 石槨墓→高塚古墳(소형 석곽묘와 같은 시기)으로 변화하였으며, 목곽묘 단계의 지표유물은 無蓋無透窓高杯이고 대형 수혈식 석곽묘 단계의 지표유물은 有蓋有透窓高杯이며, 고층 단계의 標識遺物은 蓋杯와 有蓋式長頸壺이다. 고분군은 유구의 구조에 따른 분포와 구획이 나누어지고, 동시에 유력계층으로 추정되는 묘역의 설정도 일정한 규칙성을 나타내어 4세기에서 5세기 중엽까지는 능선 정상부를 중심으로 목곽묘가 분포하고 있으며, 5세기 중엽 이후부터 묘역은 서쪽의 고개마루 건너편 능선으로 이동하여 축조하였다. 6세기 중반부터는 橫穴式 石室들이 능선의 경사진 곳에 한 두 기씩 축조되는 현상을 보인다.

유적중에서 상당수가 조사되었으며 봉분이 있었던 대형분묘들은 정비사업을 통하여 정확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전시관을 짓기 위한 사전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圖面29 陝川 玉田古墳群 遺構配置圖

(7) 陵山里古墳群(圖面 30, 圖版 31)

【지정사항】 사적 제14호(1963년 1월 21일 지정)

【유적종류】 고분(삼국시대고분)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 15

【시대】 삼국시대(백제)

【유적내용】

부여에서 능산으로 향하는 국도의 약 2km 지점 좌측에 위치하는 백제 말기의 왕릉 고분군으로 사적 제14호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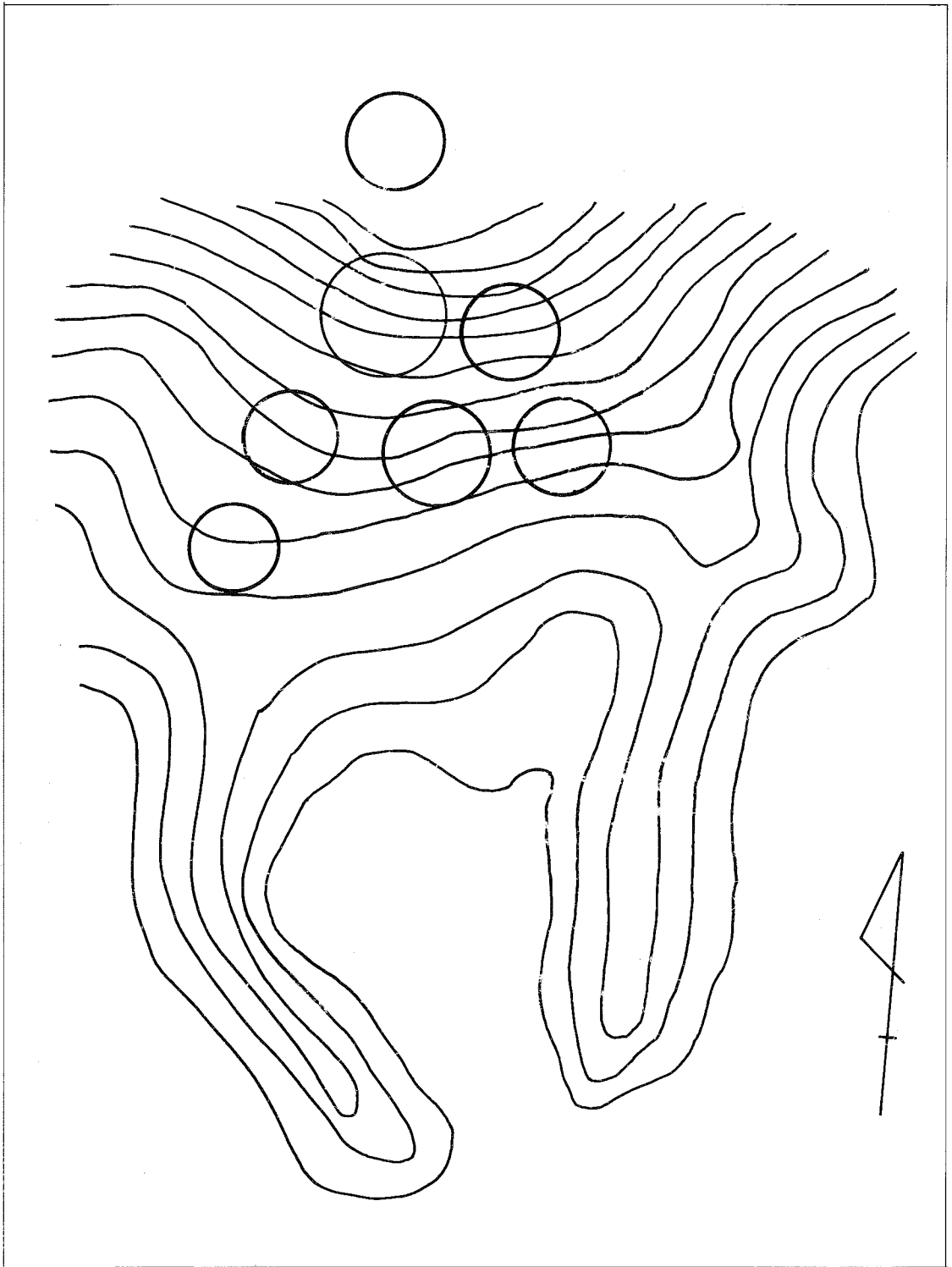
능산리 고분군은 모두 3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분군은 왕릉으로 전하는 7기의 고분을 중심으로 동쪽에 5기가, 서쪽으로 수기가 분포되어 있다. 1915년부터 발굴 조사가 실시된 이후 계속해서 이 고분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도로변에 백제 고분의 모형관이 설치됨으로써 명실공히 백제 고분의 표본적 전시장이 되고 있다.

능산리 고분군이 백제왕릉이라는 근거는 공주읍지인 『舊公山誌』에 ‘관아동십리허유왕릉(官衙東十里許有王陵)’이라는 기록과, 이 곳을 ‘능피’라고 부르는 지명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정비되어 있는 고분은 7기이고, 외형상 확인되는 고분은 3기이지만 조사가 이루어진 것만도 1915년에 3기, 1917년에 5기 그리고 1937년에 5기가 이미 조사되었고 이후 1960년대에 추가로 수기가 조사되어 발굴 조사된 고분은 십 수기에 이르고 있다.

1915년에 일본인 흑판관야(黑板關野)에 의해 조사된 고분은 동하총, 중상총, 서하총의 3기이다. 동하총은 3.25m×1.51m×1.94m 규모의 단면 4각형의 구조의 현실을 가진 고분으로, 玄武, 朱雀, 靑龍, 白虎를 네벽면에, 천정에는 연화운문이 그린 벽화 고분으로 유명하다. 중상총은 단면 6각형, 서하총은 터널형의 현실을 가지고 있으며 연도를 각각 시설하였다.

1937년에는 매원말치(梅原末治)에 의해 동쪽 구릉에 위치한 5기의 고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고분의 축조 형식은 황혈식 단면 6각형의 구조에 연도를 가진 백제시대의 고분으로 밝혀졌으며, 이미 도굴이 진행된 상태였기에 출토 유물은 목관편, 철정, 좌금구, 금박편 약간만이 수습되었다.

능산리 고분군에서 현재 확인되는 고분은 1915년에 조사된 것들이며, 1966년과 1972년에 정비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봉토확대 등의 작업과정에서 7호분이 1, 2 호분의 입



圖面30 扶餘 陵山里古墳群 遺構配置圖

구 뒷쪽에서 8호분과 함께 발견되기도 하였다. 더불어 현재 능산리의 고분군 서쪽에는 백제고분 모형관이 마련되어 백제 기단식 적석총에서 옹관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덤 모형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다.

(8) 宋山里古墳群(圖面 31, 圖版 31)

【지정사항】 사적 제13호(1989년 4월 10일 지정)

【유적종류】 고분(삼국시대고분)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시대】 삼국시대(백제)

【유적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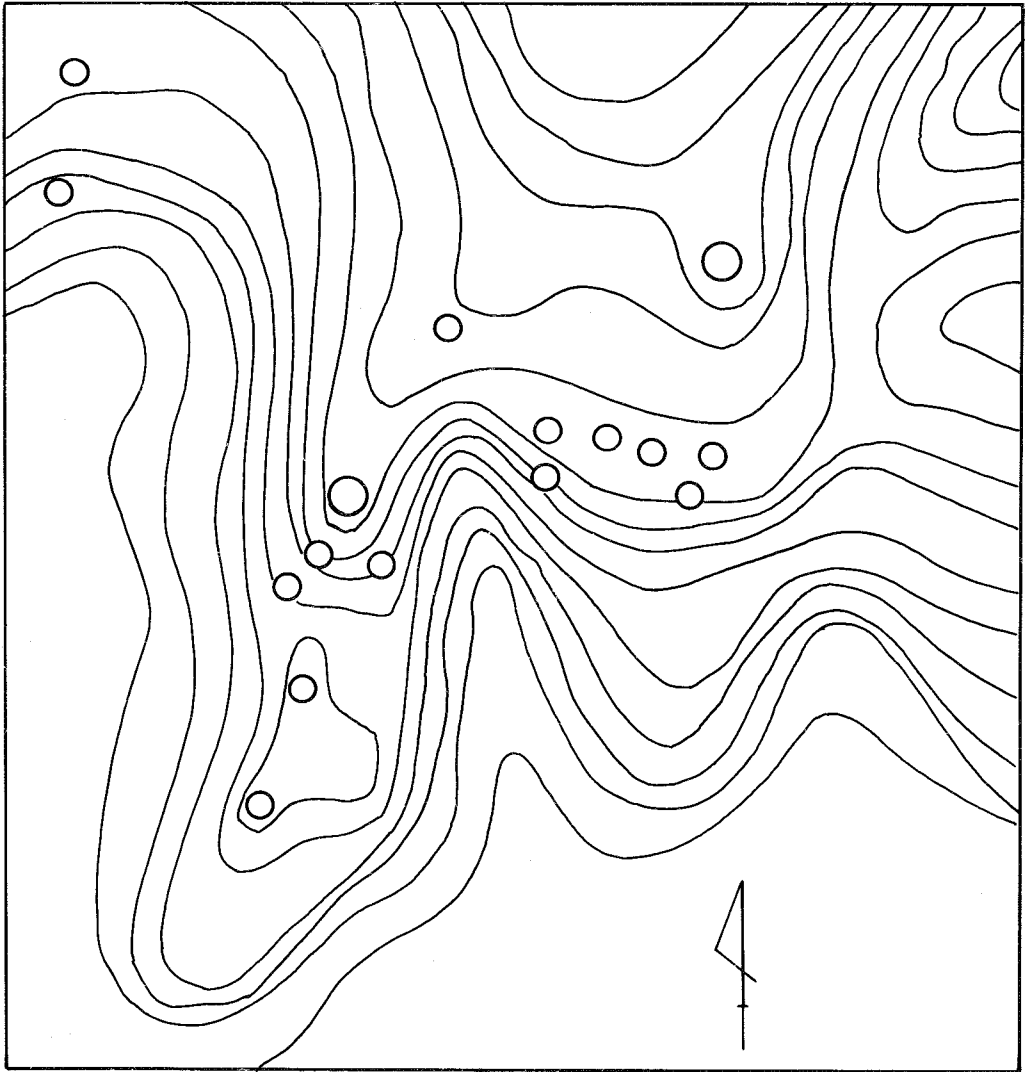
송산리 고분군은 공주시 중심부에서 서북방으로 약 1km 지점인 금성동과 웅진동에 연결한 송산소라는 지역의 남쪽 경사면에 위치한다.

백제는 문주왕(457~477, 재위)이 475년 지금의 서울인 한성으로부터 천도한 이래 삼근왕(477~479, 재위), 동성왕(479~501, 재위), 무녕왕(501~523, 재위)을 거쳐 성왕(523~554, 재위)이 538년 수도를 다시 지금의 부여인 사비로 옮길 때까지 5대 63년간 지금의 공주인 웅진에 도읍하고 있었다. 송산리 고분군에 자리잡고 있는 고분들은 바로 웅진 도읍기에 재위하였던 백제의 왕들과 왕족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동쪽으로 수려한 공산성이 건너다 보이고, 서쪽으로는 곰나루의 금강이 아늑하게 감싸돌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충청남도의 명산인 계룡산이 눈앞에 펼쳐져 풍광이 뛰어난 이 곳은 가히 명당이라 할 수 있는 곳으로, 당시에 이미 사신사상에 따라 묘지를 선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발굴조사에서 밝혀진 고분들의 내부 구조는 크게 석실분과 전축분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북방 상부에 동서 일렬로 늘어서 있는 4기의 고분과 남방 하부에 위치한 3기의 고분 중 동남쪽의 5호분은 현실과 현실로 들어가는 길인 연도를 네모꼴로 다듬은 돌로 축조한 석실분이고, 남방 하부의 나머지 두 고분, 즉 무녕왕릉과 6호분은 벽돌로 쌓은 전축분이다.

1971년 우연하게 발견되어 발굴 조사된 무녕왕릉은 찬란했던 백제 문화의 진수를 유감없이 드러내어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국내외 학계의 백제 문화 연구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圖面31 公州 宋山里古墳群 遺構配置圖

위에 설명된 遺蹟中에서 東萊 福泉洞古墳群은 최근 정비가 완료되었는데 고분군의 정비와 함께 박물관이 건립되어 많은 관람객으로 붐비고 있다. 특히 釜山을 관광하고자 하는 外國人들의 名所로 자리잡으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역할과 관광자원으로서 일조하고 있다. 福泉洞古墳群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고대의 문화를 정연하게 전시한 박물관은 부산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초중고교생들의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어 교육적인 차원에서 부산의 중요한 명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2. 整備事業의 進行過程

遺蹟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 유적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유적의 성격에 걸맞는 保存對策과 整備計劃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유적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유적을 정비한다면 遺蹟이 지니는 學術的 意義나 教育的 要素가 유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적에 대한 왜곡된 정비는 일반인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심어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적에 대한 많은 정보를 축적한 연후에 이를 검토함으로써 해당 유적에 대한 정확한 현상을 일반인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것이다.

(1) 現場調査

유적에 대한 현장조사에는 地表調査와 試掘調査 및 發掘調査가 있다. 이 중에서 保存整備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조사는 발굴조사일 것이다. 사실, 유적에 대한 정비를 전제로 하였을 때, 地表調査는 그다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이는 지표조사가 유적의 存在有無를 알아보려고 하는 의도에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유적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 있어서 지표조사는 유적의 전체적인 범위를 확인해 보는 정도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나마도 지표면에 나타난 현상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유적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아닌 것이다. 때문에 적용되는 것이 試掘調査이다.

시굴조사는 일부 면적에 대하여 트렌치나 피트를 설정하여 遺構의 有無를 규명하는 방법으로 地表調査에 비하여 유적의 범위를 확인하는 유효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적의 정확한 범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시굴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시굴조사는 유적의 존재유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범위를 기정 사실화하여 保存區域을 설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거쳐 유적의 범위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유적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일부 유적의 경우 육안상으로 확인되는 봉분의 흔적을 기준으로 신라나 백제고분에서 보이는 둥그스런 봉분을 그대로 원용하여 복원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왔다. 그러나 함안의 말이 산고분군의 봉분 복원에 대해서는 원분형태가 아닐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⁹⁵⁾ 이러한 점에서 유적의 정비에는 반드시 실증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 東萊 福泉洞古墳群의 遺構復元에서는 발굴과정에서 봉분에 대한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구의 형태를 지표면에 표시하여 유구의 흔적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유적의 복원에 앞서 사전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하며, 유적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은 발굴조사인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발굴 자체가 유적에 대한 파괴행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또 자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부득불 조사가 되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시행하되 상태가 良好한 遺構는 가능한 한 보존하여야 한다. 단 유적의 정비와 병행하여 展示館이 갖추어질 것이라면 전시유물의 확보차원에서 일정면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의 조사는 단순히 유적의 조사가 아니라 유적에 대한 整備事業과 연관하여 조사의 방향이 정하여져야 한다. 즉 유구의 복원을 전제로 한 발굴조사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유구를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그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 많은 사진자료와 유구에 대한 정확한 도면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2) 정비계획의 수립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出土遺物의 檢討를 통하여 遺蹟의 築造와 관련한 정확한 편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조사시 상태가 불량한 유구는 해체 등을 통하여 유구의 축조방법을 밝혀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해당 유적에 대한 정확한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95) 昌原大學校 博物館, 1992, 『咸安阿羅伽耶의 古墳群(1)』.

같은 학술적인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비의 방향과 성격이 결정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비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전문가의 조언에는 고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유적의 보존방안, 정비를 포함한 교통, 환경 등 제반 분야가 총망라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제반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유적의 정비에는 단순히 유적의 현상을 정비하는 것과 이에 덧붙여 유적의 성격을 일반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현상정비의 예는 경주지역이 대표적이라고 할 것이다. 경주는 도시전체가 문화유적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니만큼 개개유적에 대한 정비는 실로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경주지역의 개개유적에 대한 현상정비는 비교적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개개유적에 대한 내용은 국립경주박물관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지역을 통합한 하나의 전시관 형태가 경주의 문화유적에 대한 정비에 있어서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반면 백제권의 경우 공주와 부여로 나누어져 백제권의 문화유적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이는 백제의 수도가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분산된 형태이다. 그러나 공주와 부여에 국립박물관이 있는 가운데 송산리고분군과 능산리고분군에 모형전시관등이 갖추어져 개별유적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고 있다. 또 다른 형태로서 개별유적에 대한 전시관의 건립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산광역시립박물관의 복천박물관일 것이다. 복천박물관은 복천동고분군이 발굴조사됨으로서 복천동고분군에 대한 발굴성과를 비롯하여 비교가능한 주변지역의 문물들을 종합하여 전시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전곡리의 구석기 유적전시관, 석장리의 구석기 유적전시관, 고령지산동고분군의 전시관이 있으며, 최근 합천 옥전고분군에서도 전시관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전시관은 지역민의 애향심을 고취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개별유적에 대한 이와 같은 전시관의 건립은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민의 애향심 고취라는 차원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3) 정비

일반적으로 유적의 정비라고 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벌목을 실시하고 봉분을 쌓은 후 깨끗하게 잔디를 덧입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유적의

정비는 이와 같이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비의 대상이 되는 유적에 대하여 사전에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에 이러한 정보를 위하여 최소한의 면적에 대한 시굴조사 또는 발굴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시굴 또는 발굴조사를 거쳐 얻어진 유적에 대한 정보는 단순히 교육적 자료로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적의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십분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조사를 주관한 기관의 자문은 유적의 정비과정에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유적내의 각 유구에 대한 세부적인 복원이나 정비과정에서 유구가 만들어질 당시의 현상들을 최대한 되살리지 못한다면 유적의 정비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한다면 유적의 정비는 현재의 미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적이 만들어질 당시의 상황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복원해 내는가에 주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단적인 예로 일부 정비된 유적의 경우, 우기를 맞아 강우량이 많은 시, 봉분이 유실되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이는 당시의 봉분을 축조하는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봉분이 복원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학술조사시에 확인된 봉분축조방법에 따라 봉분이 복원되었다면 이러한 봉분 유실의 거의 대부분은 미연에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중장비를 동원하여 흙을 퍼올리고 잔디를 이식하여 마무리 한 복원의 형태는 항상 봉분유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비과정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여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구조와 다른 형태로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때문에 유적이 정비되기 이전에 주도면밀한 발굴조사를 거쳐 완벽한 복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유적의 정비는 역사를 왜곡하고 일반시민들에 대하여 잘못된 교육자료를 제시하는 모순을 범할 뿐 아니라 유적을 보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3. 雲化里古墳群 整備案

(1) 雲化里古墳群의 現況

雲化里古墳群은 신문지상을 비롯한 언론 매체를 통하여 훼손의 정도가 적나라하게 알려진 울산지역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실제 운화리고분군은 도굴의 피해 뿐만 아니라 유적을 가로지르는 道路의 개설(送電塔 建設道路)에 의하여 유적의 중앙부가 직접적으로 파괴되어 버렸다. 때문에 도로의 단면과 바닥에 유구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로의 곳곳에는 토기편들이 즐비하게 방치되어 있으며 도로의 단면에는 토기들이 박힌 상태로 우기만 되면 토사의 유실에 의하여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무방비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송전탑건설시에 대량의 유물이 반출되었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아무런 신고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송전탑 건설공사 자체가 유적의 파괴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운화리고분군의 파괴과정은 이에 그치지 않고 도굴에 의해서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의 조사과정에 유구의 개석을 들어내기 위한 철봉 등이 현장에서 확인되기도 하여 최근까지도 도굴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형개석이 있었던 유구의 경우는 개석의 대부분이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 두 개의 개석들이 제자리를 벗어나 있어 유구의 내부가 이미 도굴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일부 유구는 전체적으로 도굴되어 석곽의 전면이 드러난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유적의 파괴현상은 유적을 가로 지르는 도로의 주변에서 경작에 필요한 흙을 채취하는 주변의 농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운화리고분군의 토질은 황갈색의 황토로 경작에 적당한 것이어서 주변 농가에서 정기적으로 흙을 채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작토 채취과정에서 유구의 일부가 노출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무심결에 일어나는 주민들의 유구훼손 행위는 문화재에 대한 주민홍보가 전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적은 이러한 세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으며, 이중 도굴은 전체 유적에 걸쳐서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고분군이 전체적으로 울창한 수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도굴이 진행되어도 숲의 바깥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을 뿐더러 민가와 멀리 떨어진 상황이므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도굴의 정도가 심한 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도굴된 유물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인근의 도로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의외로 쉽게 도굴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화리고분군에 대한 도굴을 방지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방치되어 온 것은 문화재 보호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2) 운화리고분군 정비방안

운화리고분군에 대한 학술적 중요성은 울산의 지역사를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대사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때문에 더 이상 유적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역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더 이상의 유적 훼손을 막고, 나아가서 교육적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리고분군의 학술적 중요성이 십분 인정된다고 하여도 아무런 조사과정 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미 알려진 몇몇 유적의 경우 학술적 조사과정을 생략한 채로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예가 있었다. 하지만 잘못된 복원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데 비하여 교육적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말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문화리고분군의 경우에도 유적의 전체적 성격을 알 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최소범위 발굴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는 점에서 조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유적의 실질적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유적에 대한 왜곡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발굴조사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조사의 범위는 1차적으로 각구릉별로 상태가 良好한 유구 1, 2기 정도와 유적의 훼손이 심하여 유구의 해체가 가능한 1, 2기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유적의 성격을 알리기 위한 전시관의 건립이 계획된다면 전시관이 입지할 지역은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적의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보호구역과 보존구역으로 구분하여 정비하는 방안이 이미 제시된 바가 있다.⁹⁶⁾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리고분군을 보호구역과 보존구역으로 구별한다면 보존구역은 유적이 확인되는 전체 범위가 해당될 것이며 보호구역은 유적으로부터 반경 1km 정도를 설정하여 유적의 정비후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비계획은 비교적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유적이 입지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토지의 소유자가 울산광역시이므로 이 지역에 대한 문화재 보존의지만 확고하다면 유적에 대한 불법적인 훼손을 억제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유적의 범위내에 한전의 송전탑들이 들어서면서 유적의 일부가 훼손되었는데 차후 유적주변에 이와 같이 유적의 미관을 해칠 수 있는 구조물의 설치는 삼가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유적의 향후 정비를 대비하여 유적인근지역에도 개발이

(96)昌原大學校 博物館, 1992, 『咸安阿羅伽耶의 古墳群(1)』.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즉 향후 이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반드시 유적의 보호, 보존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운화리고분군의 정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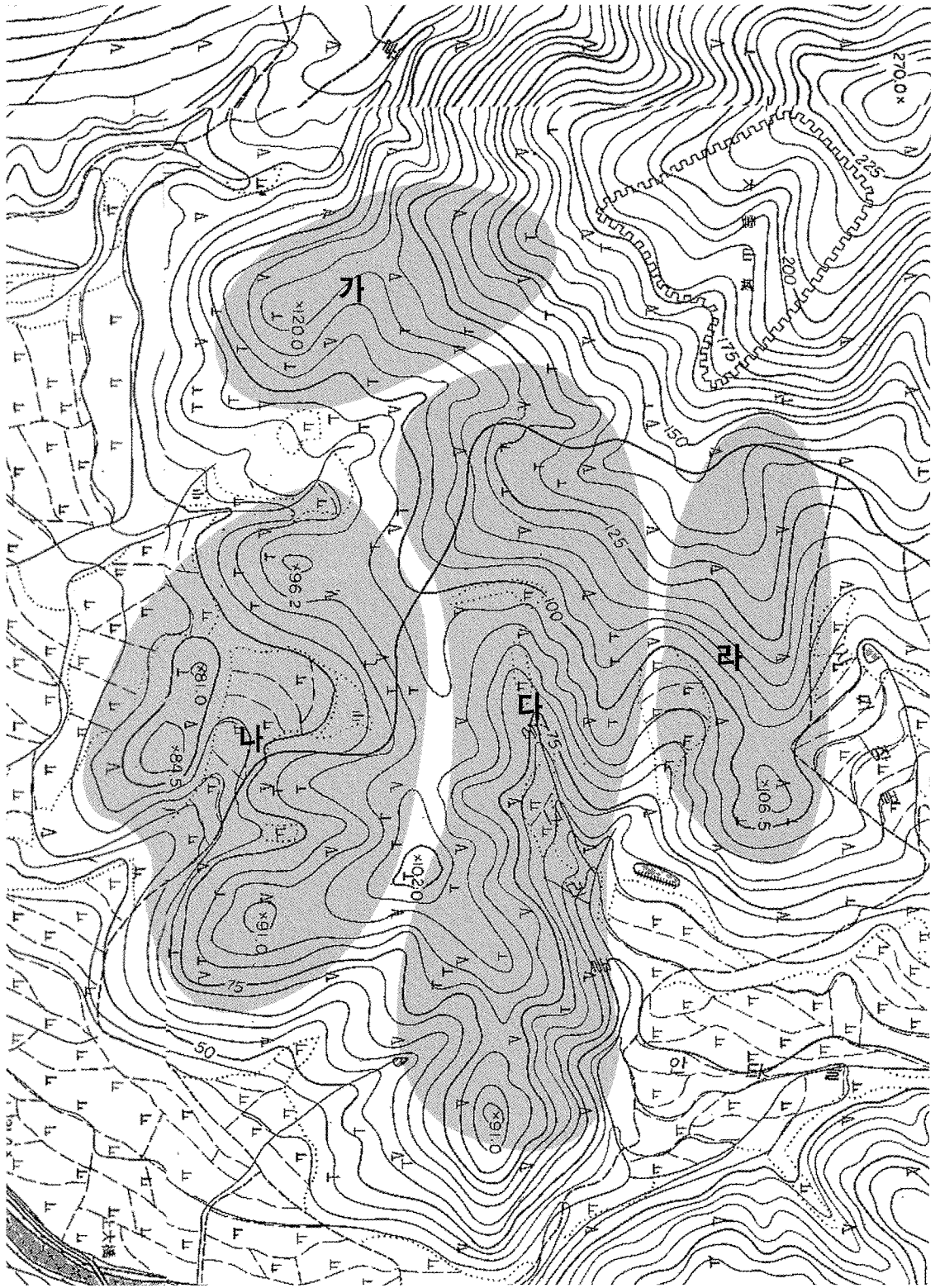
운화리고분군은 크게 4개의 구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구릉은 육안상으로 보아 대형봉토분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구릉의 중턱에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송전탑의 이설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이 지역은 송전탑의 이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비계획의 수립이 곤란한 것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유적의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구릉은 대형봉토분을 포함한 수혈식석곽묘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곳인데 인위적인 정비사업보다는 현상태에서 도로를 보수하고 주변경관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라’ 구릉은 도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곳이며 송전탑건설과정에 가장 심하게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때문에 도굴갱의 정리와 도로의 정비사업을 통하여 미관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지역은 벌목을 실시하고 도굴이 심한 유구는 조사하여 유구의 구조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장정비계획은 기본적으로 ‘가’, ‘나’, ‘다’, ‘라’ 구릉의 순서로 정비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적의 전체적인 정비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성의 문제를 포함하여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교통망의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유적의 정비는 유적전체에 대한 정비와 함께 전시관을 건립하여 관련유물을 전시하여 직접적인 자료를 교육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적이 위치한 지역은 울산이나 부산으로부터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있다는 점이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온양면과 온산읍지역의 유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역화한 전시관의 설립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지역 일대의 유적에 대한 내용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관이 만들어진다면 유물들을 한 자리에서 관람한 후 관련 유적에 대한 답사를 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이 곳은 고대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문화상품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圖面32 雲化里古墳群 구릉 구분도(1/5천)

특히 이 지역을 관통하는 울산-부산간 14번국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로변 인근에 전시관이 건립된다면 이러한 계획은 보다 현실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운화리고분군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실시한 정밀지표조사 결과와 정비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화재의 체계적 정비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유적의 정비는 시간적, 경제적 여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민의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지방박물관을 건립하고 문화유적들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는 단순히 지역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는 민족문화의 유산이며 후손만대에 물려져야 할 귀중한 문화자산인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재와 관련된 전시관과 정비계획은 면밀한 학술조사와 정비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울산은 수많은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광역시로 승격한 현재까지 울산지역의 유물을 전시할 만한 박물관조차 없는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라도 많은 문화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조속히 시립박물관이 건립되고 훼손일로에 있는 문화유적들을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한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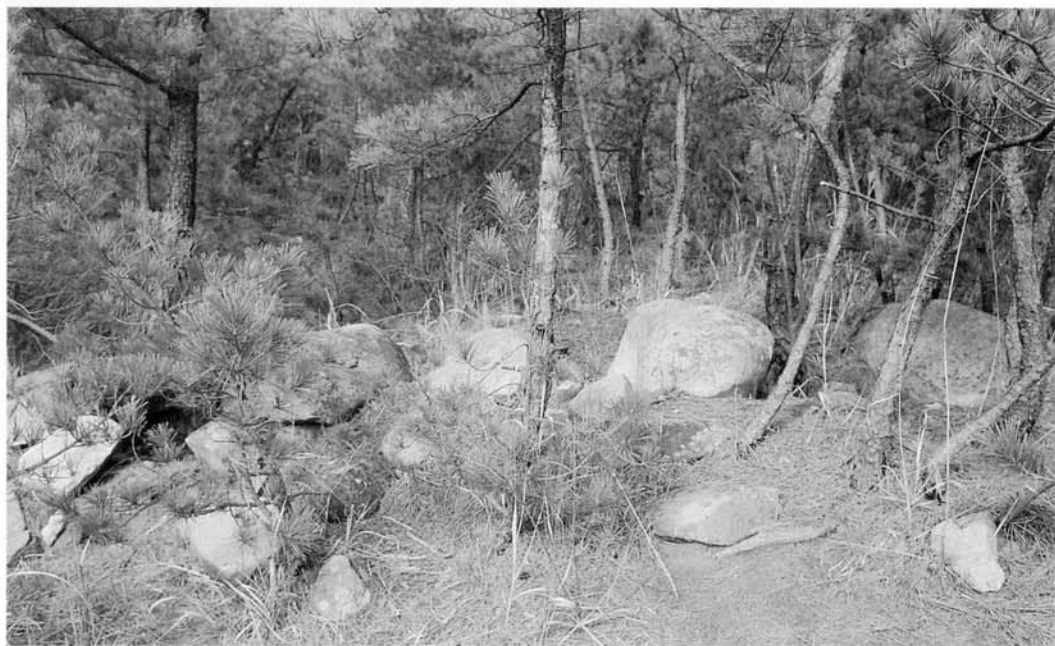
운화리고분군은 울산지역의 많은 유적중에도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적이며 이에 대한 보존대책은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이 사실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운화리고분군을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결과의 최종결과인 본 보고서가 향후 운화리고분군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이번 조사를 담당한 조사단 모두의 바람이다.

圖 版



圖版 1 雲化里古墳群 全景



圖版 2 雲化里古墳群 蓋石 露出 廣景



圖版 3 雲化里古墳群 蓋石 露出 廣景斗 遺構露出 廣景



圖版 4 雲化里古墳群 道路開設時 破壊된 遺構



圖版 5 遺蹟을 가로지르며 開設된 道路



圖版 6 道路로 인하여 斷面에 露出된 遺構



圖版 7 道路로 인하여 單面に 露出된 遺構



圖版 8 道路로 인하여 單面에 露出된 遺構와 收拾遺構



圖版 9 收拾遺構의 모습



圖版10 收拾遺構의 細部모습



1



5



2



6



3



7



4



8

圖版11 採集遺物



圖版12 採集遺物



1



5



2



6



3



7



4



8

圖版13 採集遺物



1



5



2



6



3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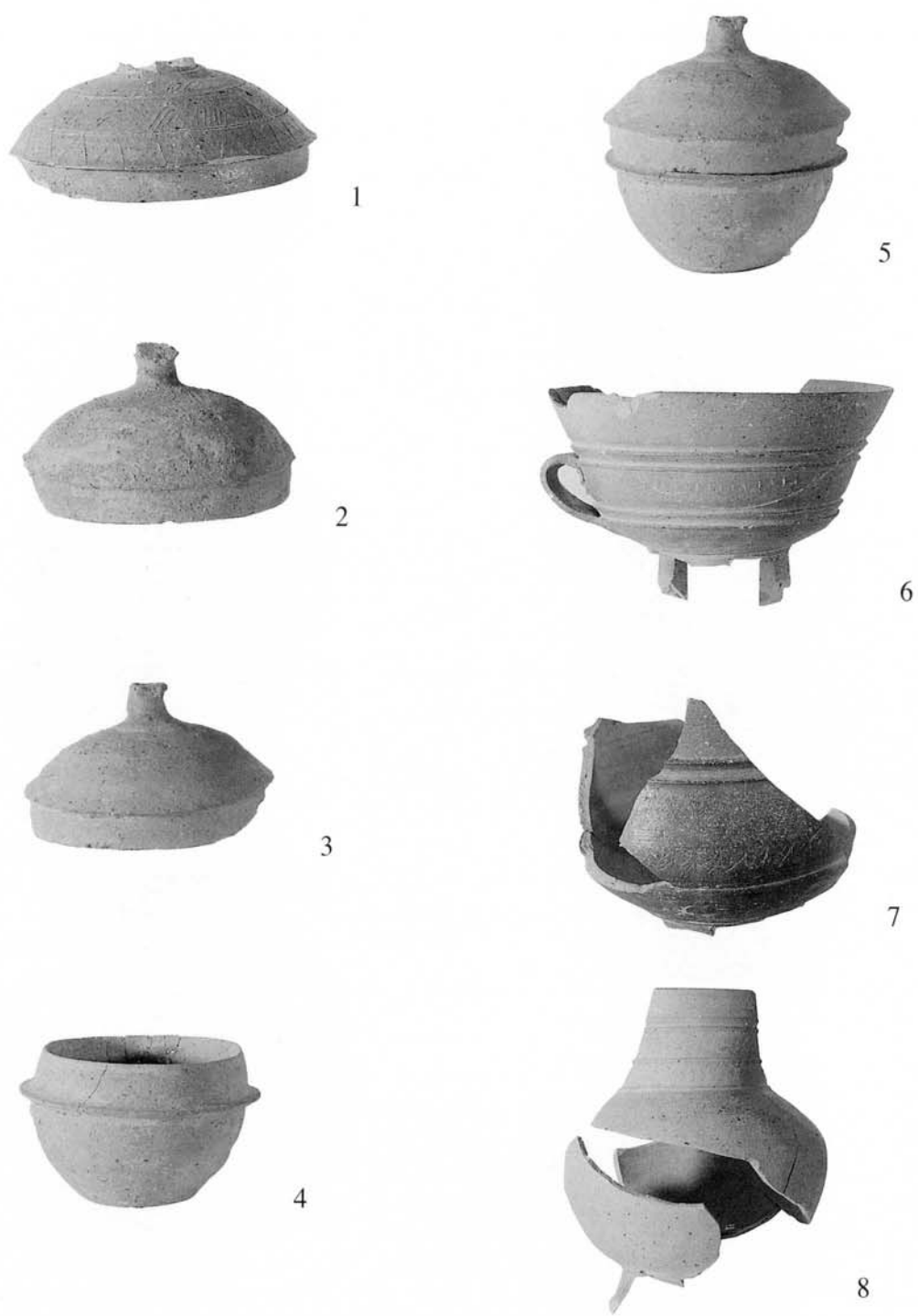


4



8

圖版14 採集遺物



圖版15 採集遺物



1



5



2



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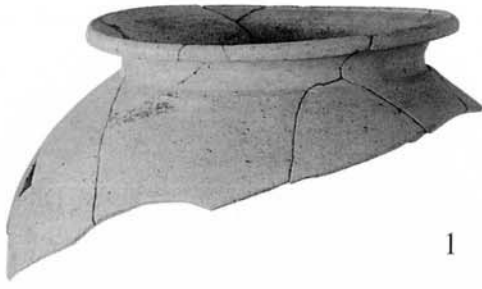


4



7

圖版16 採集遺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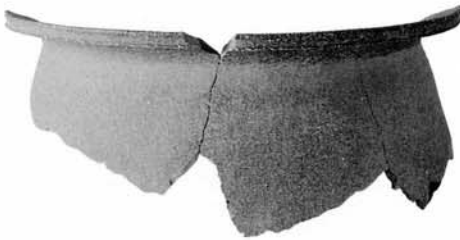
4



2



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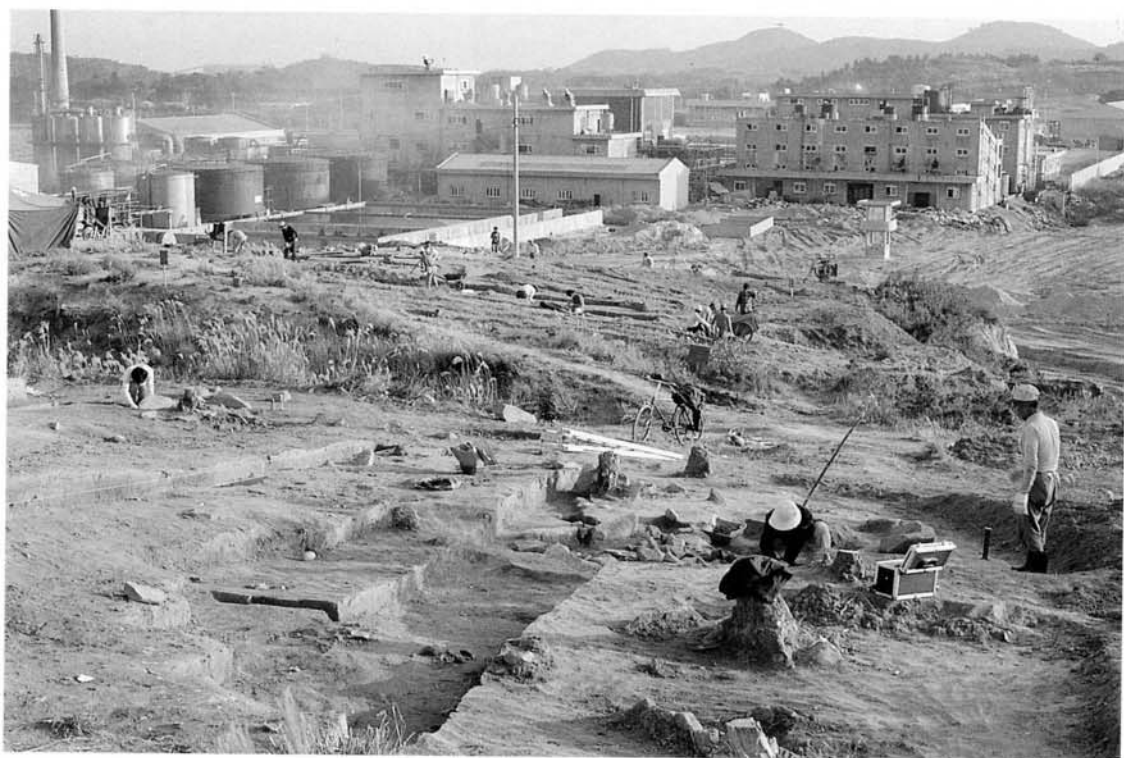


6

圖版17 採集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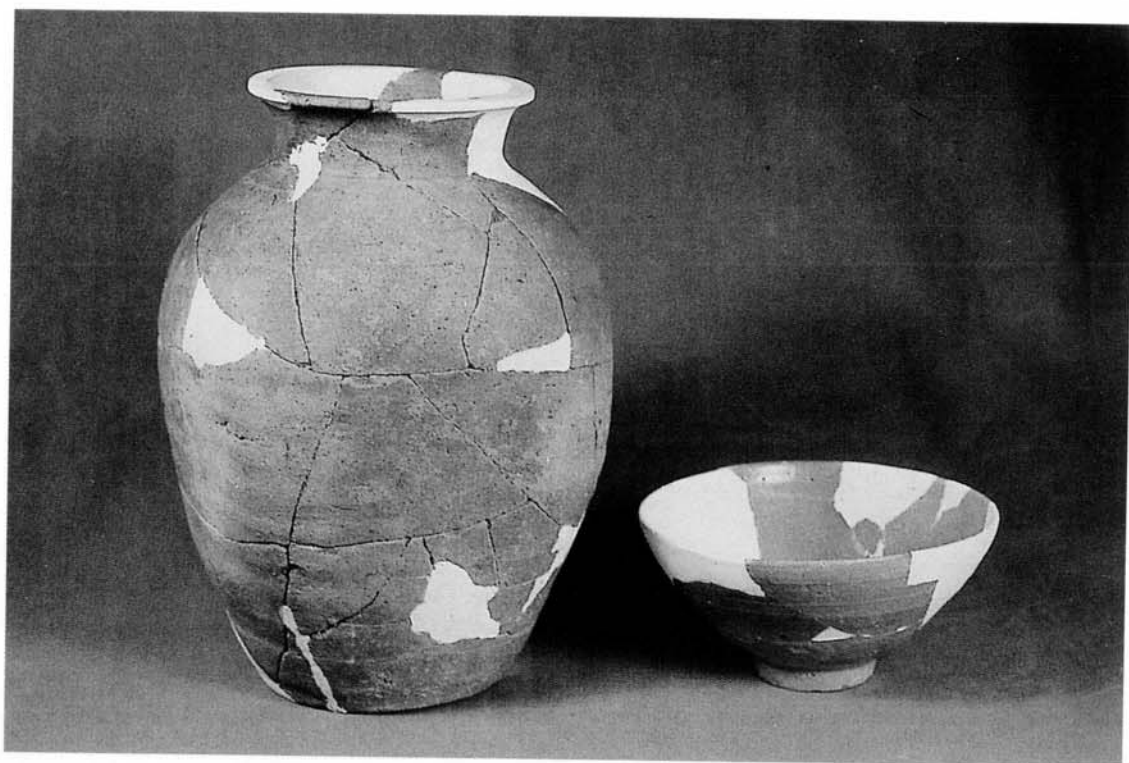
圖版18 青良面 良東遺蹟 全景及 發掘作業 廣景



圖版19 溫山邑 華山里古墳群 調査 廣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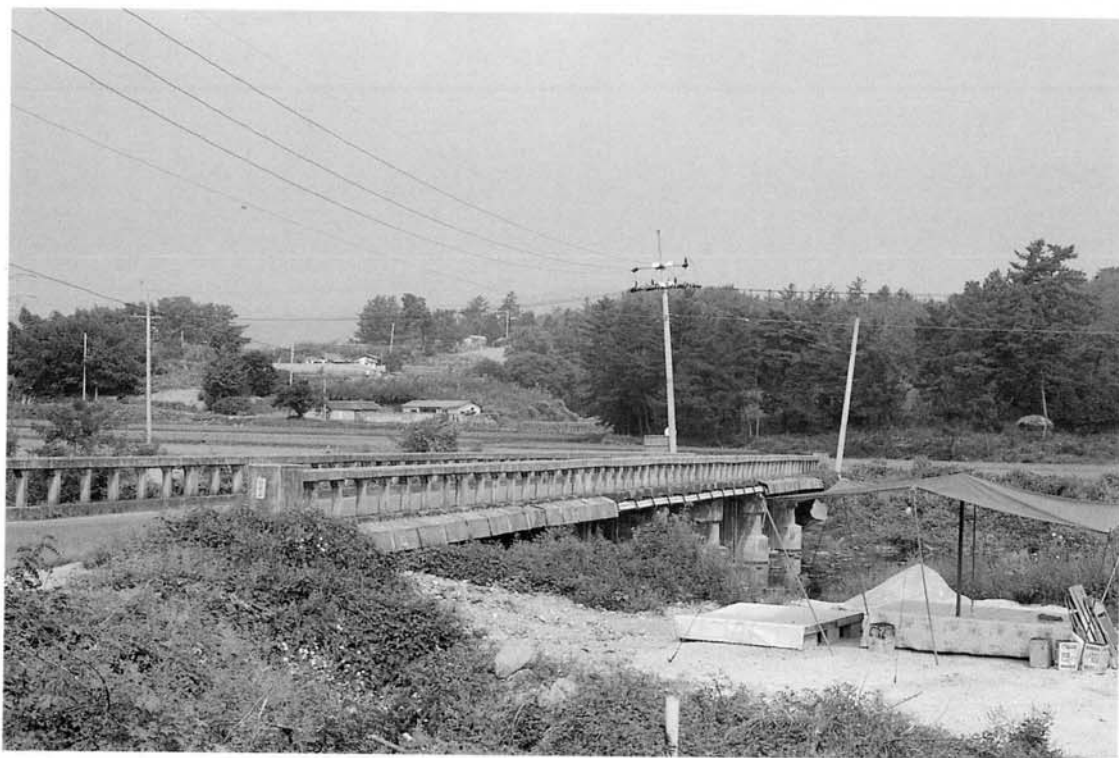
圖版20 溫山邑 華山里山城 露出 廣景



圖版21 溫山邑 華山里山城 出土遺物



圖版22 溫陽面 下方古墳群 全景 및 遺構毀損 모습



圖版23 溫陽面 三光里古墳群 全景 및 採集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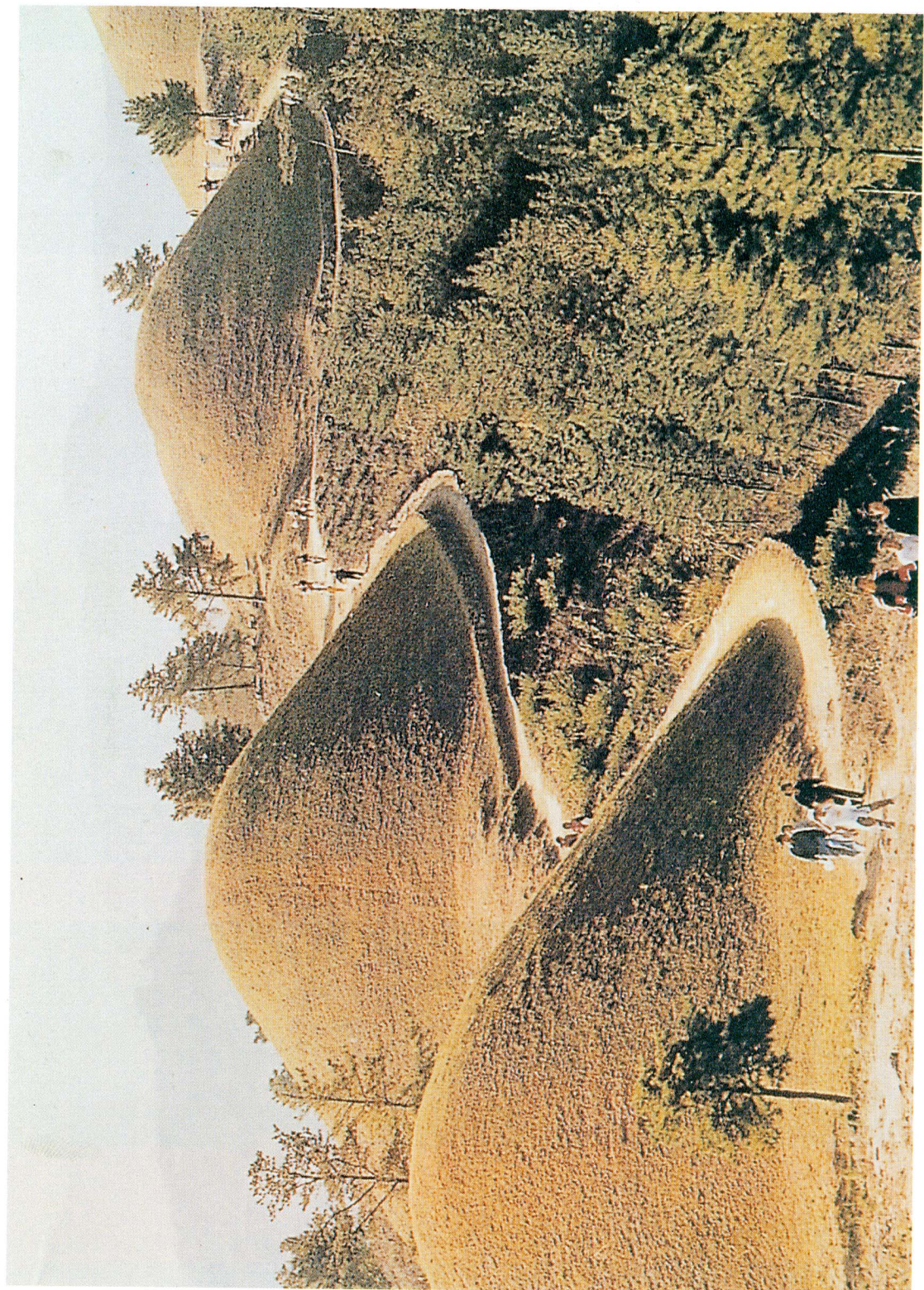
圖版24 東萊 福泉洞古墳群 整備後 廣景(上->下)



圖版25 東萊 福泉洞古墳群 整備後 廣景(下→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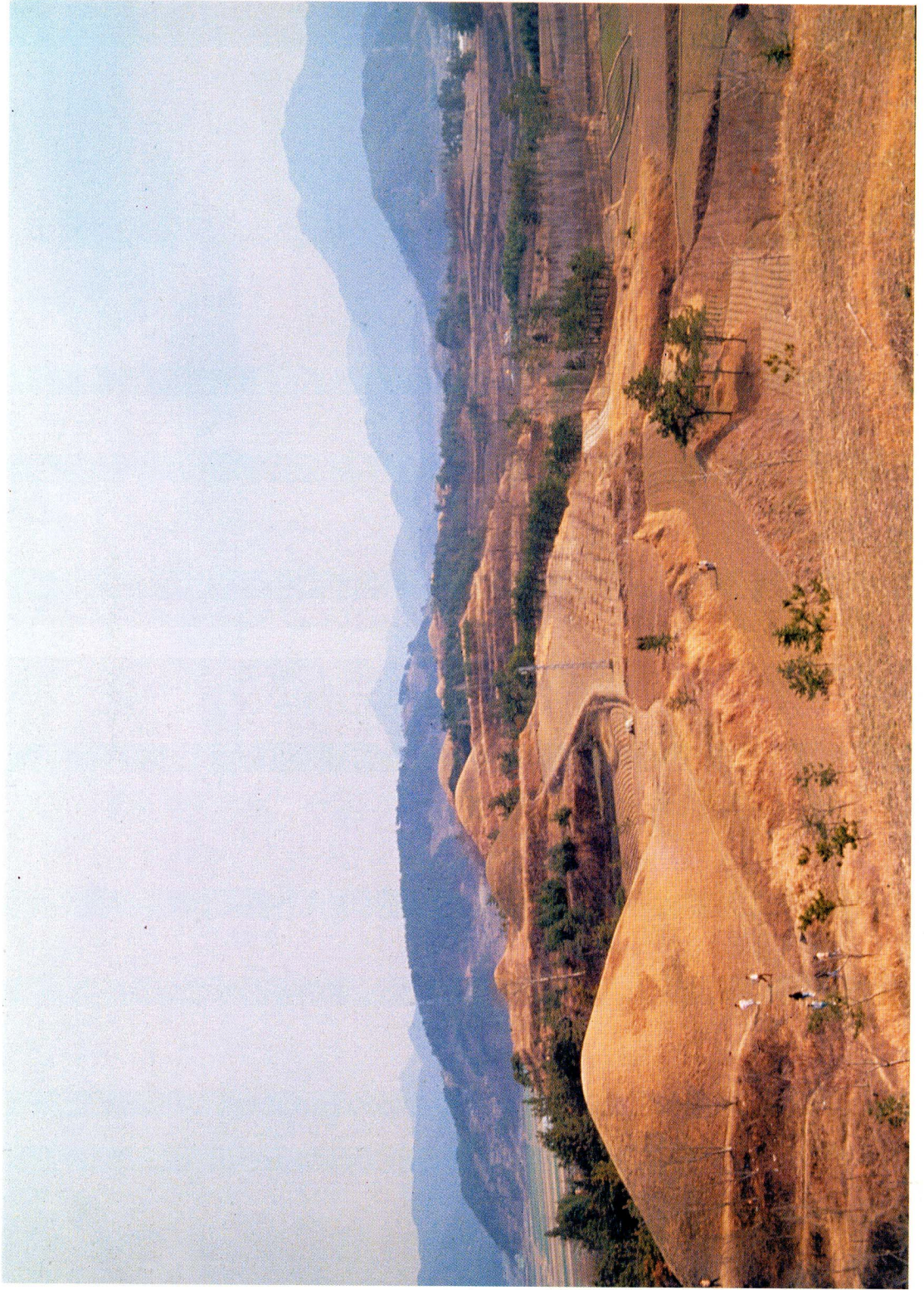
圖版26 高靈 池山洞古墳群 調查廣景



圖版27 高靈池山洞古墳群整備後廣景



圖版28 昌寧 校洞古墳群 全景



圖版29 咸安 末伊山古墳群 全景



圖版30 宜寧 中洞里古墳群 全景及 陝川 玉田古墳群 全景



圖版31 扶餘陵山里古墳群 全景과 公州松山里古墳群 全景

蔚山大學校博物館 學術研究叢書 第2輯

文化遺蹟地表調查報告 (雲化里古墳群)

1998. 10. 27 印刷

1998. 10. 30 發行

編輯：蔚山大學校博物館

發行：蔚山市 南區 無去洞 山29番地

電話 (052) 259-2634

印刷：금양문화사 (051) 246-6734
